

시로 읽는 성보순례
용주사 동종
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이기심을 채우려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아라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잡보장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0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 918호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불교 미래 제시하는 언론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한 해동안 불교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한 불교 언론인들을 시상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비실천의 불교이념을 알리는 것은 불교 언론문화의 소중한 일"이라며 "오늘 시상을 통해 수상자 여러분의 공적을 높이 기리고 건강한 사회 발전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장이자 총무원 문화부장인 진명 스님과 상을 후원하고 있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도 인사말 등을 통해 불교 언론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본지 최정희 편집이사는 불교언론인상을, 본지의 연중 기획 기사 '불교는 서원의 종교– 나의 서원 나의 신행'은 신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척박한 불교계 언론 환경에서도 불교 문화 진흥에 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최정희 편집이사는 수상 직후 "함께 해 준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 힘이 다하는 날까지 불교 언론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교 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한 故김재일 이사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KBS 부처님 오신날 특집 '히말라야에서 부처를 만나다'가 수상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장기 불황 여파, 종교도 못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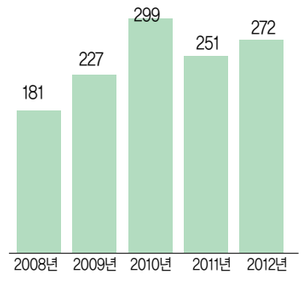
경매 나온 종교시설 272개… 작년보다 10% 증가

장기 불황의 여파가 이제 종교계에까지 미치고 있다. 경매에 나오는 종교시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법원 경매정보 전문 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올해 현재 사찰, 교회 등 법원경매에 나온 종교시설)의 총 물건 수는 272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251개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매에 부쳐지는 종교시설 물건 수는 3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매에 나온 종교시설 총 물건 수는 2008년 181개, 2009년 227개에 이어 2010년 299개로 늘어 200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후 2011년 251개로 다소 감소했다가 올 들어 272개로 상승했다.

하지만 종교시설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까지 19~20%선을 보이던 낙찰률은 2011년 15.54%, 올해 15.07%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종교시설 총 물건 수

이에 대해 박종보 부동산 태인 연구원은 "지난 2000년 대 중후반 부동산 활황기 시절, 대출을 받아 건물을 증축했거나 신축한 이후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경매로 넘겨지고 있다"며 "종교시설이 경매장에 나온 경우 해당 종파에서 다시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마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가 종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중일 기자**

朴 "전통사찰 정비" 文 "불교 사회활동 지원"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양 후보 對불교 공약 발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주일을 앞둔 가운데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가 불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 후보 측이다. 새누리당은 11월 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불교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불교 정책 공약은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문화재 보호 예산 증액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허용 △전통 사찰 규제 완화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민족 전통문화 보전 등 9가지다.

주요 내용들은 전통사찰 정비와 문화재 보존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이는 조계종이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던 요구 정책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위해 새누리당은 각종 정부위원회에 불교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확대하고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처벌을 약속했다.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맞춰 (가칭)차별방지법, 증오범죄처벌법을 신설하고 이주노동자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사찰 전반에 대한 정비 대책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으며, 사찰 중점 규제 법령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朴 조계종 정책안 대폭 수용
文 사찰통한 일자리 창출
"알맹이가 없다" 비판도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를,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농지법 제6조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감면도 약속했다.

공약 설명에 앞서 주호영 새누리당 불교특위원장은 "불교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와 주요 종단들의 정책안들을 받아들였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 큰 기조를 중심으로 정책 공약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증오범죄법 제정 등)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전담 부서 신설 등) **△문화재 보호 예산 증액**(문화재보호기금 5000억 조성)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및 농지 취득 허용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민족 전통문화 보전**(용주사 인근 효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불교 교류협력 사업 시행(설악산, 금강산과 전통사찰 유네스코 복합 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전통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의 보존 · 관리 종합 정책 수립 △사찰을 중심으로 자비실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살리기**(사찰 신재생 에너지 도입 시범사업 지원 등) **△종교의 자율성 보장 및 다종교 · 다문화 사회의 정착 △전통사찰의 공공성 보장**

문재인 후보 측의 불교 공약은 불교계의 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후보 측이 제시한 불교 정책은 총 5개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불교 교류협력 사업 시행 △전통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의 보존 · 관리 종합 정책 수립 △사찰을 중심으로 자비실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살리기 △종교의 자율성 보장 및 다종교 · 다문화 사회의 정착 △전통사찰의 공공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하는 통합전담기구 신설을 비롯해 다종교 다문화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제정, 전통사찰 농지 취득 허용, 보전부담금 감면, 조계사 인근 전통문화관광지구 지정, 10.27법난 특별법 개정 등은 새누리당과 비슷한 공약들이다.

하지만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형 도농공동체 설립, 사찰과 사하촌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민주통합당만의 새로운 정책 제안이다.

설악산, 금강산, 비무장지대와 전통사찰을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고 불교 전적, 금석문 등 불교 기록유산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남북한 불교문화재 전수조사를 통한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또한 동아시아 불교 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불교평화위원회' 구성과 정전 60주년을 맞아 영산재, 팔관회 등 전통불교의례로 구성된 위령제를 봉행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장운 민주통합당 불교특위 상임부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종교정책은 단순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지역의 자연 생태 보전과 복지 ·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하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불교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요 후보의 불교 정책 공약에 불교계 인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불교계의 요구 사항을 달래기 위한 '선심 공약'이라는 것이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대표 법응 스님은 "불교 유 · 무형 문화유산은 국책사업과 개발로 인해 훼손당하며, 고립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근원적인 불교 및 역사문화유적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부재하다. 결과적으로 양당 공약은 지엽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상임대표(서강대 교수)는 "사실 공직자 종교편향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종교편향은 90%이상이 학교에서 벌어진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면서도 "'증오범죄법' 제정과 사찰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은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칼럼 31면

918호 INDEX

종합 2·3

인터뷰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조계종 쇄신위 직선제 좌담회

시방세계 5
아름다운동행 후원의 밤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17
각현 스님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75mm →

↑ 75mm ↓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원)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용주사 동종

임 윤 식

바람이 분다 푹푹 곰삭은 바람이다
비천하는 여인의 푸른 옷자락 끝으로
굴곡의 언덕 넘어
긴 세월 견뎌 온 중생의 아름이 펄럭인다

제 속의 울음을 모두 쏟아내고 이제는 침묵하는 그녀
먼먼 마음 끝에 닿았다가 돌아와
내 발끝까지 파고드는 그 간절한 울림
어느 심연에서 끊어오르는 염원인가

아! 깊이를 알 수 없어라
가늠할 수 없는 하늘의 뜻
오래된 역사의 한가운데 회오리가 알고
잔잔한 호수에 잔물결이 퍼져간다

동종 천년의 세월 곁에 서성이던 녹슨 낙엽들
수줍게 가을 속으로 몸을 숨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임윤식 시인은… 충남 부여 출생. 2005년 〈시와 창작〉으로 등단.

"멸빈은 사형,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야"

인터뷰- 조계종 제8대 원로의장 밀운 스님

"부족한 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절 인연이 돼 원로의장이 됐습니다. 원로의장은 원로회의법에 따라 원로 스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인수인계를 잘 받아 원로회의를 여법하게 운영할 뿐입니다."

조계종 제8대 원로의장에서 선출된 밀운 스님은 12월 4일 기자들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취임 소감에 대해 "종헌 종법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를 하겠다"고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매우 담담한 답변이다. 12월 11일 임기가 시작되지만 별도의 취임 법회도 없다고 했다. 그냥 '소임을 열심히 보겠다'는 의미다.

멸빈 승려 복권은 시대 과제

하지만 종단 발전을 위한 스님의 의지는 확고했다. 평소 밀운 스님이 추진했던 멸빈 제적승려 사면복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멸빈·제적이 돼야 할 스님들도 더러 있지만 적지 않은 수가 감정적, 정치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많다는 게 밀운 스님의 주장이다.

"조계종은 정화 이후 멸빈·제적 승려가 500명에 이릅니다. 제32대 총무원 집행부 당시 멸빈자 특별법을 만들고 소위까지 구성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제 사면복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종헌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헌 제128조에는 '멸빈자는 사면, 경감또는 복권시킬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데 이를 삭제해달라고 중앙종회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종단 화합을 위해서라도 사면복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쇄신위, 종단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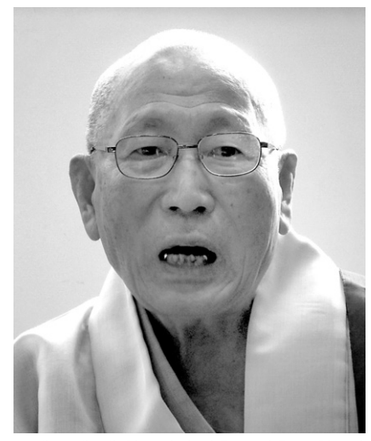
원로회의와 종단 쇄신 불사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밀운 스님은 종단쇄신위원장 소임을 내려놓을 것도 이날 자리에서 처음 밝혔다. 스님은 종단 쇄신 불사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도 함께 피력했다.

"원로의장으로서 쇄신위원장 소임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위 여론이 많더군요. 그래서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인 쇄신위 본회의서 사임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쇄신위에서도 원로의원 스님이 세 분이 있으니 새로운 위원장 선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멸빈·제적자 감정적 처리 많아
종헌 내 단서조항 삭제 필요
총림 체제 전환은 긍정적 평가
쇄신위원장 사임 예정 "아쉬워"
잇단 승풍 실추, 전화위복 계기로

그간 쇄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밀운 스님은 매우 긍적적인 평가를 내렸다. 잇단 승풍 실추 추문을 큰 소동없이 종단 쇄신 불사로 연결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쇄신위원회 설립은 백양사 도박 사태 이후 종단의 어려움을 풀어 나가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면 대형 승려대회가 이뤄지는 등 혼란이 있을 법하지만 종단 쇄신위의 구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청규 제정, 사찰 재정 투명화, 승려 노후 복지, 종단 선거법 제정 등 4가지 주요 사업을 잘 추진하면 분명 종단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제8대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12월 4일 첫 공식 인터뷰를 갖고 불교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소위 종헌 개정안 마무리 단계

원로회의의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원로회의 소위원회가 준비 중인 종헌 개정안에 대해 스님은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으며, 사설 사암 문제에 대해서는 종단에 등록하면 문제 없다고 했다. 승려복지 제도의 증장을 주문하기도 했다.

"원로회의가 종회의 종헌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입니다. 그간 원로회의 소위에서 논의한 사안이 너무 광범위해 종헌 관련 부분만 정리해 총무원과 종회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원로의원 스님들의 사설 사암 문제가 거론됐는데, 사설 사암은 종단에 등록만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원로 스님들이 절 한칸이라도 없으면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종단 승려복지제도가 발전해 스님들이 마지막까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총무원 호법부가 일부 원로의원 스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미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 조사하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원로의원이나 대종사 법계 품수를 위해서는 몇 번에 걸쳐 이중 삼중으로 철저히 심사합니다. 이렇게 검증 절차를 거친 스님들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애초에 총무원에서 행정을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임명 전 더욱 철저히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총림은 '多多益善'

밀운 스님은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가장 큰 어른이기도 하다. 최근 교구본사별로 불고 있는 총림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스님의 의견을 물었다. 스님은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총림 제도는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방장 스님과 임회의 뜻과 논의를 가지고 사찰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합니다. 가장 불교적인 방법입니다. 방장 스님이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총림이 이뤄지면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문중이 화합되고 선거제도의 폐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총림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25개 교구본사가 모두 총림이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최근 불교계에 불고 있는 '정치 바람'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스님은 "정치는 정치인이 할 일이고, 스님은 수행만 잘하면 된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인터뷰 내내 스님의 대답은 항상 간단명료하고 거스름이 없었다. 어려운 법보다는 불교와 종단, 사람에 대한 정(情)이 넘쳤다. 격외없는 스님이 이끄는 원로회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해 본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대제 국가 행사로 봉행돼야"

불교사회硏, '서산대제 문헌적 근거' 주제 공청회

지난 4월 문헌고증을 통해 복원된 대흥사 서산대제가 국가 제향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흥사 서산대제의 의례형식과 문헌적 근거'를 주제로 호국불교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서산대제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선 서산 휴정 스님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선조 때 시작돼 정조 당시 해남 대흥사에 표충사와 묘향산 보현사에 수충사를 세워 국가제향으로 매년 봄·가을 봉행됐다"며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흥사 서산대사 추모제를 비롯해 표충사 사명대사 추모제, 갑사 영규대사 추모제 모두 사찰이나 지방행사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서산, 사명, 처영 등 의승들의 추모대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역사적 의미와 공로가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결코 종교적인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종단에 대해서도 "의승군을 의병의 범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활동으로 볼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구국제민의 공심으로 역사 현실에 참여한 스님들의 숭고한 뜻을 선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불교사회연구소는 12월 6일 서산대제 의례형식의 근거를 알아보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불교의례 교수 선발

2013학년도부터 승가대학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필수교과목으로 '불교상용의례'를 지정한 것과 관련,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지도교수를 뽑는다.

조계종 교육원은 각 승가대학 운영위원장과 학장 추천을 받아 승가대학이 소재한 사찰에서 상주하는 노전 스님이나 의식을 담당 스님, 승가대 인근에 주석하는 스님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직접 염불교육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을 선별해 지도교수로 위촉할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사미 교육기관은 중덕 이상의 법계를 수지한 비구 스님과 사미니 교육기관은 정덕 이상의 법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이다. 교역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김주일 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원로의장 보 운 평 원
원로위원 월 현 법 산
원로위원 정 인 월 산
원로위원 정 광 송 담
원로위원 법 등 월 각
원로위원 수 덕 동 곡
원로위원 정 허 법 운

종회의장 진 경

총무원장 법 정
행정원장 도 경
호법원장 법 륜
초심원장 무 진
교육원장 청 담
문화원장 진 송
포교원장 동 화

총무부장 법 성
재무부장 성 덕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사업부장 청 명

비 구 니 원 장 법 화
비구니부원장 현 운

법 규 위 원 장 설 산
인권환경위원장 혜 득

경북동부 종무원장 해 산
경북서부 종무원장 혜 관
경북북부 종무원장 성 덕
경북중앙 종무원장 혜 득
대구동부 종무원장 법 성
대구서부 종무원장 진 송
경기도 종무원장 자 운
충청도 종무원장 계 현
울 산 종 무 원 장 현 운

중 앙 신 도 회 장 조태흠
중앙신도회사업부장 청 명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종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1리 1095 동명사 (총무원) 전화(팩스겸용) 054) 974-2605 / 핸드폰 011-544-2605

“총무원장 선거, 평등한 직선제가 해답”

12월 3일 조계종 쇄신위 직선제 개선 위한 좌담회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12월 3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직선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은 12월 3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현행 선거제인 간선제 대신 직선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했다.

이날 전국선원수좌회 강설 스님은 제한적 직선제와 전면적 직선제 두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직선제로의 개정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제한적 직선제는 승납 10년 이상인 중덕과 정덕 법계로 규정하는 것으로 선거권자는 비구 4,217명, 비구니 4,338명 총 8,609명이다. 전면적 직선제는 견덕, 계덕 이상으로 선거권을 두는 것으로 선거권자 수는 13,116명(비구: 6,458명, 비구니:6,658명)이다.

강설 스님은 “직선제로 개정되면 선거인단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며 “현행 비구 중심의 선거인단에서 탈피될 수 있으며, 폭 넓은 공의의 반영도 가능하다”고 직선제의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해당 후보자의 친소관계, 계파정치 극복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 △교계 미디어를 통한 공약 검증 가능 등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평등하고 전면적인 직선세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직선제 반대 의견들이 기우(奇遇)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선거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18대 대선에서 투개표에 들어가는 1인당 비용은 5,830원이이다. 종단 선거도 1인당 5,000원 수준으로 계산하면 10,000명에 5,000만원 수준으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대중참여가 흑색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으며, “종무원 줄서기와 종단 행정 위축에 대한 우려 역시 소수 권력 독점이 심할 때 더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픈된 선거에서는 심화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전면 · 제한적 직선제 2안 제시

인원 늘어 금권 · 흑색 선거 차단

“통합 선거법으로 갈등 해소

제대로 된 선거인단 구성 급선무”

비구니 선거인단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비구 스님과 동등하게 선거인단 구성되면 문제될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재가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재가자의 종단 참여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짚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며 “현재 수준에서는 전체 선거인단의 20% 내외를 재가에게 배려하는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참여를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한 패널들 중 일부 스님들은 종단 현실에 직선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현행 간선제를 유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행 간선제가 교단에 가장 합당한 선거 운영 방안’이라고 결론을 냈다”며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비구니 스님의 수가 비구 스님보다 많다. 재가자 참여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개방했을 경우에 빚어질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의원 일관 스님도 “최근에 개정된 통합선거법 안에서 지금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가자의 선거 참여는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성과쇄신 결사추빈본부 사무처장 원명 스님은 “사람이 많이 진다고 금권 흑색선거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선거인단을 어떻게 잘 뽑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선제 주장 패널들의 의견들도 거셌다. 특히 수 차례 종단 선거법 관련 토론자로 나섰던 김형남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질곡에 빠진 제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라며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간선제에 대해서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종단 현행 선거제도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간선제도 잘못 운영되고 있다. 지금 제도는 부정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비구니 대표로 참가한 지성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원로 스님들이 끼치는 영향은 크다”며 “원로 스님들도 비구와 비구니 양축이 함께 가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나서서 원로 스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단쇄신위원회의 ‘총무원장 선거법 개선을 위한 좌담회’는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눠 진행되며, 간선제 관련 좌담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수행·화합으로 종단 발전”

인터뷰– 제16대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총무원장은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창종주인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을 발전시키고 사부대중들이 편안히 수행정진에만 임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애국 · 생활 ·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수행과 화합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6대 천태종 총무원장으로 임명된 도정 스님은 12월 6일 서울 관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도정 스님은 “천태종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사찰에서 ‘백만독 관음정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1백일간 하루 6시간 정도 법당에 모여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수행인데, 전국 92개 사찰서 1만7천여명이 동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풍토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종단의 안정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수행 풍토 조성을 피력했다.

백만독 관음정진 등

전 종도 수행풍토 조성

청렴이 대통령 제1덕목

올 8월에 〈마음수행〉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던 도정 스님은 특히 “불자들의 마음이 둘, 셋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몸은 시간에 따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참선하는 ‘한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태종 스님들이 유난히 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불교는 산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정 스님은 또한 “조사 스님의 법문에 감화돼 출가했는데 은사 스님은 하루종일 고된 울력만 시켰지요. 이어 밤에는 잠도 안 재우고 철야정진을 시켰고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조사 스님이 저를 불러서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테니 참고 견디라’고 다독이셨죠. 나중에 보니 그게 조사 스님의 수행 방편이란걸 깨달았습니다. 수행 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혹독했던 경험이 평생을 사는 힘이 됐습니다.”라고 회고했다.

도정 스님은 출가자의 정치 ·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스님은 “정치 · 노동 문제 등에 출가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 다문화 등에서도 종교는 얼마든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 스님은 “취임 1년차인 내년에는 포교당 개설, 사찰부지 매입, 구인사 박물관 운영관리 등을 통해 내실다지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도정 스님은 의견을 내비쳤다. 스님은 “누가 되든 약속했던 공약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덕목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청렴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빈말을 남발해서 말빚을 지는 사람이 어떻게 청렴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청렴을 국가지도자의 제1 덕목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도정 스님은 “천태종은 강한 결속력만큼은 어느 종단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종단 운영은 총무원장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표방하는 것이 ‘수행과 화합’인 만큼 12월중으로 이에 걸맞는 인사로 신임 집행부를 꾸려서 종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16대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의 취임법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연말연시 사찰에서 따뜻하게 보내요

문화사업단, 연말 맞이 템플스테이 진행

자칫 헤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사찰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연말을 맞아 추억, 나눔, 위로, 만남의 테마를 가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냈을 2030 청춘을 위해서는 ‘위로’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대구 동구 파계사는 위로와 힐링을 담은 ‘청춘(青春) 템플스테이’를 12월 22-23일, 1월 12-13일 두 번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힐링 감성시간, 힐링자자(自恣), ‘새벽의 별’ 명상과 참선 등 고된 시간을 보낸 청춘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있다.

템플스테이 200회를 맞는 서울 종로구 금선사는 200회 동안의 참가자 3천여 명과의 ‘만남’을 기념하며 ‘200회 특별 템플스테이’를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진행한다. 마음나누기, 법문 듣기, 다도 강습, 타종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금선사 템플스테이를 참가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1만 원의 참가비로 함께 할 수 있는 특전도 있다.

추운 연말,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나눔’ 템플스테이도 준비돼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는 ‘행복 나눔 템플스테이’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차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찰예절, 다담 프로그램과 건강한 사찰음식 시식도 준비했다.

충남 서산 서광사는 11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10 · 27법난 지역순회법회 실시

12월 14일 대구서 첫 행사 가져

조계종이 10 · 27법난 32주년 기념행사로 지역순회법회를 실시한다. 이번 법회는 10 · 27법난의 조속한 진실규명 및 피해보상 그리고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조계종은 “10 · 27법난은 최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명예회복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10 · 27법난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회는 △대구법회 12월 14일 오후 5시 호텔인터불고 대구 컨벤션 홀 △부산법회 12월 16일 오후 5시 코모도 호텔 대연회장 그랜드볼룸 △12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은해사 주지선거 임명 효력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51민사부는 10월 30일 법일스님이 제기한 ‘주지후보자선출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제10교구 산중총회가 10월 25일 돈관스님에 대하여 한 은해사 주지후보자 선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1월 30일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조계종 총무원이 10월 31일 돈관스님을 은해사 주지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돈관스님은 본안 확정까지 법적으로 주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신중일 기자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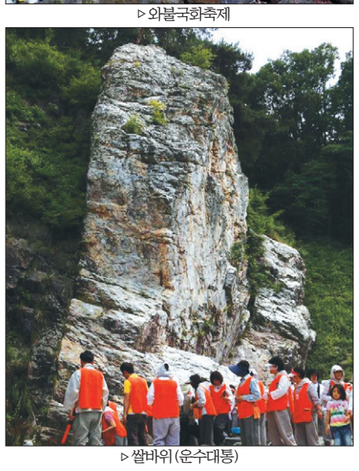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 와불국화축제


▷ 진신사리 증과


▷ 만사형통 문수동자


▷ 쌀바위(운수대통)


▷ 장엄노천불 공원


▷ 10년만의 자손득남


▷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 효험 산신불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일 주 문



선가귀감 강연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2013년 1월 10일부터 조계사 안심당에서 매주 목요일 총 10강에 걸쳐 선가귀감을 강연한다.



소통명상캠프 개최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2013년 1월 10~11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중고생을 위한 소통명상캠프를 개최한다. (031)239-9391



숭산 스님 추모비 제막식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12월 1일 숭산 스님 8주기 다례제 및 숭산 스님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夢 페스티발' 진행

역삼청소년수련관장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은 12월 1일 관내에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夢 페스티발'을 진행했다. (02)550-3625



불교아카데미 입문반 모집

정각원 교법사 제정 스님은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입문반 제8기를 모집한다. (02)2260-3018



환경열린아카데미 특강

지율 스님은 12월 13일 평화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리는 에코붓다 환경열린아카데미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제13회 김흥국장학금 전달

김흥국 김흥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2월 1일 서울 화계초등학교에서 이하영 어린이 외 9명과 원로가수 한명숙씨에게 제13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에 공영대 박사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2012년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에 동국대 연구진흥본부장 공영대 박사를 선정, 12일 오후 6시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동국인의 밤'에서 시상한다.

공 박사는 SCI급 논문 100여편, 연구비 수주 130억원,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60건, 미국 렉산제약과 항암제 선도물질 110만불 라이센싱 등 국내외 연구활동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웠다. 이번 대상은 대부분 기업이나 공직자 등을 시상하는 틀을 깨고 학문과 연구 진흥에 정진하는 학자를 선정한 점이 색다르다.

동국인의 밤에서는 또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 형종호 삼공기어공업 회장, 최진식 (주)심팩 회장을, '동국을 빛낸 연예인상'에 개그맨 이경규 동문을 각각 시상한다.

노덕현 기자

환경문제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불교생명윤리협회 주최…서울시교육감 후보 초청 좌담회

12월 19일은 서울시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에 불교생명윤리협회가 12월 6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초청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수호 진보단일 후보, 남승희 무소속 후보가 참석했으며 문용린 보수 단일 후보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이수호 후보는 탈핵교육과 초록교육을 통해 에너지 교육을 강화하고 종교 교육에 있어서는 특정 종교가 강조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에 찬성한다는 이 후보는 "서울시에서는 만여 개 건물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 다중이용시설 실내조명 LED조명 교체, 현란한 옥외조명 에너지절약 의무화 대상 포함 등의 세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교육 강화, 초록생태학교 지정, 1학교 1태양광 발전소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이 후보는 스웨덴의 예를 들며 특정 종교 교육은 금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스웨덴에서는 특정 종교를 강요했던 학교가 폐교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봤다. 학교가 신앙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 통합에 위배 되는 특정 종교 교육은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남승희 후보는 생태환경 교육은 범정부적인 시스템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 후보는 "생태는 인류의 문제다. 현 사회에서 경제 환경 생태는 따로 얘기할 수 없다. 현재 환경 문제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와있다. 범정부적으로 모든 시스템 변화를 통해 교육정책도 함께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남 후보는 학교의 특정 종교 강요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의 종교 가치를 구현하고자 세워진 학교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학생들이 강제 배정된다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존상호 존중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소수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폐기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면을 통해 답변을 보내온 문용린 후보는 'Grade mission' 프로그램을 접목해 친환경 생태 교육을 이뤄 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후보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은 폐건전지를 모으는 학년'이라는 사회적 임무를 주고 스스로 폐건전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범사회적 캠페인을 펼쳐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 편향 교육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문용린 후보



이수호 후보



남승희 후보

문 "교육 통해 환경 캠페인 펼칠 것"

이 "에너지 절약 정책 교육 중요"

남 "생태문제 범정부적 해결 필요"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위덕대 난관 소통으로 해결할 터"

회당학원 이사장에 혜명 정사 선출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23대 이사장에 혜명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11월 20일 진각문화전승관 4층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3대 이사장으로 혜명 정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혜명 정사는 12월 1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효운 이사장 후임으로 2013년 8월 23일까지 회당학원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혜명 정사는 "대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이지만 법인과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회당학원은 진각종단에서 설립한 학원인 만큼 종립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올해 위덕대가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어 혜명 정사의 이사장 취임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무겁다.

이에 대해 혜명 정사는 "진각종 신교도의 원력과 지원으로 설립된 위덕대가 이런 결과를 낳아 너무 안타깝다. 이제 대학도 대학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고통분담과 함께 구성원간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책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한갑진 회장, 한국영화 귀중자료 기증

'팔만대장경' 등 영화 및 다큐 127편 동국대에



"오늘 기증한 영화관련 자료들이 후학들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1970년대 한국 영화계를 이끌었던 원로 영화인이자 불자 영화인인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88 · 사진)이 동국대에 자신이 소장한 영화관련 자료를 모두 기증했다.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은 이날 한국영화 필름 127편을 비롯해 대본, 포스터, 스틸사진, 영화 기자재, 비디오테이프 등을 동국대에 기증했다.

한 회장은 영화계에 몸담은 동안 한국영화제작사협회 회장, 세계영화제작연맹 이사 등을 역임한 한국영화계 1세대로 한국영화사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영화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1992년 다큐 '스리랑카', 1993년 다큐 '부처님의 생애', '미지의나라(미얀마)' 등을 제작하는 등 미디어포교에도 앞장섰다.

이번에 기증한 127편 영화에는 '호국 팔만대장경' 등 불교관련 영화와 함께 故이만희 감독이 1967년 제작한 '얼룩무늬의 사나이'와 1981년 조세희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포함됐다.

한갑진 회장은 "종립학교이자 영화예술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동국대가 적임지로 생각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덕산 원로원장 영결식



천태종 덕산 원로원장의 영결식이 12월 4일 구인사 동문당 앞 광장에서 1천여 사부대중의 애도 속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서 장의위원장 도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추도사에서 "대종사께서 보여주신 모든 덕화를 거울삼아 천태세상의 밝은 광명이 우주법계를 드리우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가행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용호사, 법사사회교육원 출범



세계불교홍법을 위해 법사 및 인재를 양성하는 불교법사사회교육원이 출범했다.

교단용화불교 청주 용호사(주지 천강)는 11월 23일 청주 리호호텔에서 불교법사사회교육원 출범식 및 최고법계고시위원 추대식을 봉행했다.

불교법사사회교육원장을 맡게 된 천강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육이수자들에게 불교의 근본이념과 교육원의 목표를 바탕으로 포교인의 봉사자세를 확립시켜 포교능력을 함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선농회 전북지부 창립식



(사)한국불교선농회 전북지역본부(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창립식이 12월 1일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김제 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사)한국불교 전북지역 선농회를 창립식에서 전북지역 본부회장 현불 스님은 "선농은 땅을 살려 거기에서 자란 농산물로 국민건강을 펼치자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진 김제에서 선농운동이 일어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 서 교 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이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비나눔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했다. 사진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공연 장면



동행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장윤정 씨와 윙크가 자승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무주상 나눔 생활화하면 더 행복해져요"

동행 제1회 '자비나눔 후원의 밤'… BBS 12시간 생방송

#덕신 씨의 고통은 이중으로 왔다. 작년 7월, 아내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사업을 돌보지 못했고, 운영하던 생수 유통대리점은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적자가 이어졌고 결국 빚을 안게 됐다. 트럭을 팔고 사업을 정리해도 3000만 원 가량의 빚이 남아있는 덕신 씨에게 명도소송장이 날아왔다. 1년째 관리비가 밀린 그는 이제 이사를 해야 한다. 한편 현재 아내 정인 씨는 속발성 파킨슨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상태다. 덕신 씨는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거동을 못하는 아내를 보살펴 왔다. 그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한다.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고.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재식 씨(45)는 필리핀에서 온 아내 유리 씨와 사랑스러운 자녀 4남매와 함께 1년에 50만원 하는 낡은 시골집에 살고 있다.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는 재식 씨는 5년 전 농사가 부도난 후, 개인 회생을 위한 면책금을 부담하고 있다. 월 7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생활비와 집세, 면책금을 감당하기 힘든 재식 씨. 더구나 낡은 집은 태풍에 약해 창들마다 비가 새고, 비닐이 뜯겨져 나간다. 막내 유진이를 낳고 일을 하지 못하던 유리 씨가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보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그들의 형편을 봐주었던 집주인은 집세를 두 배로 올려 달라고 한다. 이 고비를 넘기면 이제 잘 살 수 있을 듯한데 그들의 겨울은 막막하기만 하다.

추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는 날이었다. 함박눈이 세상을 뒤덮어 온통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겨울이 낭만적일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추위가 매섭게 몰아닥칠수록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것이다.

동행 자비나눔후원의 밤 영상에서 만난 덕신 씨와 재식 씨의 사연은 가슴 한 구석을 뭉클하게 했다. 세상의 자비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의 눈이 그들에게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이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비나눔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불자 지도자 네트워크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 주최, BBS불교방송과 동행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는 2008년 아름다운동행 창립 이후 최초로 열린 후원의 밤 행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다.

자비나눔 후원의 밤은 성전 스님과 BBS불교방송 최은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 정각회장 정갑윤 국회의원을 비롯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아름다운동행 후원자 200여명의 참석했다. 또한, 이 행사는 BBS를 통해 1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은 "경제 불황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다. 불자들이 먼저 나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불연이 전해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최된 행사"라며 "이제 출범 4년째를 맞는 아름다운 동행은 무주상의 나눔을 생활화하며 십시일반 나누는 공동체를 실현해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불교포럼의 김동건 대표는 "불교포럼이 출범한 이후 수행과 나눔의 불교정신을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후원의 밤을 통해 불교와 사회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소감을전했다.

사부대중 200여 명 참석
소외 이웃 영상 상영 '뭉클'
장윤정 윙크 재능 기부 공연
후원자들 새로운 다짐 전해

후원의 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아름다운동행의 저소득가정 지원, NGO 단체 지원, 긴급구호 및 국제개발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외 이웃들의 영상을 통해 나눔의 필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신나는 공연도 마련됐다. '나눔&동행 콘서트'는 동행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장윤정과 쌍둥이 불자 가수 윙크가 출연해 신나는 무대를 펼쳤다. 이들 공연은 재능나눔으로 이루어져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

하얀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출연한 장윤정 씨는 어부바로 첫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스님들 앞이라 특별히 의상에 신경을 썼다는 장 씨는 "이렇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나눔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신나는 무대로 대중을 압도한 윙크의 무대도 인상적이었다. 윙크는 "불자가수로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예전에는 나누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나누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을 전했다. 행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의 공연으로 끝을 맺었다. 출연진 각자 자신의 어머니 나라 옷을 입고 공연을 펼친 레인보우합창단은 '아름다운 세상' 등을 부르며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노래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태희 씨(59)는 3년째 동행에 후원을 하고 있는 천안 보명사 신도다. "이웃 종교 단체 기부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불교계에도 이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동행을 만나게 돼 너무 기쁘다"라고 전했다.

2년째 동행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정향 씨(53)는 "수혜자들의 영상을 보며 가슴이 많이 아팠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내 직업이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이런 나눔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후원 ARS 060-700-0011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동행 후원자들 명단이 공연장 앞에 게재됐다.



가수 장윤정 씨의 재능기부 공연 장면



후원자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마음을 다졌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변화의 중심' 전등사를 주목하라 – ④수도권 서남지역 책임지는 포교도량

쑥, 삼랑성… 전등사만의 힐링 콘텐츠 개발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는 인천과 수도권 서남권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수려한 연간 자연환경과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만나기 위해 연간 4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등사를 찾는다. 이들은 불교 안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를 만난다.

이미 전등사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이주민 축제 등을 매년 개최하며 지역 포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 인천 · 강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증진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도 2006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성황리에 개





강화 전등사 게이트볼 대회〈사진 왼쪽〉와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모습〈사진 오른쪽〉. 전등사는 강화 지역 특성을 활용한 힐링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쑥과 숲, 명상 조합한
'삼랑성 힐링벨트' 조성
동문 밖 한옥촌 건립 중
비불자 접근 유도 계획

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역대 최다 팀인 118개 팀이 출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등사는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포교 프로그램을 새롭게 계획 중이다. 강화의 특산품인 쑥과 삼랑성 산길, 불교의 참선을 한 데 엮어내는 '삼랑성 힐링벨트' 조성은 이러한 방안 중 하나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전등사 경내에는 왕실에 진상하는 약초를 보관하기 위한 '진상약애고 (進上藥艾庫)' 라는 약재 창고가 있었다"며 "쑥을 이용한 사찰음식과 삼랑성 숲 속에서의 명상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지친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랑성의 중심에 있는 전등사의 특성을 살리는 도량 정비도 계획 중이다. 경내는 철저히 불교적 신행으로 채우고 성 외곽에는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찾을 수 잇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등사는 동문 밖에 한옥촌을 조성 중이다. 올해 3채가 완성이 됐으며 내년까지 2채를 더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서 불교가 낯선 일반인과 외국인들이 머물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를 알아가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게 전등사의 복안이다.

범우 스님은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때로는 불교를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동문 밖 한옥이 완성되면 비불자들과 외국인들이 머물며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프로그램 안에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등사는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1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세대별 템플스테이 '어깨동무' 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세대별로 진행하는 '어깨동무' 는 기존 1박 2일의 짧은 일정의 템플스테이에 아쉬움을 느낀 참가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불교 체험이외에도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협동 공양과 대화 마당 등 서로 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범우 스님은 "전등사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전등사는 삼랑성 안팎의 공간이 다르다. 올해는 성안 정비를 하며 신행도량으로의 면모을 다졌다면, 내년부터는 성 밖 정비를 통해 전등사가 문화, 포교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역 특성 상 전등사는 불교만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신행과 포교를 이끌어야 한다"며 "기존 단발성 행사들도 하나로 꿰어내 사람이 남는 행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관광사찰에서 경기 서남권 신행도량이자 세계 속의 문화 도량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전등사. 전등사가 보여주는 변화가 한국불교 미래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경독송회, 좋은벗들 15년간 후원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대표 김재웅)는 11월 21일 혜화동 법당에서 불교수행단체 정토회 소속 (사)좋은벗들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설립된 수행단체로 현재 국내외에 15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금강경독송회의 회원들은 된장, 메주,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등 전통식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옷가게를 운영하여 마련한 수익금을 토대로 현재까지 금강경 50만권을 전국 강원 및 사찰 등에 무료 배부하고, 한국의 위인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자를 영어, 불어, 독어 등 다국어로 제작하여 70만 권을 인쇄해서 보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교계 단체를 통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천만 원 이상씩 16년째 기탁하고 있으며 지난 1997년부터 좋은벗들에 해마다 500만원씩의 후원금을 보시해오고 있다.

좋은벗들은 국제평화, 인권, 북한난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한 NGO(비정부기구) 단체로 자체 발굴한 북한소식을 알리는 '오늘의 북한소식' 소식지를 매주 발행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 개선과 국내에 들어온 새터민 정착지원 활동 등 다양한 통일관련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이나은 기자



김재웅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대표가 좋은벗들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진치료강사 과정 모집

강사 김준형 예술치료전문가, 12월 22일부터 진행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 심리를 치료하는 전문강사과정이 마련됐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은 '제8기 사진예술치료 전문강사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예술치료란 사진의 이미지를 미술 · 놀이 등 창작과정에 조직적으로 응용해 심리적인 장애를 경감시키는 치료기법이다. 상담자는 사진이미지를 이용해 피상담자가 생각과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및 무의식 세계의 갈등과 좌절의 표출을 경험하게 돕게 된다.

이번 과정은 사진을 활용한 상담과 심리치료 및 예술매체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진예술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기법들을 배울 수 있다.

수업은 서울사진치료연구소에서 5단계로 진행되며 일정은 1단계 12월 22 · 23일, 2단계 2013년 1월 12 · 13일, 3단계 1월 26 · 27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김준형 상담학박사로 예술치료전문가이자 한북대 영유아보육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junkim119@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567-2750

이나은 기자

"명심보감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학문"

본각선교원, 신년부터 유불선통합 강의 개설

본각선교원(원장 고준환)은 2013년 1월 2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불교강좌와 시각(始覺)법회를 개최한다. 경전위주의 기초교리와 함께 유불선 통합 강의가 매일 진행된다.

시각법회는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열린다. 고준환 교수(경기대 종신명예), 박준수 변호사가 1시간씩 번갈아가며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묘법연화경〉, 묵조선 비판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유불선 통합강의는 △부처님 명심보감(강사 고준환 · 최동락 법사, 화요일 오후 5시) △천문 풍수지리(김문웅 한국자연지리학회장, 수요일 오후 2시) △생활속의 금강경(김원수 홍익대 명예교수, 목요일 오후 5시) △서산대사 삼가귀감강의(고준환 · 최동락 법사, 금요일 오후 4시) 등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심보감(明心寶鑑)이 유교 교양서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보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유불선 통합의 교양서다. 이번에 신설된 '부처님 명심보감' 은 명심보감에 빠진 불교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게 했다.

고준환 원장은 "처음에 명심보감을 중국 명나라때 범립본이 지을때는 석가 · 마조 · 공자 · 맹자 · 노자 · 장자 등의 말씀을 통합하고 불교의 명심견성(明心見性)을 고려해 명심보감이라 한 것"이라며 "그런데 조선왕조 초기에 유입될 때, 억불숭유정책으로 불교내용은 통째로 빼고, 유교 교양서로 조작 · 왜곡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산대사 삼가귀감' 강의는 조선 중기의 선승이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서산대사가 유가귀감, 도가교감, 선가귀감 등을 써 유불선 통합으로 삼가귀감을 펴낸 〈삼가귀감〉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본각선교원은 수강생들의 견성성불을 위한 상담실도 운영한다. 또한 주말단기출가로 '깨달음 징검다리' 과정을 신설해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9시까지 불교입문과 걷기명상, 위빠사나선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아바타코스도 신설했다. 불교 전통 수행법인 '위빠사나의 현대적 응용프로그램' 으로 평가되는 아바타코스는 수련자의 의식수준에 맞는 자발적인 의식개발을 위한 것이다.

고준환 원장은 "본각선교원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불교강의와 법회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며 "불교를 접목한 다양한 강의들을 유기적으로 학습해 깨달음의 바다에 이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62-4848 (cafe. daum.net/BonGag Academy)

이나은 기자

중앙신도회, 임원연수 개최

15~16일 낙산사 일대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2월 15~16일 속초 국민은행연수원 및 양양 낙산사 일대에서 '2012 중앙신도회 임원연수' 를 개최한다.

첫째 날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 설동근 동명대 총장 등의 리더십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집행부와 교구신도회, 신도단체장간의 상견례 시간을 비롯해 제25대 중앙신도회 전체 임원의 교류 및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2012년 중앙위원회를 개최, 2012년 사업 · 결산보고와 2013년 사업 · 예산보고 및 향후 중신회 4개년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 (02)733-7277

이나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피해 아동들의 안식처 '문수의 집'

아동학대 5년새 46%급증, 발견시 즉시 신고해야

'주남저수지 아동 유기 사건' 처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만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대상 학대는 2008년 754건에서 2012년 10월 현재 1104건으로 5년간 350건, 약 46%가 늘었다.

영·유아 학대가 늘어나는 데는 이혼 등의 가정 해체, 한 부모, 미혼 가정 등 새로운 가정 형태의 증가, 사회적·경제적 고립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양육 지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공곡) 정희열 문수의 집 상담사는 "아동들의 학대피해사례는 다양하지만 보통은 방임으로 인해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서 또래에 비해 언어성 및 사회성 발달이 더디어지고 가스요금도 미납돼 냉방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고립이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불교계 운영시설 가운데 학대 피해아동을 입소 보호하는 대표적 시설은 구미학대아동그룹홈 문수의 집(시설장 공곡)이다.



문수의 집 종사자들은 아동별로 개별 심리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놀이를 통한 심리치료 및 언어치료를 제공한다.

공동생활가정에서 편안히 생활

1577-1391로 신고해야

문수의 집은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0년에 개소해 2003년 3월 구미시의 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91을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이웃이나 혹은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아동가정에서 학대피해아동들의 구체적인 학대정황을 파악한 내용을 신고받으면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원가정보호 조치를 할지 아니면 격리보호를 통해 아동을 학대행위자와 분리시킬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학대피해아동의 학대사실이 심각하고 원가정 보호를 통해서는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지자체인 구미시를 통해 입소의뢰를 하고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버림받거나 정신·신체적 학대를 받은 수많은 아이들이 문수의 집을 거쳐 갔다. 현재 입소정원은 4명으로 이들은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돼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되고 있다.

문수의 집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한다. 일반적 아동시설은 규모도 크고 간판이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곳이어서 아동들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공곡 스님은 "문수의 집은 공동생활가정이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문수의 집 아동들은 방과 후에 보습학원, 태권도학원, 개인과외 등을 하며 일반 아동들처럼 지내고 있다. 하지만 학대로 인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수의 집 종사자들은 아동별로 개별 심리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놀이를 통한 심리치료 및 언어치료를 제공한다.

정희열 상담사는 "상처받고 학대받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안정"이라며 "일반인 모두가 아동학대신고상담전화인 1577-1391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 이 공통번호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적극적 신고를 해야 작은 관심이 학대로부터 힘없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054)455-13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찰-복지기관 잇는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조기룡 교수, 불교사회복지포럼서 발표…라오스 종교인사 방한, 국내복지현황 살펴

양극화의 위기 속에 사회통합과 중생구제의 기대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12월 6일 A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년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를 개최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조기룡 조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발표했다.

조기룡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불교적 사상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 방안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 했다. 바로 중도와 평등사상이다. 조 교수는 "원효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통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불교를 통합해 통불교를 제창 했듯이 우리사회의 대립적 견해와 입장을 수용·통합해 중도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 분배가 정의롭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함경〉에 나타난 평등사상을 통해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조 교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가 불교NGO 활동이다. 조 교수는 "불교NGO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의 부(富)가 부당하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배정의운동을 실천해야 한다"며 "분배정의운동은 정신적 베풂에 기반을 두고 물질적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12월 6일 AW 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조 교수는 두 번째 방안으로 "경제적 이유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일은 정부에서 구축한 사회안전망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 방지를 위해 총무원-교구 본사-말사의 사회복지시설간 연계를 강화해 불교민간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조기룡 교수는 사찰 신도 연결망을 통한 취업연계망을 강화하고 의식적 양극화의 상(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 연결망을 통한 구직방법은 구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며 "공식적인 구직경로보다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해주고 구직자의 인간적 신뢰를 담보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 제반문제를 사회가 양극화됐다고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고 해결도 어렵게 한다"며 "불교적 시각으로 선입견과 고정 관념 및 상(相)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조 교수를 비롯해 최경구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가 '사회적 양극화 실태: 주요 3가지 현황을 중심으로'를, 이성기 교수(인제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한국-라오스 불교문화 복지교류를 위해 12월 8~12일 라오스 중앙불교협회 스님들과 국가재건위원회 종교국 공무원 등 7명을 초청했다.

라오스 종교계 주요인사들은 동국대와 종단 연수시설인 전통불교문화원을 비롯해 조계사와 마곡사,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탐방했다. 이외에도 서울, 경기, 공주, 경기 울산 지역의 의료, 사회복지시설과 정부단체 및 기업 등을 방문해 국내 복지현황을 파악했다.

복지재단은 "라오스에 교육, 복지, 의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이번 '한국-라오스 불교문화 복지교류' 사업은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을 관람하고 통도사에서 저녁예불, 발우공양 등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등 한국과 라오스의 불교계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국가간 불교네트워크(인드라망)를 강화하는 계기를 형성한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불기협과 홍보 제휴 협약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가 생명나눔운동 홍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과 이강식 회장은 12월 3일 STX 남산타워 만복림에서 불기협 선원빈 기자상 시상식에 이어 진행한 협약식에서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앞으로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환자 치료비 지원·자살예방 사업 등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불교계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함께 하게 된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지금껏 기자 분들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번에 홍보 제휴 협약식 체결을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동했다"며 "앞으로 불교계 장기기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식 한국불교기자협회 회장과 일면 스님이 생명나눔운동 홍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한 제1회 생명나눔상은 현대불교 이나은 기자에게 돌아갔다. 그 동안 지속적인 장기기증 보도로 불교계 생명나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상은 올해 시작해 매년 생명나눔운동 확산에 기여한 기자 중 1명을 선정해 수여한다.

이나은 기자

저소득 아동들에게 책가방 선물하세요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경향신문(대표이사 송영승)과 201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책가방 보내기 '선재의 선물' 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재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은 올해는 조손·한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도서를 선물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후원자들이 12월 31일까지 성금 5만원을 기부하면 어린이 책가방을 구매하고, 아름다운동행측이 학용품과 도서를 더해 2013년 1월 중 해당 가정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02)737-9595 후원: 농협 301-0118-4499-31 예금주)아름다운동행

이나은 기자

이번엔 다문화 모자가정 위해 뛴다

진오 스님, 12월 11일 4대강 자전거길 1천㎞ 달리기

이주노동자를 돕기 위해 108㎞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해 화제를 모았던 이주 노동자 단체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12월 11일 다문화 모자가정을 위한 1천㎞ 달리기에 들어갔다.

진오 스님은 한국에 시집온 이민여성 가운데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2세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달린다.

다문화 모자가족이 쉼터로 활용할 공동주택 마련을 위한 이번 달리기에서 한 계좌에 10만원씩 모두 108계좌를 후원받아 기금을 확보하는 게 스님의 계획이다.

진오 스님은 다문화 어린이집, 다문화 대안학교도 계획중에 있다.

이번 4대강 자전거길 1천㎞를 달리기 위해 스님은 평일에 15㎞씩, 주말에는 4~5시간씩 30㎞ 이상을 달리며 훈련을 해왔다.

진오 스님은 "1천㎞를 달리며 제가 흘리는 땀방울만큼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다문화 모자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신도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 방법. 환자와 가족분이 확인 가능

1. 환자몸에 영가는 있는데 확인해줄수 없는 스님. 법사. 기공사. 치유자
2. 조상령, 객영혼, 애기령, 지박령, 영가확인 천도제
3. 최면이 안되는 환자와의 소통과 교류 (최면과는 차원이 다름)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확인 (질병의 원인파악)
5. 난치병과 불치병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
6. 인체전기장을 통한 사람의 속마음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파악으로 삶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 질병, 심리, 영가확인 몸에 숨은 영가
7. 스님들의 영가장애 천도, 불자분들의 영가장애 확인 천도
8. 파동교감법, 영혼과의 대화법, 자율신경계통제법, 오장육부진동교감법을 통한 난치병과 불치병의 치유
9. 중풍, 치매, 당뇨, 디스크, 심장병, 화병, 빙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이상, 환청, 환시, 무속병, 무속인 대물림의 단절,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
10. 영가의 수준 확인 저급영가-한과집착질병호소=무속신앙 / 중급영가-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도 닦다죽은 영가=다양한 종교, 철학, 신비함 추구 / 고급영가-전생, 깨달음에 대한 갈망 종교를 초월한 영성
11. 죽은 영혼이 거치는 사후세계의 3단계변화의 의식과정 이해
12.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보는 빛의 다양한 차원의 세계
13. 내가 이세상에 온 목적과 이유 영혼의 목적이해=현재의 삶의 고통 속 에서 깨우쳐야 할 부분을 이해함
14. 수행에 진전이 없는분, 깨달음의 지름길을 가고 싶은분, 내안에 길 찾고 싶은 분

◆10회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불자님중에 영가천도와 기도법 잠재능력, 퇴마천도능력전수생모집◆

· 교육은 화.목요일 오후 2시와 주말 토.일 오후 2시에 선택
· 교육과정은 스님의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 사찰 출장지도합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침니다.
· 그동안 교육받은 스님들의 생생한 증언과 동영상을 통한 교육 인체전기 파동의학

인체전氣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미래사회 문제 해답, 불교 안에 있다”

정각원 화요 비교종교학 강좌

민희식 前한양대 교수

동국대 정각원에는 3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바로 비교종교학의 대가인 민희식 박사의 강의다. 민희식 박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루대학 문학박사로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계명대 교수 등을 지내며 종교학자들을 지도해왔다. 11월 24일 강연에서 민희식 교수는 ‘불교와 서양철학’을 주제로 서양 철학과 불교사상을 비교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민희식 교수는 … 1934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986년 프랑스 최고문화훈장을 받았다. 민희식 교수는 〈법화경과 신약성서〉, 〈불교와 서구사상〉, 〈예수와 붓다〉 등 개신교의 뿌리와 불교사상이 맞닿아있음을 논증하는 저술을 다수 집필했다. 또 옮긴 책으로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감정교육〉, 〈보바리 부인〉, 〈에밀〉, 〈우연과 필연〉 등이 있다.

고대한국 미술 연구에 전 생애를 바친 화가 ‘앙드레 로트’는 신라시대 불상은 순화되고 세련된 간다라적 표현방법을 가장 잘 살린 불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계적 유산인 석굴암 본존불의 모습과 보살, 나한, 사천왕(四天王), 인왕(仁王) 등의 배치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균형미와 조화로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불교문화재의 완성된 형태미를 찬탄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서구 사람들의 찬탄은 문화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불교에 미래사회의 해답이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고 돌과 같은 무정물에도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의지에 의한 체관(諦觀)에 의해 해탈을 얻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니체는 비합리성과 고뇌로 넘치는 삶을 극복하고, 참된 인간의 삶을 여는 것이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도 주목한 진정한 의지의 삶, 참된 인간의 삶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풍요의 종교, 미래사회에 잘 맞아

최근 불교의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나 일본 오오카와 류우호오(大川 隆法)의 〈행복의 과학〉 등은 세계사상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나 브라질, 유럽 등에서는 불교를 통한 인류 평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할 무렵 오래전 서양 사람들이 왜 자기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버리고 그 대신 먼 이국땅에서 발생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약육강식의 터전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북극의 빙하가 갑자기 녹아 심한 홍수를 일으켜 흙을 거의 바다로 쓸려가고 척박해진 땅이 바로 지금의 유럽지역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기위한 방법은 보다 풍요로운 곳을 약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대인, 아랍인들은 사막에 살며 그들만의 약육강식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사상은 역시 척박한 땅인 유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일신 종교, 이원론적인 사상은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반면에 동양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기후도 온난하며 일찍이 농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이 지역의 상황은 사상과 종교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경들을 비롯해 논어, 도덕경 등 동양 경전을 보면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구약성서를 비롯한 경전들을 보면 다른 종족과의 투쟁, 약탈에서의 치열한 삶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종교도 그로 인해 이원론 성격을 띕니다.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선이냐 악이냐, 괴로우냐 즐거우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죽느냐 사느냐의 대립구조인 것입니다.

서양 종교는 척박한 삶에서 개척해나가고 투쟁해나가는 삶에 맞습니다. 반면 동양 종교는 풍요로움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데 맞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의 척박함, 빈곤함은 있지만 예전에 비해 우리는 훨씬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유럽지역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이 급속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교, 합리성을 담보로 연역적 방법 제시

이 중 불교는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주법칙을 밝히고 그 생명의 순환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과학과도 유사합니다.

오늘날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 카오스와 복잡계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고의 패러다임은 서양의 종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불교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합리적인 종교로 과학과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대와 미래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합리적 사상은 과학의 발달을 이끌었지만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적인 해결법은 귀납적인 이해로 문제를 해결해나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1=2, 2+2=4와 같은 합리적 사고법이나 수학적, 물리적 수법은 자연과학, 특히 공학방면에서 강력한 위력을 지니지만 인간의 정신적 영적활동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칩니다.

반면 동양적 방법, 특히 불교의 방법은 연역적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처음 결론이 나오고 그 것을 믿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사고는 두뇌에 의한 사고지만 동양의 사고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화경〉을 읽으면 우주의 최고의식인 깨달음에 이른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따지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믿고 실천해 나가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서양사상 비해 다원주의 인정
합리성 바탕, 과학과도 연결
연역법적 전개는 실천성 이끌어
마음가짐 바로하면 지옥이 극락

그 과정에서 8식이 숙업으로 변하고 7식의 자아작용이 개선됩니다. 또 6식의 마음이 바르게 작용하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서양적인 합리적 과학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납법으로 훈련받은 현대인이 동양적 연역법을 활용할 때 모든 사고의 벽이 깨지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9식 ‘아리아식’ 지하수와 같이 모든 인간의 생명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우주의식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행복감을 활용해 인간의 고뇌와 그로인한 병으로부터 구제해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서양 과학이나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외부에서 구합니다. 그러나 동양사상, 특히 불교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음을 깨우쳐 행복을 얻어나갑니다.

자기의 내부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공덕은 자기에만 미치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모든 환경이 개선되도록 합니다.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평화로운 생명력, 즉 우주의식을 접하게 되면 투쟁은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합리주의는 근대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나 자기중심의 이기적 본능을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지구 생명은 급속히 파괴돼가고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지금입니다.

실천의 종교, 마음가짐 바로 해야

그렇다면 개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법화경〉에서는 그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법화경〉 ‘약초비유품’에서는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넘치고(苦) 그것에는 탐 · 진 · 치에서 온다고 설합니다. 〈묘법연화종〉이라는 이름으로 〈법화경〉을 쓴 구마라집(鳩魔羅什)은 그 방편품(方便品)에서 원전에 없던 십여시(十如是)를 추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 말로 법화경의 요체로, 불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여시는 천태교설(天台教説)의 여러 가지 교설로 전개돼 우리 삶에 대한 방향설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연의 끝으로 이 십여시를 설명하며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십여시(十如是)는 10종류의 인간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인 여시상(如是相)은 겉에 나타난 모습(形相)입니다. 두 번째인 여시성(如是性)은 그 안에 갖추어진 성질(特性)을 말합니다. 세 번째인 여시체(如是?)는 개개인의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本質)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인 여시력(如是力)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能力)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인 여시작(如是作)은 밖에 나타난 작용(作用)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인 여시인(如是因)은 사문의 생기(生起)를 이끄는 직접원인(因)을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인 여시연(如是緣)은 인(因)을 돕는 보조인(緣)입니다. 여덟 번째인 여시과(如是果)는 인과 연이 초래하는 결과(果)를 뜻합니다. 아홉 번째인 여시보(如是報)는 결과가 가져오는 보(報)를 말합니다. 끝으로 열 번째인 여시본래구경(如是本來究竟)은 첫 번째인 여시상에서 아홉 번째인 여시보까지의 관련성을 설합니다. 이 관련성은 10종류의 인간의 10가지 마음가짐을 가지는 십계호구(十界互具)로 인간의 마음은 한군데만 멈추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한 마음의 작용 결과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여래의 10가지 세상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지옥의 불바다에서 괴로워할 때 그 곳이 지옥계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귀계, 수라계, 색정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수시로 지옥의 생명, 부처의 생명이 현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개의 세계는 수시로 변합니다.

한 도적의 예를 들면 한평생 도둑질하고 산 한 인간이 한때 물에 빠진 거미를 보고 건져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는 지옥에 빠졌는데 아마타여래가 거미줄을 하늘에서 내려줘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거미줄에 매달린 그 악인은 자기 뒤에 거미줄에 매달린 자들이 있어 그를 발로 차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결국 거미줄은 그 악인의 행동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선행은 잠시 보상받았으나 그 마음가짐이 악했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마음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방향은 3000개나 됩니다. 매순 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면 거미줄이 아닌 지옥의 화탕이 바로 극락이지 않을까요.

출간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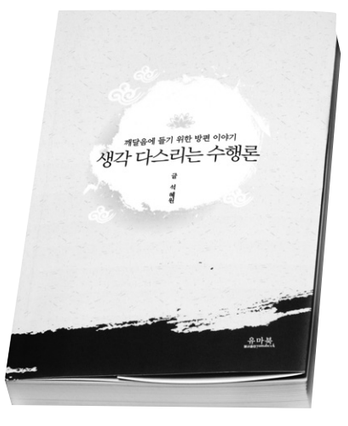
금강삼매경 출판기념법회 불교방송 3층법당 12월 29일 오후 2시 (참석인 책증정)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에서 1,2,3,4 단계 이수 후 공(空)마저 놓는 수행으로 보살경지에 이르게 된다.

보살들이 중생의 궁금증을 대신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이고, 고뇌가 일어날 때 공(空)에 굴에 두라고 하지만, 미혹한 중생은 경계에 빠지니, 방편을 제시하고 공(空)에 들게하고 공(空)마저 놓게 한다.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상구보리는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 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1단계 : 들숨날숨 집중　　2단계 : 들숨날숨 관찰
3단계 : 화두참구 (견성)　　4단계 : 공(空)에 들어감

▶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수강생 모집
- 1기 접수중　• 인원 : 50명　• 저자 혜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대상 :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이수자. 단, 공(空)에 든 분은 예외

▶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수강생 모집
- 2기 접수중　• 저자 혜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대상 : 사부대중 (50명)

【 1기 수강 후 하시는 말씀 】
·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 몸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 미래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무아선원 031)721-2148~9　◈ 첫 강의 입재 ■ 날짜 : 2013년 1월 10일　■ 기간 : 1년
■ 교재 : 금강삼매경,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 강사 : 혜원스님

도서구매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5
교보, 영풍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문화 꽃핀 곳, 신라 경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콜로세움서 주장



"석굴암을 비롯해 신라시대 불교문화 대부분은 실크로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실크로드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불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크로드가 신라불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1980년대부터 실크로드 문명에 대해 연구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12월 13일 경주 동국대 원효관 글로벌리더스홀에서 열릴 예정인 경주 불교 콜로키움 '실크로드의 東流, 경주 그리고 한국불교'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신라불교가 실크로드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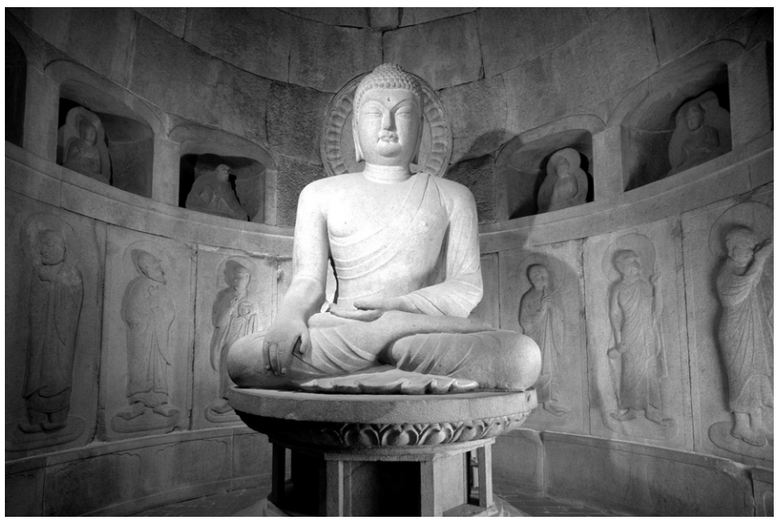
이날 문명대 교수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금동삼존불상의 특징이 인도 사르나트 박물관에 소장된 녹야원 굽타불상 양식과 같은 점 등 신라불교가 중국계열의 불교보다 실크로드의 불교문화를 더욱 반영했음을 주장한다.

문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신라 삼보 중 하나인 황룡사 금동석가삼존불상을 비롯해 황룡사 대탑, 영묘사 · 흥륜사 · 법림사 장육존상 등은 실크로드 상의 불상과 양식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국보 79호,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金銅彌勒半跏思惟像)도 실크로드 상의 불교미술과 깊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압지 금동삼존불상 굽타 양식
석굴암 축조방식은 간다라 양식
중국의존넘어 세계불교융섭 증명

문 교수는 "경주 감산사 본존불인 미륵보살입상과 아미타불 입상의 U형 옷주름은 인도 우진왕도상식 불상이 신라화돼 나타난 특징"이라며 "굽타양식이 신라적 아름다움으로 승화됐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대표적 신라불교문화재로 평가받는 석굴암에서도 실크로드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명대 교수는 석굴암 10대제자상이 아리아인 고승상을 그대로 모형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석굴암은 판석을 짜서 조성한 축조석굴로 그 근원은 간다라 석굴형식로 중국 본토를 건너뛰어 신라로 곧장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석굴암 10대제자상을 보면 인도 아리안인의 고승상을 그대로 모형했다"며 "이는 중국 달마상, 나한상보다 더 실크로드의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끝으로 "이는 신라의 불교문화가 중국의존적이 아님을 알려준다"며 "신라인들이 인도를 비롯한 세계불교미술의 장점을 취합해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로 승화시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 그 자체로 합리적, 과학화 불필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우리의 삶을 규정하며 합리성의 상징으로 자리한 과학도 과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인간의 믿음에 기반한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종교의 합리성 추구와 그로 인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이런 관점에서 새로 정립돼야 한다."

미래사회 종교는 합리성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종교의 합리성이 과학이 지닌 권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와 과학사상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종교의 합리성 충족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 교수는 이날 "지금까지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는 끊임없이 시도돼 왔지만 최근 과학교과서 진화론 퇴출 시도 및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론의 유행은 과학과 종교 간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과학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원리로서 산업사회의 생존전략으로 자리했지만 과학적 사실도 당대의 과학자가 제시한 결과를 믿는 행위"라며 "주관적 믿음에 바탕을 둔 종교행위와 달리 일반적으로 객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적 사실도 종교를 믿는 행위와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어 "합리성의 바탕이 믿음이라면 이성에 근거한 합리성, 영성에 근거한 합리성이 동일한 믿음구조 위에 서로 우열이 없다"며 서로 다른 영역을 대변하는 두 믿음이 서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최근 일고 있는 창조과학 등에 대해 비판했다. 우 교수는 "이렇게 본다면 종교를 굳이 과학의 언어로 풀어가려는 행위는 영적 합리성을 버리고 과학의 이성적 합리성에 맞추려는 행위"라며 "진리구현이 아닌 자본주의와 결합해 물질적 세속화로 빠져드는 모습의 일환이다"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청계산 일대 발굴조사 필요하다"

의왕문화원 향토문화硏 학술대회서 목소리 모아

조선왕실 원찰인 원통사를 비롯해 청계산 일대의 사지로만 남아있는 사찰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의왕문화원(원장 박용일) 향토문화연구소는 12월 6일 의왕문화원에서 '원통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왕 청계사를 비롯해 의왕 원통사지 등 청계산 일대의 사찰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다. 학술대회에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 황보경 세종대 박사, 양정석 수원대 교수가 발표했다.

먼저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의왕시 청계사의 역사와 위상'에서 "의왕 청계사가 사도세자의 능침사찰로 화성 용주사와 함께 정조의 원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계사는 한때 선종본산이었던 사찰로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도 한 조인규 가문의 원찰이다.

황인규 교수는 "청계사는 현재 용주사 말사지만 용주사보다 먼저 능침사찰로 지정됐다"며 "그 전까지 조인규 가문뿐만 아니라 정조의 원당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양정석 수원대 교수는 '의왕 원통사지의 사역과 원찰로서의 중건과정'에서 "원통사지가 소헌왕후의 원찰이었던 '원통암'이었다"고 공개했다.

양 교수는 조선 문신 김수온(1409~1481)의 〈식우집(拭?集)〉에 실린 '원통암중창기'를 통해 원통암이 소헌왕후의 원찰이었다고 적혀 있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양 교수는 또 "명나라 4대 황제 인종의 연호인 '홍희(洪熙)'가 적힌 기와가 발견됐다"며 "세종 7년 원통암이 중수됐다"고 설명했다.

황보경 세종대 박사는 '의왕 원통사지 조사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원통사지 발굴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2000~2001년 세종대박물관의 광역지표조사, 2010년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폐사지 조사와 답사 결과를 통해 "원통사지에 축대, 건물지 6동, 우물지 1곳, 연화대석, 석축 등이 발견됐다"고 소개했다.

황 박사는 "현재 사지 내에 비닐하우스가 지어지고 경작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원통사지를 포함해 청계산 불교유적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와 관리보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견해차 구분없는 화쟁은 '언어유희'

박태원 교수, 한국불교사연구소 제3차 집중세미나서

사회갈등 문제에서 해법으로 제시돼왔던 화쟁사상의 무분별한 도입을 비판하고 화쟁사상의 발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12월 1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3차 집중세미나에서 "견해 계열(門)의 구분이 없는 화쟁은 실질적 치유력이 없는 공허한 '언어유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원효의 화쟁은 주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적절한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파악을 전재로 온전한 진리 수렴과 향상의 길에 화쟁사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화쟁의 치유력은 '견해에 달라붙지 않는 무집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쟁점에 대해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인정 · 수용하며 서로 다른 조건적 타당성을 변별해 포섭하는데서 화쟁의 통섭이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화쟁 원리로 '모든 쟁론의 인식적 토대를 초탈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一心) 열기' '언어 환각에서 풀려나 언어를 사용하기' '각 주장의 부분적 타당성(一理)을 변별해 수용하기'를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특히 각각의 주장들이 지니는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면 상호작용으로 보다 유익한 향상의 길로 나설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각 견해들의 조건적 타당성을 더욱 깊고 온전하게 포착하려면 견해에 달라붙지 않는 무집착의 능력이 필요하며 지혜와 자비의 구현에 믿바탕이 된 언어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원효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에서 원효 저술이 총 103부 219종이라고 밝혔다. 또 원효 스님의 학문방법이 '명제의 제시-분석-회통(해석)'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원효의 교체론과 언어관'에서 "원효 스님은 언어 한계를 인식해 의어를 통해 진여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목조문화재 정밀조사보고서 발간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등 9건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大雄寶殿) 등 9건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정밀실측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재청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할 때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와 학술연구를 위해 매년 10여 건씩 정밀실측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국공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전자문서 형태로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게재한다.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167건 중 현재까지 안동 봉정사 극락전(極樂殿) 등 143건에 실측조사를 완료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역경원, 〈경률이상(經律異相)〉 출간

불교경전 전생담 등 설화 모은 책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장인물에 얽힌 이야기와 설화 등이 집대성된 한글대장경 〈경률이상(經律異相)〉 1, 2, 3권이 동국역경원에서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경률이상(經律異相)〉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에 남조의 양나라 보창 스님이 무제(武帝)의 명을 받아 여러 불전에 등장하는 비유나 전생담 등 신비한 고사를 뽑아 편찬한 책이다.

〈경률이상(經律異相)〉은 불교경전 중 경전과 율장에서 특별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다룬 책을 뜻한다.

책은 본문 50권으로 구성돼있으며 총 22부가 있다. 51개의 세부 항목이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 총 782개의 고사가 소개돼 있다. 제1 천부(天部)와 제2 지부(地部)와 제3 불부(佛部)부터 제19 서인부(庶人部)까지 전체 42권 분량이 인간 세계에 대한 소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승부(僧部)에서는 출가 수행자의 특별한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경률이상(經律異相)〉은 1992년 동국역경원에서 송성수 선생의 초역본으로 이번에 출간된 개역본은 오준호, 하혜정, 박연주 등 전문 한문 번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글화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설 법 · 화 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한
전통 뜸,침술,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송국』이사장이신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강 사 약 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국 한의사
•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과목
• 초급반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불공, 관음시식
• 중급반 : 49제의식, 사다라니, 다비편(매장, 화장)염불,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별의식 작법
• 천수바라,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사물타법, 화청

교육과정
초급반
• 일반 : 6개월 (주1회 2시간)
매주 :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3개월 (주1회 3시간)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급반
• 일반 : 12개월 (주1회 2시간)
매주(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6개월 (주1회 3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 작법(6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모집인원
• 35명(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불교인 힘모아 협동조합 만든다

전북 불교시민사회 단체, 협동조합 설립 연대모임 결성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그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운동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신행단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다.

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 구상 중에 있거나 관심이 있는 전북불교시민연대, 전북불교대학, 전주 우리는선우 등 단체들은 11월 30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공유, 불교협동조합 설립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유남희 전북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으로부터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듣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습과 정보공유, 불교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위한 연대모임을 출발시키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쟁보다는 협동, 재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의 근본정신과 신뢰와 소통을 성패의 열쇠로 보는 협동조합의 근간이야 말로 초기불교의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는 실천운동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초기불교 공동체 정신 부합

명상, 유아돌보미, 장례용품사업

이날 불교신행단체 대표들은 불교가 종교로서 지역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회적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공동대표에 한광수 전북불교대학학장, 유지원 전북불교시민연대 대표를 선출하고, 집행위원장에 이경숙 씨를 선임했다.

이들이 현재 구상 중에 있거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명상수련센터, 유아 돌보미 사업, 장례용품사업 등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연대모임을 결성한 전북지역 신행단체들이 모여 설립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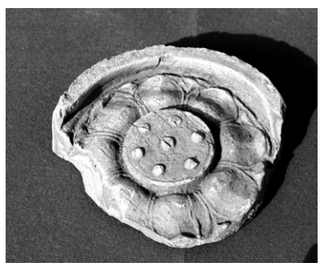
한편, 이웃종교단체를 비롯해 많은 지역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협동조합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교계는 아직 그 관심조차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단체마다 준비하고 있는 단위별 협동조합과는 별개로 전북지역 불교계가 한데 뭉치는 범불교적 불교소비자협동조합이 제안됐다. 공동대표단이 별도로 준비팀을 구성해 검토한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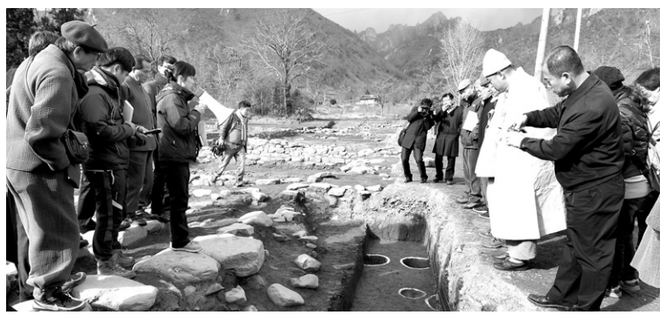
협동조합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시장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경제적 약자인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자의 구매·생산·판매·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다. 협동조합 운동은 정치·경제적 약자가 상호협동과 단결로 경제적 지위 향상과 정치적 자주권을 획득해 가는 운동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남 최초 백제 절터 발굴

강진 월남사지 백제시대 유물 발견…다수의 와당 출토



이곳에서 최초로 전형적인 연꽃문양을 담고 있는 다수의 지붕을 덮는 데 사용하는 건축자재인 백제와당(瓦當)의 출토가 큰 의미를 더한다.



전남 강진군과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5일 월남사지에서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 강진 월남사지에서 다량의 백제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전남 강진군과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5일 월남사지에서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지금까지 고려시대 진각국사 혜심(1178~1234년)이 창건했다고 알려졌던 월남사지에서 많은 백제 기와들이 출토돼 이미 백제시대에 사찰이 창건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지금껏 백제시대 관련 유적이 거의 출토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많은 발굴과 연구가 진행 될 것 같다. 그중 전남에서는 최초로 전형적인 연꽃문양을 담고 있는 다수의 지붕을 덮는 데 사용하는 건축자재인 백제와당(瓦當)의 출토가 큰 의미를 더한다.

이밖에도 높이 23㎝의 초대형 고려시대 금동 풍탁(風鐸)이 출토됐으며, 이런 대형 풍탁은 삼국시대 6점, 고려시대 3점 등 현재 9점 정도가 알려져 있다. 풍탁은 석탑이나 처마 끝에 사용되었던 장엄구로, 이번 월남사지 출토품은 이중 가장 큰 크고, 문양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돌로 만든 차(茶) 맷돌의 출토는 당시 사찰에서 가루차를 직접 만들어 마셨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차 맷돌이 절터에서 출토된 사례는 강화 선원사와 월남사지 뿐이라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은 고려시대 때 고품질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이를 대변하듯 월남사지에서도 청자 의자와 화분, 향로, 의자, 약봉(藥棒), 도판(陶板) 등 다양한 용도의 특수 청자들이 출토됐다. 한편 고려후기 청자를 대표하는 간지명(干支銘) 청자 가운데 '기사'(己巳; 1329년)가 새겨진 대접편이 출토됐으며, '기사'명 청자가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월남사지에서는 백제시대 뿐만 아니라 중창 시기인 고려시대의 기와들도 다양하게 출토됐다. 발굴 유물의 80%를 차지하는 고려시대의 유물 중에서 대몽항쟁 유적으로 유명한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막새들과 비슷한 문양의 와당들도 확인되고 있어 월남사가 13세기에 중창됐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 2012년 8월 27일부터 4개월에 걸친 조사로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일부분만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발굴에서 다량의 백제유적이 나오면서 그동안 백제와 후백제, 고려 중기 등 다양하게 검토되었던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보물 제298호)의 건립 시기 또한 재검토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대 강제 채플수업 물의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중인 전주대학교에서 개신교 종교행사인 채플을 강요하고 있어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아이디 onepiece (ansgh****) 라는 네티즌은 11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와 네이트 판 게시판에 '전주대학교의 강제 개신교 종교수업 고발! 졸업하고 싶어요!!!' 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어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교과부 인권위 관계자에게 바랍니다-전주대학교의 개신교 강제수업 폐지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전주대 강제 채플수업 폐지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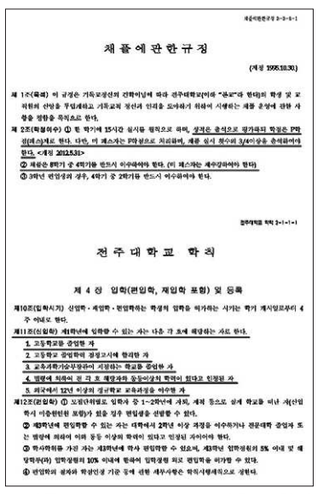
지난 5월 31일 개정한 전주대학교 채플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재학생은 한 학기에 15시간 씩 총 4학기 동안 채플을 들어야 한다. 채플 수업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미달시 F학점을 받게 된다.

채플수업시간이 다른 강의와 겹치면 '신학' 과목 3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물의를 빚어왔다. 전주대학교 학칙 17조에는 '이단종교와 관련 있는 사람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도 줄 수 있고, 재범 여부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다. 학칙 외에도 '이단 종교 활동 규제규정' 을 두고 통일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몰몬교, 기독교 복음침례회 등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7일 현재 전주대를 고발한 이 글은 네이트 판에서는 조회수 9,300회 댓글 170개,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회수 5,300회 댓글 480개를 기록하고 있다. 또 개신교 강제수업 중지 청원게시판에는 450여 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채플예규 제정 2-1-1-1

채 플 에 관 한 규 정

(개정 1995.11.30)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모성실의 건학이념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 및 교직원의 신앙을 무입계하고 기독교의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채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학점부여) ① 한 학기에 15시간 등시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은 출석으로 평가하되 학점은 P와 F(이)라고 한다. 다만, 이 때스터는 P학점으로 처리하며, 채플 등시 점수의 3/4이상을 손해봐야야 한다. <개정 2012.3.2>

② 채플은 8학기 중 4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야 한다. (이 때스터는 재수강해야야 한다)

③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학기 중 2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야 한다.

전 주 대 학 교 학 칙

제 4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및 등록

제10조(입학시기) 신입학·재입학·편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11조(신입학) 재학년에 입학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중입한 자
2. 고등학교 중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중입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호 해당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2조(편입학) ① 모집단위별로 입학자 중 1~2학년에 자퇴, 제적 등으로 심계 학교를 비난 자(신입학자 이송원인된 포함)가 있을 경우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재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지정을 이수하거나 전문대학 중입과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③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학사 편입학할 수 있으며, 제3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및 제1학년(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입학생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편입학의 경우에 학점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물의를 빚고 있는 채플 규정을 포함한 전주대 학칙

전주 자연음식문화원 개소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위해 자연음식문화원이 개소식과 함께 출범했다.

생명평화의 정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운동을 전개해 나갈 자연음식문화원(이사장 곽복희)이 12월 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출범했다.

자연음식문화원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강좌를 통해 음식의 고장 전주의 명성에 맞게 사찰음식을 발굴하고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급식 운동등과 식생활개선활동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 서노송동에 약 130㎡의 공간에 실습 조리대 36대를 마련했다. 문화원은 △대학생 자취방 채식요리경연대회 및 외국인 유학생 초청 대중공양 △아빠랑 엄마랑 자연건강음식 일요파티 △생명평화대중공양단(음식 자원봉사단)운영 △전북지역 자연(사찰)음식 연구조사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 착한식당 '생명평화 머금터' 를 창업해 소박하고 저렴한 식당의 모범적 운영으로 사찰음식의 고유정신을 알리고 대중화할 계획이다.

'생명평화 머금터' 는 채식을 기본으로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을 이용한 저렴하고 소박한 자연음식전문식당이다.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신행회, 자비연탄 기부행사

저소득 70가구에 1만 4000여장 전달



2011년 저소득가구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자비신행회.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불교계 나눔의 행사가 개최된다.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오는 12월 14일 지역 저소득 어르신세대 및 청소년 가장 70여 세대에 연탄을 전달하는 기부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전달하는 연탄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지역의 사찰(문빈정사, 증심사, 영광사, 연화사 등)과 불교단체가 연합하여 전체 1000만원의 후원금으로 70세대에 14,000장의 자비의 연탄을 전달한다.

행사를 준비하는 자비신행회 배수정 팀장는 "올 해에는 가장 추운 겨울이 올 것이라 예보가 되어있지만, 정작 어려운 이웃들은 이를 준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들에게는 작은 온정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을 다가갈 수 있다"고 행사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오는 24일 화순 전남대학교 소아암 병동에 투병중인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선물전달' 행사를 개최한다. 올 해로 2회째 맞이하는 이 행사는 40여명의 아이들에게 사전에 받고 싶은 선물을 '소원지' 를 통해 전달받아, 24일 희망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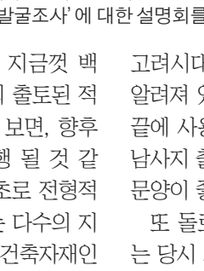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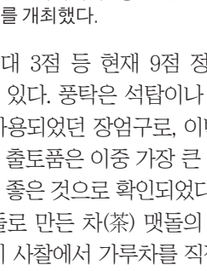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뷰 출가의식 지원
  신뷰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뷰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묘엄 스님 삶 담은 박물관 문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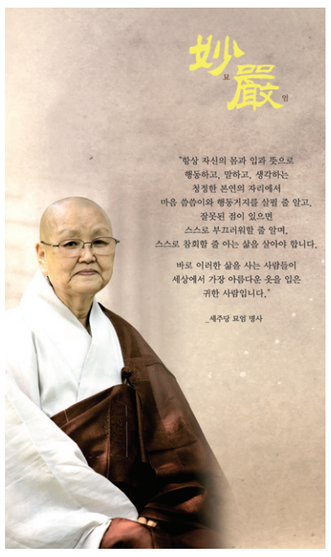
봉녕사, 원적 1주기 맞아 세주묘엄박물관 개관

한국 비구니계의 대강백이며 최고 율사였던 故 세주 묘엄 스님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이 문을 연다.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오는 12월 19일 묘엄 스님의 원적 1주기를 맞아 '세주묘엄박물관' 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묘엄 스님이 생전 학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선방을 조성해 참선을 하던 향하당에 조성되는 세주묘엄박물관은 30여 평 규모의 전시실과 영상실로 구성된다. 영상실에는 스님의 생전 모습을 3D, 4D 기법을 활용해 재구성해 방영한다.

생전 학인들 가르쳤던
향하당에 박물관 조성
각종 편지, 메모, 서적 등
면모 알 수 있는 물품 전시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12월 19일 묘엄 스님의 원적 1주기를 맞아 '세주묘엄박물관' 을 개관한다. 사진은 박물관 입구 전경.

스님의 검소했던 삶의 한 켠을 알 수 있게 꾸며진다. 주로 스님이 평소 사용했던 물품과 봉암사 결사문, 각종 편지와 메모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출가 초기부터 원적에 들 때까지 스님이 직접 쓴 각종 메모와 글이 그대로 보관돼 눈길을 끈다.

출가 후 성철 스님이 묘엄 스님에게 한국 역사를 정리해 준 기록물과 부친이었던 청담 스님이 직접 써 준 '명심(銘心)' 은 혈연을 떠나 당대 선지식들이 묘엄 스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벽지와 봉투를 잘라 사용한 메모지들에서는 묘엄 스님의 근검 절약했던 성품이 느껴진다.

봉녕사는 "인재불사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묘엄 스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전시의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통해 진실된 수행자의 모습을 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봉녕사는 묘엄 스님 원적 1주기를 기리기 위한 추모 다례재를 19일 오전 10시 대적광전에서 봉행하며, 11시 30분에는 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는 묘엄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한 계를 넘어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과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추모음악제를 연다.

한편, 봉녕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봉녕' 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템플스테이도 개최하는 등 포교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불사를 강조했던 묘엄 스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일타 대종사 사리탑 봉안

12월 5일 영천 은해사 경내서 13주기 추모 다례재도

동곡당 일타 대종사의 사리탑이 12월 5일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영천 은해사 경내 부도전에 봉안됐다. 또한 은해사는 경내 조사전에서 일타 대종사 13주기 추모 다례재를 갖고 스님의 생전 수행정신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의원 법흥 스님과 문도대표 혜인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종회의장 향적 스님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문도대표 혜인스님은 인사말에서 "큰스님의 부도탑을 여법하게 봉안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받들어 지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의 사리탑이 12월 5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에 봉안됐다.

일타 스님은 14세의 나이에 출가 수행을 시작해 교학과 율학에 통달했다. 해인총림 율주와 조계종 전계대화상,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지난 99년 세수 71세, 법랍 58세로 열반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선거는 희망… 투표하세요"

강화사암련, 투표 격려 켐페인 15개 장소에 현수막 부착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가운데 강화 지역 불교계가 주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강화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선암)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강화군 읍면 곳곳에 15개 투표 참가 독려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선거 현수막에는 '선거가 희망입니다.12월19일, 꼭 투표합시다'라는 내용의 담겨 있다.

강화 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인 선암 스님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강화 지역의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플래카드를 개재했다"며 "투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다. 이번 12월 19일에는 강화군민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보성선원' 자비의 김장

기초생활자 270가구에 전달

대구 달서구 송현동 보성선원(주지 한북 스님)의 '자비의 김장나누기' 가 올해도 어김없이 펼쳐졌다. 보성선원은 지난달 12월 1일까지 달서구 송현1 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70가구에 김장 9kg을 제공했다. 이 행사는 2008년 한북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해부터 올해까지 5년째 이어졌다.

올해 김장나누기에는 150명이 참여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절이 청정환경 지킴이 되자

우리의 옛 사찰에는 사역을 휘감고 흐르는 계류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이 많다. 서울의 화계사, 의왕의 청계사, 인제의 백담사, 아산의 용담사, 괴산의 각연사, 대구의 파계사, 달성의 용연사, 청도의 적천사, 하동의 쌍계사, 거창의 송계사, 함양의 용추사, 화순의 만연사 등이 그러한 사찰이다. 이들 사찰에 가보면 절 주변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사시사철 흐른다. 물소리만 들어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 같고, 물이 넘쳐나니 마음까지 넉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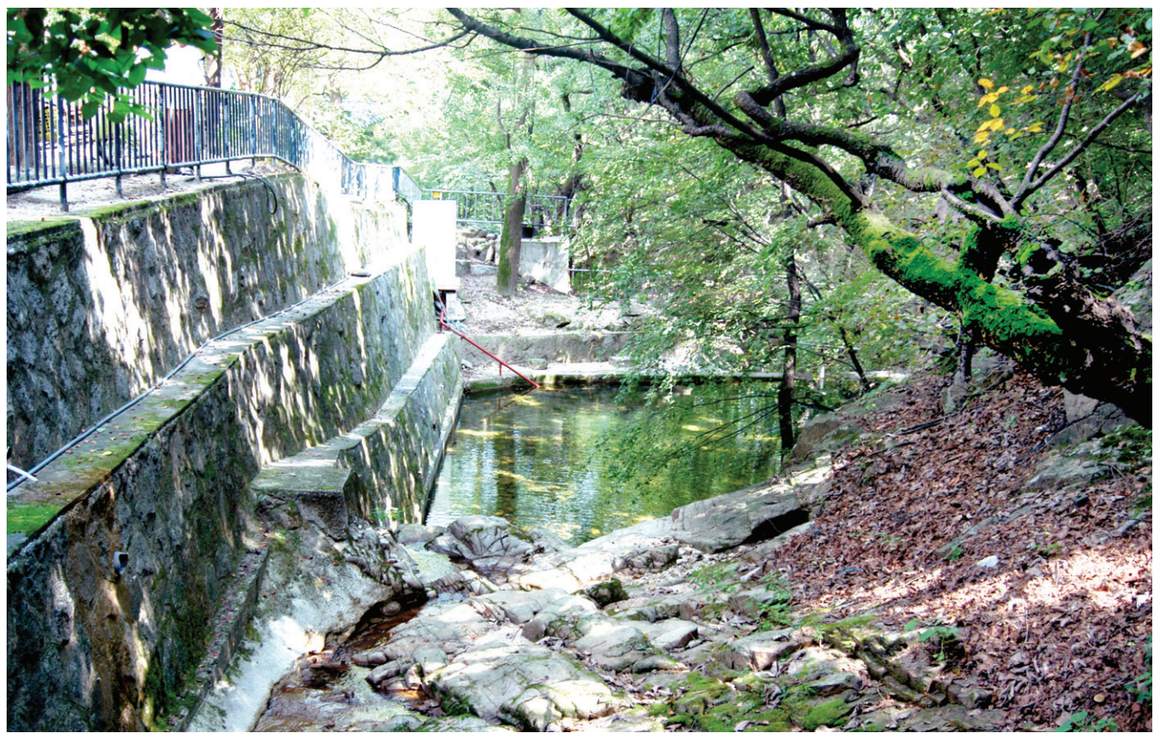
절 이름이야 굳이 계류와 상관없이 붙여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절 주변을 흐르는 물길이다. 그만치 사찰에서는 절 가까이로 흐르는 물을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물이라는 것이 삼라만상을 기르고 그것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미기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절에서는 수행처가 되기도 하니 어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풍수가들은 예로부터 좋은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사역주변으로 물이 흐르고 맑은 물이 고인 소(沼)나 담(潭)이 있는 곳을 찾아 절을 세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절에서 오랜 세월을 수행해 오신 노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절 주변을 흐르는 계류는 신성한 존재였다고 한다. 계류에서는 물을 더럽힐 행위는 일절 삼갔으며, 계류의 현상이 바뀔 일은 애당초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능하면 물길이 가진 본래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수시로 청소를 하여 청정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요즈음 사찰에 가보면 절에 인접한 계류가 개발압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계류 가에 옹벽을 쌓아서 사찰과 계류를 단절하고 있음은 물론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전통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헤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생활하수를 정수하지 않고 그대로 계류에 방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쓰레기가 이곳저곳에 방치되기도 한다.

사찰주변에서 성업 중이던 음식점들을 이전하면서 사찰의 청정성을 기대했던 우리들에게 사찰내부에서 일으키는 계류의 오염행위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찰이 예전과 같은 청정환경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찰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계류에 옹벽을 설치하여 사찰과의 소통이 단절된 모습.하루속히 원형을 복원하여야 한다. 서울 ㅎ사찰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사)호국불교조계종 가사불사 및 점안법회 행

가사를 조성하여 시주하면 천 가지 재앙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이런 연유로 가사불사는 으뜸가는 공덕이므로 (각 사암)으로 가사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장경 수자함〉

종 정 운송 (청운사 055-375-0108)
중앙원로원장 대웅 (봉주암 051-895-6013)
중앙원로의원 혜원 (봉광사)
무진 (용수암 011-864-3369)
청수. 일파
중앙종회사무처장 용현 (극락정사 010-2531-1961)
중앙종회의원 수경 (백련암). 범주 (몽불사)
진우. 진여. 진설. 혜덕
고 문 허종범 변호사 (011-837-1144)
사 무 총 장 박몬비 (010-4566-4504)
중앙포교단장 덕인 박근호
포교단총무 법광 (무량사 010-9316-4438)
※ 종지 종풍 및 이념은 홈페이지 참조 (http://bbnr.or.kr)

중앙종회의장 일봉 (관음사 011-508-3100)
포 교 원 장 운암 (문황사 055-573-1745)
교 육 원 장 법기 (백림사 016-748-0048)
호 계 원 장 법정 (법정사 011-567-2626)
호 법 원 장 법산
중앙전통불교문화원장 무향 소현 (010-7757-5078)
중앙선거관리원장 관우 (약사사 010-8859-5312)

(社)護國佛敎曹溪宗 總務院長 유심 성도
공동봉행위원장 운암
공동봉행위원장 혜명 범우

비구니회회장 혜명 법우 (백광사 051-804-3806)
비구니회총무 범중 (법전사 011-9509-1560)
총 무 부 장 도일 정무 (청운암 010-4007-0057)
감 찰 부 장 서암 (약수사 010-6668-2017)
규 정 부 장 법승 (051-516-4494)
재 무 부 장 묘향 반야라마 (010-8620-4303)
문 화 부 장 청오 (홍주암 011-514-6310)
감 사 부 장 청타 (관음정사 018-403-1022)

■ 장소 : 부산역 앞 건너편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관음정사 (051-468-5657)
■ 일시 : 불기 2556년 12월 8일 (음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전국 각 교구 종무원장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
서울교구원장 법안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운암 (문황사 017-551-5143)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보현 (약사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 현수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 법승 (천황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무진 (용수암 011-864-3369)
포항교구원장 해광 (천왕사 010-4148-2402)

입종업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탱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깨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400



동남각루에서 창룡문 방향으로 나있는 화성 성곽 둘레길. 성곽 틈틈이 보이는 수원 시내의 모습과 선조들이 남긴 유적들이 조화를 이뤄 즐거움을 선사한다.



용주사 홍살문은 효행본찰로서의 상징이다.



도심문화 포교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수원사



화성행궁은 정조가 융릉에 행차할 때 묵었던 왕궁이다.

효심으로 쌓은 성곽길 걸으며 孝 다시 생각

⑰ 화성 성곽 둘레길 그리고 봉녕사, 수원사, 용주사

사도세자의 릉인 융릉이 위치한 수원 화성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수원을 조성한 정조의 효심이 깃들여 있다. 화성 성곽을 따라 있는 둘레길에는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정조로부터 수원성 축성의 명을 받은 이는 불교계와도 교우가 깊었던 젊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었다. 당시 다산의 나이는 31세 였다. 젊은 학자의 젊은 사상은 이상적인 성곽을 만들어냈다.

당시 수원 화성의 조성은 사도세자 묘 이장을 주장한 보경 스님 등 불교계와 신진 사상가들의 힘이 모아졌다. 다산은 정조 18년인 1794년 성을 쌓기 시작해 2년 뒤인 1796년 이를 완성했다. 성곽 둘레는 5.7km로 성인 걸음으로 한 바퀴 도는데 2시간가량이 소요된다.

옛 멋과 현대미 깃든 도심 속 성곽길

수원 화성 성곽을 따라 만들어진 둘레길은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성곽을 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성 안팎으로의 출입은 4대문과 암문 다섯 곳을 통해 이뤄진다. 창룡 · 장안 · 화서 · 팔달문 등 4대문과 북암문 · 동암문 · 서암문 · 서남암문 · 남암문 등이 그것이다.

수원 화성이 한양 도성의 남쪽에 있는 관계로 북문인 장안문이 사실상 정문이다. 장안(長安)이라는 말은 수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뜻이다.

이 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문으로 국보1호인 숭례문보다도 크다.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자리한 동문인 창룡문까지는 1km거리. 도보로 15분가량이 소요된다. 창룡문 인근에는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봉녕사가 있다.

봉녕사는 조계종 제 2 교구 용주사의 말사로서 수원 동쪽 광교산에 자리 잡고 있다. 고려시대 1208년에 원각국사가 창건해 성창사라 했다가, 1400년경 봉덕사라 개칭, 1469년 중수하여 봉녕사라 불렸다. 고려시대 불상인 석조 삼존불과 약사전의 신중탱화, 현왕탱화가 유명하다.

속세의 부질없는 잡념과 근심은 일주문을 넘기 전에 다 내려놓게 된다. 부처의 진리를 향한 일심으로 일주문을 조심스럽게 넘어간다. 대웅전 앞뜰에 800년 된 향나무가 길손을 맞이한다.

봉녕사는 1971년 비구니 묘전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며 폐사 직전의 사찰을 요사와 선원을 신축해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었고, 1974년 대웅전을 신축하면서 확장했다. 그 해에 비구니 묘엄 스님을 강사로 승가학원을 설립하고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을 만든 곳이기도 하다.

수원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지만 사찰은 낡고 퇴색한 모습보다 섬세하고 단아한 모습이다. 잘 가꿔진 숲과 마당 등 비구니사찰 특유의 깨끗함이 인상 깊다.

다시금 봉녕사를 나와 창룡문을 출발해 수원 남문이자 번화가인 팔달문으로 향한다. 팔달문으로 향하는 길목에선 수원 화성을 가로지르는 수원천을 만난다.

성 안쪽으로 수원천을 따라 조금만 걸으면 동남각루와 함께 전국 3대 포교당 중 하나로 꼽히는 수원사(水原寺)에 도착한다. 수원사는 한국 최초의 포교당 각황사(현재 조계사), 강릉포교당과 함께 전국 3대 포교당으로 불리며 근대불교 도심포교의 상징이었다.

1912년 용주사 수원포교당으로 건립된 이 곳은 일제강점기 도심포교를 진행했다. 1957년 화광사(華光寺)로 이름을 바꿨다가 지금은 수원사로 불리고 있다.

수원사의 본 법당인 극락대원전(極樂大願殿)은 1912년 창건 당시에 지어진 건물로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다. 극락대원전 월대의 좌측에는 사자모양의 동상이, 우측에는 용형상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

수원사는 도심포교 뿐만 아니라 근대문화 산실의 역할도 했는데 1929년 9월 한국 최초 여성화가인 나혜석 전시회가 수원사에서 열기도 했다.

수원사를 나서 수원천을 건너면 사통팔달이란 이름을 낳게 한 팔달문을 만나게 된다. 그 이름 답게 인근에는 시장이 조성돼 있다. 수원 성곽의 남문인 팔달문은 현재 보수공사 중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다소 아쉬웠다.

팔달문에서 성곽을 따라가지 않고 도로를 따라 성 안쪽으로 10분가량 걸으면 화성행궁이 모습을 드러낸다.

행궁 뒤편으로는 수원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인 서장대에 오르는 길이 마련돼 있다. 서장대는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는 곳으로 이곳에 오르면 성안의 행궁은 물론이고 성 밖 어느 방향도 모두 막힘없이 보인다.

성곽에 기대 도심을 내려다 보는 것은 숲길을 걷는 것과는 다른 맛이다. 마치 조선시대 장수가 된 기분이 든다.

서쪽으로 향하면 서문인 화서문이 나타난다. 이 화서문 서북쪽이 바로 정조가 한양으로 돌아갈 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돌아보며 눈물 흘렸다는 지지대다.

효도길 걸으며 정조 효심 느껴

지지대에는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추모한 비(碑)가 세워져 있다. 정조 사후인 순조 7년(1807)에 건립된 비석의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있다.

'조선 정조는 생부인 사도세자 능인 화성의 현륭원에 참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이 고개만 넘어서면 멀리서나마 화산의 능을 볼 수 없게 되므로, 으레 이곳에서 행차를 멈추었다고 한다. 능을 뒤돌아보며 떠나기를 아쉬워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르면 왕의 행차가 느릿느릿해졌다고 해서 한자의 느릴 지(遲)자 두 개를 붙여 지지대라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지지대비에서 융건릉까지는 18.7km 거리다. 수원 화성을 관통하는 능행차로는 대부분 차가 다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성곽 둘레길과 별개로 이 길을 따라 융건릉으로 다시 향했다.

원래 사도세자의 묘는 양주 배봉산에 있었으나 수원 화산으로 묘를 옮기고 현륭원(顯隆園)이라 하였다. 수원 화성 이름도 화산에서 따온 것이다.

1899년 고종 때 사도세자를 왕인 장조로 추존하면서 묘지가 원에서 능으로 격상되었고 이름도 융릉(隆陵)으로 바뀌었다.

융릉에는 한 울타리 안에 건릉(健陵)이 있다. 정조와 정조비인 효의왕후(孝懿王后)를 합장한 무덤으로 융릉과 함께 1970년 사적 제206호로 지정됐다.

이 사적을 관리하는 사찰이 바로 용주사(龍珠寺)다. 본래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 창건된 갈양사로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폐사되었다가 정조가 융릉의 원찰로 중창했다.

용주사에 들어서면 일주문과 다른 낯선 문(門) 앞에 걸음을 멈추게 된다. 보통 향교나 궁, 능, 묘에 세우는 홍살문이다. 융릉의 원찰인 이유로 사찰 내 사도세자의 제각을 지으면서,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곳에 세우는 홍살문도 함께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정조의 효심은 용주사 곳곳에서 묻어난다. 일반적인 사찰엔 부처나 보살을 모시는 전각이 대부분이지만, 용주사엔 사도세자의 제사를 지내는 제각인 '효성전' 이 있다. 다른 전각들에 비해 작고 소박하지만 단정하다.

현재 이곳엔 사도세자를 비롯해 부인 헌경왕후(혜경궁 홍씨), 정조, 정조의 비 효의왕후의 위패가 모셔져있다.

그 앞에는 '부모은중경' 이 기록된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부모은중경' 은 부모의 큰 은혜에 대해 내용을 담은 경전이다.

정조는 '부모은중경' 을 접하고는 백성들도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한문목판본, 한글본을 만들어 사찰에 내렸다.

용주사에 오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이탑이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이곳에 서면 가슴 저리게 다가온다. 용주사는 부모은중경 탑을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절 밖으로 나가게 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용주사를 지나간다. 한겨울 짧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월이 빠름을 느낀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정조의 효심과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며 용주사를 나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원화성〉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육각초 7.0ƒ × 34



연화 大 9.5ƒ × 11㎝, 연화 中 9ƒ × 10㎝, 연화 小 7ƒ × 6.5㎝



밀납연화 小 7ƒ × 6.5㎝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생태사회와 불교

후쿠시마 통해 깨달아야 할 탈핵발전

자연재해 복원가능… 원전 피해 불가능



지난해 3월 13일, 방재복을 입은 일본 공무원들이 후쿠시마 다이니 도쿄전력 2호 원전의 부근 마을에서 긴급 대피한 어린이의 방사능 노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올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을 맞아 국내의 주요 환경단체들이 '핵없는 세상'을 위한 운동을 펼쳤다.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이에 동참했다.

54기중 2기를 제외하고 모두 가동 중단된 일본 핵발전소

작년 3월 11일 진도 9.0의 강진이 일본 동북부해안을 덥쳤다. 본인이 당시 일본 동경에 머물면서 지진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어지러움 증으로 순간 착각했지만, 2번째 지진이 왔을때야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강진이라는 것을 알고 급하게 대피했다. 진정된 뒤 TV앞에 모인 우리 눈앞에는 거대한 해일이 방파제를 부수며 농가와 해안가를 급습하는 영화같은 장면을 눈을 의심하며 보고 있었다. 이어 동경의 동부지역과 게센누마 등 피해지역의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된 광경이 보였다.

당시 일본 열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의 원산과 부산정도의 500km거리와 내륙으로는 10km가 쓰나미에 공격을 받아 초토화된 것이다. 30만명이상의 이재민, 2만5천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 미증유의 재난은 곧 인간의 노력으로 복원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어서 터진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이며 복원이 가능하다지만, 후쿠시마의 재앙은 '인재'이며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자연재해는 피해자가 분명하지만 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다. 당시 반경 20km이내를 '계획적 피난구역', 30km를 '경계구역'으로 정했던 것을 지금은 '귀환곤란구역', '거구제한구역',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등 3구역으로 나누었고, 현재 사고의 중심에 가까운 귀환곤란구역을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을 걷어내는 제염을 하는데만 20년이상, 아니 반영구이 귀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1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나 후쿠시마사고 이후 이들 중단한 핵발전소는 주민 반대로 재가동을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력의 30.8%를 공급하던 총 54기 핵발전소 중에 2기만을 제외하고 원전의 가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놀라운 일이다. 물론 그것은 원전대신, 석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을 사용하면서 공급하는 것이지만 계획적 절전과 전력소비의 다변화, 국민들의 꼼꼼한 절전 등으로 1년 6개월여를 지내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충격적이다.

그것은 그동안 전력회사들이 원전이 가동중단되면 일본은 한꺼번에 망할 것처럼 선전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여 원전 제로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일본 원전가동 안하나 전력 걱정 안해
핵발전소 수명 30년, 피해는 300년 이상
현재 한국은 총 23기 원전 가동
MB정부, 2050년까지 의존도 59% 공언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한, 값 싼,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Nuclear Power Plant)를 왜 '원자력발전소'라고 번역해서 사용할까? 아마도 '핵 폭탄'을 연상하는 위험한 이미지를 탈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9년 미국 쓰리마일섬의 사고 이후, 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세계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를 폐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급기야 후쿠시마의 사고이후 전세계는 그야말로 핵발전소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래서 2011년 3월 14일,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은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원전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전개발업자, 정부, 언론, 국제조직등의 원전관련 카르텔들은 서로가 긴밀한 이해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원전사업의 안전성을 강하게 홍보하고 설명해 왔지만, 후쿠시마는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준 사례였던 것이다.

안전하다고 하면 최소한 다음 몇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피해범위가 허용가능할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피해의 완전한 복구가 가능해야한다. 그래야 비로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로, 핵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 후쿠시마의 사고가 해양에 어느정도까지 오염시키는지, 기류를 타고 세계 어디까지 피해를 주었는지, 인간과 농산물에 어느정도 방사능 피폭을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피해범위 또한 예측할 수가 없다. 공간적으로도 그 피해영역을 가늠할 수가 없지만, 시간적으로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까지 피폭을 입게된다.

핵발전소 수명은 30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300년이 지속되는 가공할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인 것이다. 세 번째로,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인체와 식물, 동물의 끼친 유전자에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더 이상 값싼에너지도 아니다. 안전시설을 포함한 건설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우라늄등의 원료구입비도 해마다 증가하며,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그 처리비용도 엄청나다. 그리고 30년간의 수명이 끝난 발전소시설자체가 거대한 방사능쓰레기가 되어 처리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고가 일어난 나라들은 79년 미국, 86년 체르노빌, 2011년 일본처럼 기술강국의 선진국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과연 원자력기술신화야 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원전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에너지이다.

30년수명 끝나 고장 잦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와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올 2월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전이었던 고리1호기에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한달 넘게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2월 9일 발전시 보호계전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전원공급이 끊어지자 작동해야할 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12분간 발전소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발전소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냉각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 한달후인 3월 12일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뒤에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을 멈춘뒤 재가동을 해오던 원전이었다.

후쿠시마도 설계수명이 끝나 시한을 연장하여 가동중에 발생한 재난이었다. 고리원전은 최근 3년간 9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원전이었다. 이렇게 사고를 은폐한 것은 3월 26일~27일에 있을 핵안보정산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핵산업기술을 각국에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데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 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사상초유 사고에도 진상규명과 안전성평가는 명확히 하지 않은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4일 재가동이 승인했다. 여기에 더해 원전시설에 대한 납품비리로 한수원 직원이 자살하고 결국 간부 22명이 기소되면서 원전을 추진하는 운영자들의 신뢰성과 시설 안전성에 큰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근 반경 30km에 살고 있는 370만명의 시민들을 불안에 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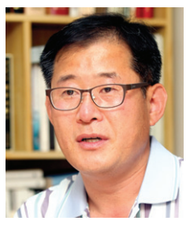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녹색성장 정부

더욱이 우리를 놀라게했던 것은 환경과 녹색을 신성장동력으로 한다는 이명박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태도였다. 그는 이미 요르단과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원전을 수주했다고 하여 자신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가 이면계약이 있다는 비밀이 드러났다. 원전 수주대가로 100억달러(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수주 당시, 22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결국 수출입은행에서 이 돈을 다른곳에서 비싼이자로 빌려서 싼이자로 되 빌려주어야 한다. 원전수출이 블루 오션인냥, 녹색성장까지 들먹이면서 침튀겨가면 극찬했던 이 정부의 치적에서의 백미는 원전수주를 한 12월 27을 매년 '원자력의 날'로 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의 의존도를 59%로 더욱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래서 노후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고, 9월 14일에 경상북도 영덕과 강원도 삼척에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지로 확정하여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바로잡습니다〉 지난 917호 오른쪽 동국대 사진은 '민노총 도시철도 노조' 관련 내용과 다른 사진으로 게재되었습니다.

WORLD BUDDHISM LEADER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과 연방승가회의
지원 아래 고승 및 원로 수행 일정을 종교성내
불교대학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께서
역시 그 분이라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심사 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 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연방승가회 스님들의
지도하에 종교성의 불교대학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고승 및 원로 큰스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 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 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 장관과 불교 수호 지도자협회 우킨쉐이의 박수와 격려속에 구족계 및 품수식도 함께 봉행합니다.
108분의 고승 및 중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종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최종 추대되신 큰스님 명단을 불교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공고합니다. (추대 의식 봉행일 추후 발표)

신청기간 : 2012년 12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 (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평등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구족계 수계자 전원 종교성 불교대학에 입소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수여.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일 시 :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팩스 02)733-5671

계율의 조문만 붙들고 있는 건 '계율' 모르는 것

⑨ 지계제일(持戒第一) 우바리 존자

〈하〉진정한 계율



〈거조암 우바리 나한상〉



그림 · 김홍인

부처님과 출가자 머리 깎으며
계율의 정수 듣고 또 들어
유마, "죄 · 마음 다 쏮해야 참다운 참회"
'지계제일' 1차 결집서 증명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의 십대제가 가운데 유일한 천민 출신이다. 이발사였던 우바리 존자는 출가 후에도 부처님과 비구들의 머리를 깎아주었다. 특히 우바리가 초심자들의 머리를 깎아 줄 때 부처님은 항상 율을 설했다. 그래서 우바리는 다른 성문들보다 특히 부처님의 계율을 많이 듣게 된다.

계율의 정수를 듣다

어느 때, 부처님이 우바리에게 물었다. "너는 계가 무엇인지 아느냐?" /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시키시는 대로 계를 지켰을 뿐,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앙굿따라 니까야〉 우바리경에서 부처님이 우바리 존자에게 말씀하신다. 본경에서 부처님이 우바리에게 설하는 법(계에 관한)은 '계율의 반야심경'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재가에 살면서 청정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그는 그와 같이 출가하여 비구들의 계목을 받아 지녀 그것과 더불어 생활한다." 부처님은 출가자의 청정범행을 비유하며 계율을 설명하셨다. "그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머문다. 그는 거짓말을 멀리 여읜다. 그는 중상 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의고 욕하는 말을 여읜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법을 말하고, 율을 말하며 가슴에 담아 둘만한 말을 한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멀리 여읜다.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읜다. 금과 은을 멀리 여읜다. 생고기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여자나 동녀를 받는 것을 여읜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는 것을 멀리 여읜다. 상해, 살해, 포갑,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읜다. 그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몸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필수품을 몸에 지니고 간다. 새가 어디를 날더라도 자기 양 날개를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몸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발우,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걸을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들 때도, 잠에서 깰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문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 없이 머문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문다.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우바리여, 내 제자들은 이러한 법을 역시 자신에게서 관찰하기 위해 아란야에 머무는 것이지 그들이 이상을 실현했다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우바리여, 와라. 그대는 승가에 머물라. 승가에 머물면 그대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랬다. 본경은 아란야에서 수행하고 싶어 하는 우바리에게 대중 속에 머물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실 때의 이야기다. 부처님은 그 때 우바리에게 계율의 정수들을 모두 말씀하신다. 이때 계율의 근간이 우바리에게 전해졌다.

유마의 가르침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다. 유마경은 유마 거사가 자신의 병고를 통해 탄생시킨 경전이다. 불법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의 잘못 된 안목을 바로잡아주고, 대승불교의 근본과 줄기들을 단단하게 챙겨주고 있다. 서슴없고 고칠 것 없는 그의 설법을 보면 누구나 '아!'라는 감탄사를 물게 된다. 앞선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거듭됐듯이 부처님의 십대제자들도 예외 없이 유마의 죽비를 받았다. 우바리 존자 역시 유마의 점검을 받는다. 경전의 시작 역시 유마의 '병문안'으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대가 유마에게 가서 문병하라." /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전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계율을 범한 두 비구가 감히 부처님께 여쭙지 못하고 저에게 와서 감히 부처님께 묻지 못하니 바라건대 의혹과 참회하는 법을 가르쳐서 이 허물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법대로 설했습니다." 두 비구는 수행자로서 가장 무거운 음행계와 살생계를 범했는데, 계율의 스승인 우바리를 찾아온 것이다. 우바리 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법대로, 비구로서 음행과 살인은 4바라이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통참회(不通懺悔)라고 설했다. 그 때 유마가 나타나서 우바리에게 말했다.

"우바리 존자여, 두 비구의 죄를 더 무겁게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곧 그들의 죄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죄의 본성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중생이 청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또한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그러한 것과 같이 죄의 더러움도 또한 그러하며, 모든 법이 또한 그러하여 진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바리 존자여, 망상이 더러움이요 망상이 없음이 청정함이며, 전도가 더러움이요 전도되지 않음이 청정함입니다. 나를 취함이 더러움이요 나를 취하지 않음이 청정함입니다. 우바리 존자여, 제법은 모두 허망한 것이라 꿈과 같고 불꽃과 같으며 물에 비친 달과 같으며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계율을 받드는 것이 되며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계율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 합니다."

유마의 설법은 그들을 불통참회로 벌한다면 그 두 비구는 이후로 그야말로 막행막식할 것이며,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몇 십 배의 죄를 지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의 소멸은 고사하고 그들을 저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는 것이다.

유마가 말하는 죄의 성품이란 안팎과 중간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마음의 더러움과 청정함에 따라 더럽기도 하고 청정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죄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곧 죄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마음이 소멸하면 죄 또한 없어진다는 것이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하여 두 가지가 다 공하면 이것이 참다운 참회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모두 잘못된 소견이며, 모든 법이 매 순간 변하는 것이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는 듯이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계율을 잘 받든다고 말할 수 있다고 유마는 말한다. 계율의 조문만 붙잡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법을 결에서 들은 두 비구는 유마를 찬탄하면서 모든 의혹을 끊고 참다운 참회를 할 수 있었다. 그 때의 일이 떠오른 우바리 존자는 다시 부끄러운 생각에 유마를 찾아가 문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율장의 결집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왕사성 칠엽굴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결집을 모셨다. 〈아육왕전〉, 〈십송율〉, 〈대지도론〉 등 경전에 의하면 가섭을 중심으로 500의 비구가 모여 법과 율을 결집했다고 되어 있는데, 법과 율 어느 것을 먼저 결집했는지 등 경전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법을 모은 경장의 결집은 아난 존자가 맡았고, 계율을 정리한 율장은 우바리 존자가 맡았다.

"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율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결집하시겠습니까?"

"율은 교단의 생명입니다. 계율이 있어야 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율을 먼저 결집해 주십시오."

"그럼, 율을 먼저 결집하겠습니다. 계율에 대한 저의 질문에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바리 존자가 계율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제자입니다. 우바리 존자께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섭 존자가 묻고 우바리 존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바라이(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으로, 비구는 살생, 음행, 절도, 망언의 네 가지가 있고, 비구니는 여기에 다른 넷을 더하여 여덟 가지가 있다. 이것을 범한 사문은 사문의 자격을 잃는다) 계율은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설한 것을 계기로 설해졌습니까?"

법상에 오른 우바리 존자는 가섭의 질문에 따라 율을 암송했다. 부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계율을 들을 수 있었던 우바리였다.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을 떠올리며 계율을 송출했다. 우바리 존자가 송출하고 대중들이 합송함으로써 〈대분별〉, 〈비구니분별〉, 〈건도품〉, 〈부수〉를 율장으로 확정지었고, 우바리 존자의 제자들이 계승하기로 결정했다. 율장의 결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 된다. 1차 결집은 부처님 열반 후 3개월 후에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보름까지 약 7개월 동안 합송을 진행했다.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듯이 계율은 수행을 하기 위한 몸과 같은 것이다. 수행자의 목숨인 것이다. 그 목숨 같은 말씀을 지켜준 이가 있어 우리는 수행자가 될 수도 깨달음을 발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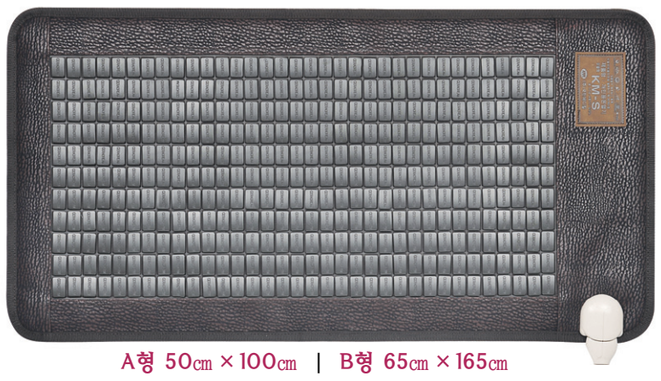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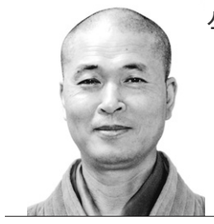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주처를 모르십니까

조주 스님이 어떤 행자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행자가 말했다.
"북원(北院)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저쪽은 여기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행자는 대답이 없었다. 스님은 그 옆에 서있던 학승에게 대신 대답하도록 시켰다. 그 학승은 대신하여 대답했다.
"저 사원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은 웃었다. 조주 스님은 문원에게 다시 또 대신 대답하도록 시켰다.
문원이 말했다.
"행자는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師問一行者 從什麼處來 云北院來 師云 那院何似者院行者無對 有僧在邊立 師令代行者語 僧代云 從那院來 師笑之 師又令文遠代之 文遠云 行者還是不取師語話

문원은 왜 "저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쪽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조주 스님이 좌주에게 물었다. "어떤 학업을 익히고 있나요?"
좌주가 말했다. "유마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유마경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도량이다' 라고 했는데 좌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좌주는 대답이 없었다. 스님은 전익(全益)에게 명하여 좌주를 대신하여 대답하게 했다.
전익이 말했다.
"다만 이 한 물음이야말로 도량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의 몸은 도량 속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빨리 말해보아라."
전익이 말했다.
"화상께서 학인의 마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
전익이 말했다. "다만 이 일문일답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심소(心所) 속에 있지 않아. 진리는 6근을 벗어나야 알게 돼."
전익이 말했다.
"이미 심소 속에 있지 않다 하시면서 화상께서 무엇을 찾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대답하지 못하니까 그래."
전익이 말했다. "진리는 6근을 벗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어찌 대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나의 침(唾)을 먹은 거야."

師問座主 所習何業 云講維摩經 師云 維摩經步步是道場 座主在什麼處 主無對 師令全益代座主語 全益云 只者一問可識道場麼 師云 你身在道場裡 心在什麼處 速道取云和尚不是覓學人心 師云是 云只者一問一答是什麼 師云 老僧不在心所裡 法過眼耳鼻舌身意而知解 云既不在心數裡 和尚爲什麼覓 師云 爲你道不得 云法過眼耳鼻舌身意而不解 作麼生道不得 師云 喫我涕唾

마음은 6근을 벗어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 존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선사와 대담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보여야 인정을 받는다. 논리에 치우치면 말은 맞으나 인정받을 수는 없다.

조주 스님이 또 수유 스님에게 갔다.
수유 스님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어찌 주처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디에 살 곳이라도 있는가?"
수유 스님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주처(住處)도 모르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30년이나 말을 타고 다루었는데 오늘은 당나귀에게 내동댕이질 당하고 말았군."

師又到茱萸 茱萸云 老老大大 何不覓箇住處去 師云 什麼處住得 茱萸云 老老大大 住處也不識 師云 三十年弄馬騎 今日卻被驢撲

노사라 해도 맞는 말에는 할 말이 없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43〉

오염된 마음, 항상 또는 때에 따라 일어난다

번뇌-⑦ 두 종류의 중수번뇌와 십 종류의 소수번뇌

수번뇌에는 전회에서 설명한 방일(放逸)·해태(懈怠)·불신(不信)·혼침(昏沈)·도거(掉擧)·실념(失念)·산란(散亂)·부정지(不正知)의 대수번뇌 8종류에 이어 2종류의 중수번뇌와 10종류의 소수번뇌(小隨煩惱)가 있다. 중수번뇌(中隨煩惱)는 무참(無慚)과 무괴(無愧)이고 소수번뇌는 분(忿)·한(恨)·뇌(惱)·복(覆)·광(誑)·첨(諂)·교(憍)·해(害)·질(嫉)·간(慳)이다. 이들 번뇌를 전부 합하면 수번뇌는 20종류가 된다.

이 중에 중수번뇌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 번뇌가 일어날 때 항상 따라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고, 소수번뇌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일어나는 번뇌를 말한다.

무참(無慚)과 무괴(無愧)는 근본번뇌가 일어날 때 항상 따라 일어나는 중수번뇌이다. 이 중에 무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상태이다. 무참의 참(慚)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고 수치스러워 하는 마음이다. 무참은 스스로 이러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무괴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상태이다. 객관적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올바른 지적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로 인해 죄를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소수번뇌에는 근본번뇌인 분노[瞋]와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세 종류의 번뇌가 있다. 그 중에 분(忿)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멀리하는 대상에 대해 화내는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인데 특히 폭력을 행사하게 될 정도의 매우 격한 마음의 분노를 말한다. 난폭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다음으로 한(恨)은 분에 이어서 일어나는 번뇌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작용을 말한다. 한을 품은 사람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사람은 평상심을 갖지 못해 항상 번민하는 생활을 보낸다. 그 다음 분과 한에 이어서 일어나는 번뇌가 뇌(惱)이다. 뇌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더해져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에 따라 상대를 더욱 오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번민하는 상태이다.

복(覆)은 글자 그대로 덮는 것을 의미한다. 불이익을 당하고 명예를 상실 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어 감추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고 슬퍼하게 된다.

광(誑) 또한 글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속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자신만의 이익과 명예, 세간의 평판을 얻기 위해 마음속에 계략을 감추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이다.

첨(諂)은 광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이익이나 세간의 평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마음이다. 다만 광이 계략적으로 남을 속이는 마음이라면 첨은 아첨을 통해 사람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은폐하려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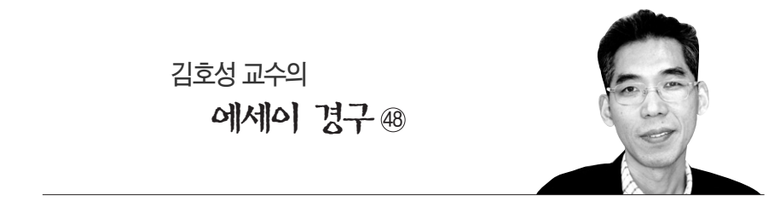
교(憍)는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외모나 행위 등에 도취되어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높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해(害)는 자비심이 없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마음상태이다. 말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질(嫉)은 질투하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뛰어난 점이나 영화를 질투한다.

간(慳)은 인색한 마음이다. 자신만의 이익을 희구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상태를 말한다. 재물이든 법이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모으고 배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㊽

부왕이시여! 우리의 혈통은 디팜카라, 콘단냐로부터 캇사파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혈통인 것입니다

〈인연이야기(니다나 카타)〉

함흥차사(咸興差使), 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 해도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터이다. 권력이라는, 지상 최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었으니 오죽했으랴. 아들이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아버지인 상왕(上王) 역시 나름의 권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니 아들로서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마음을 돌려보려고 사신을 함흥으로 보냈으나, 가는 족족 돌아오지 않았기에 생긴 속담이다.

다소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부처님과 그 부왕 슛도다나(淨飯王)사이에도 있었다. 아들은 부처님이 되었다 해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던 모양이다. 인지상정이리라. 한번 보고 싶었다. 신하들을 보내서, 고향방문을 넌지시 종용해 보라 했다. 그러나 가는 족족 돌아올 줄 모른다. 모두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는 부처님 곁에 눌러앉고 말았다.

이 중차대한 임무를 짊어지고 출발하는 마지막 사자의 이름이 카루다이였다. 떠나기 전, 왕으로부터 약속을 하나 받아낸다. "만약 제가 출가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쯤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오매불망 하던 아들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카루다이는 가자마자 두말 않고 출가를 한다. 그리고서는 한 7·8개월이 지난 뒤, 넌지시 부처님께 '고향방문'을 권청(勸請)한다. 이때 카루다이는 웃다이라는 법명(法名)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웃다이여, 그대는 대체 무슨 까닭으로 달콤한 말을 하며 내게 돌아갈 것을 권하는가?"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그대의 아버지인 슛도다나 대왕이 만나고 싶어하옵니다. 친족들을 만나주소서."

이리하여 마침내 부처님은 고향 카필라를 방문키로 한다. 당시 함께 간 대중이 2만명. 문제는 이 2만명을 먹이는 일일 것이다. 당연히 아버지이신 슛도다나 왕이 '한 턱'을 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던가? "과거의 부처님들은 어떻게 고향에서 탁발을 하셨을까? 멀리에까지 권력자의 집으로 가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밟아 집집마다 탁발하러 돌아다니셨을까?"

결론은 "나도 이제 그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밟아야 겠다"는 것이었다. 그 전통과 관습은 곧 탁발 걸식이었다. 한편, 아버지 왕은 모처럼 만나게 될 아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나름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을 터인데, 들려오는 소문에 탁발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우리의 혈통을 지닌 이들 중에 걸식을 한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왕이시여! 우리의 혈통은 디팜카라, 콘단냐로부터 캇사파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혈통인 것입니다."



그림 · 박구원

그 혈통에서는 걸식으로 생명을 유지하셨다는 이야기다. 세속을 떠난 부처님의 입장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석가모니불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다. 다른 경전에는 디팜카라(燃燈佛)로부터 가섭불(迦葉佛)까지, 과거에 7불이 존재했다 한다. 그 일곱 번째가 바로 석가모니불 당신이시다.

이는 신화라 할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불교의 진리는 붓다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부처님 이전에 진리(法)가 먼저 있었고 부처님은 그 진리의 발견자라는 것을 보다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 나름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 역사가 아니라 해서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미령 옮김,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민족사, pp.182-189.참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나의 서원 나의 신행 〈22〉

노인 · 아동 · 장애인 복지시설 68곳

'연꽃마을' 일구는 각현 스님 국제연꽃마을 회장



각현 스님은 … 1944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196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대구 동화사 강원에서 공부했고, 1974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홍콩 중문대학 중문학부를 수료했으며 동국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의왕 청계사 주지, 홍콩 홍법원장, 법주사 부주지를 지냈다. 1990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에 취임해 현재까지 법인을 이끌며 복지 불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조계종 11대 중앙종회의원, 청주불교방송사장, 용인요양원 원장, 한국 노인문화진흥회 공동회장, 법보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2011년 12월 출범한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직을 맡고 있다.

"나의 부모 형제는 버렸지만, 더 많은 이웃의 부모 형제를 만났으며, 산사의 솔바람 소리는 뒤로 했지만,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겹고, 대강백의 꿈은 접었지만 본지풍광(本地風光) 드러내며 얽히고설키고 사는 맛으로 위안하려하나 허허로운 마음을 떨치지 못하니, 오호라, 숙세의 업연을 어찌 탓하겠습니까?" 스물넷에 불가에 귀의한 스님은 20년 넘게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 더 많은 이웃의 부모형제를 위해 살고 있다. 1990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법인을 이끌면서, 한국 불교계 복지의 지평을 넓혀온 각현 스님이다.

이제 그의 불명은 '복지'라는 배접지에 단단히 배접되어 있어서 그의 이름과 얼굴은 '복지'와 함께 떠오른다. 하지만 숙세의 업연이라고 한 허허로운 그 마음 또한 새롭게 스님의 이름 위에 배접된다. 그랬다.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보게 된 스님 저서의 서문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스님의 긴 그림자를 본다. 20년 이라는 세월이 이제는 제법 긴 그림자를 만든 것이다.

이어지는 서문에서 그 아쉬운 마음을 본다. "마음의 고향은 산사(山寺)이며, 안심입명(安心立命)은 소승의 삶의 목표입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경(經) 읽는 소리가 정겹고, 면벽구도의 수도자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일찍이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를 꿈꾸기도 했고, 옛 선사들의 행적을 흉내 내고도 싶었습니다." 법의(法衣)를 입은 사문으로 어찌 솔바람 부는 호젓한 산사의 정취와 '저쪽'이 보이는 선방의 좌복 맛을 모를까. 스님의 복지 20년은 그렇게 한 사문이 사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얻은 열매다. 스님은 "하고 싶은 일은 원력(願力)이고, 해야 할 일은 업력(業力)이다."며 걸어 온 길과 아쉬움을 갈무리한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스님의 복지 서원을 원력이라 해야 할까 업력이라 해야 할까. 스님을 만나러 간다.

원력의 시작

1978년 청계사 주지로 재직할 때였다. 스님은 돌연 홍콩 유학길에 오른다. 스님은 새로운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꼈고, 결심한 것이 유학이었다. 스님은 중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홍콩 중문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스님이 공부를 마칠 때쯤 스님에게 남은 것은 중국어가 아니라 '복지'였다. 홍콩의 복지를 보게 된 것이다. 사찰 속의 복지를 보게 된 것이다. 사찰 대부분이 복지시설과 함께 하고 있었다. 복지를 통한 포교였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교'라는 생각이 스님의 가슴과 머리를 흔들고 때렸다. 복지는 자비의 또 다른 말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홍콩의 불교와 복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돌아온 스님은 '생활불교'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보았다. 1982년 귀국한 스님은 1984년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에 본격적으로 복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난 스님은 고민했다. 산으로 갈 것인가. 대중속으로 갈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인연

스님이 20년 넘게 몸담게 되는 '연꽃마을'은 스님이 이사장에 취임하기 1년 전인 1989년,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스님이 설립한다. 인연은 그랬다. 각현 스님이 복지를 공부하는 동안 성수 스님은 연꽃마을을 만들고 있었다. 성수 스님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이 나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람되고 존경받는 노년과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설립됐으며, 설립자이며 초대 이사장인 성수 스님은 이를 통해 '효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법인을 설립한지 1년이 되어 갈 무렵이었다. 법인은 설립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연꽃마을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수 스님은 연꽃마을을 이끌어 갈 사람을 하루 빨리 찾아야 했다. 백방으로 사람을 찾던 차에 각현 스님에 대해 알게 됐고, 성수 스님은 법주사로 사람을 보낸다. 각현 스님은 당황스러웠다.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실무 경험이 전혀 없었던 스님에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이고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사장에 취임에 첫 사업으로 양로원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복지'와의 첫 인연이 너무도 큰 불사였기에 스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저 힘든 청동미륵대불 불사도 해냈으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수 스님

홍콩 사찰 속의 복지 보고 복지 눈떠
1993년 교계 첫 용인 무료 양로원 완공
베트남에 한국형 복지타운 추진
원력과 업력 이제 경계 두지 않아

은 각현 스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결국 각현 스님은 성수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1990년 8월 각현 스님은 연꽃마을 2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하지만 막막했다. 기반은 너무나 열악했다. 당시 양로원이라 하면 전국에 손에 꼽을 정도 밖에 없을 때였다. 더욱이 불교계의 노인복지분야는 비교할 것 자체가 없었다. 복지라는 큰 틀도 문제였지만 당장 양로원 하나를 지어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1000원의 힘

스님은 차분히 처음부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양로원을 지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자금이었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때 스님이 생각해낸 것이 '캠페인'이었다. 스님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불자들의 성금으로 무료양로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료양로원 건립 모연문'과 함께 '연꽃마을 후원 신청서'를 들고 법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신청서에는 '마을마다 연꽃마을, 마음마다 연꽃마음'이라고 적혀있었고, 매월 1000원의 후원금을 부탁했다. 3개월 만에 1만 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교계에서 양로원 건립불사를 해본 적이 없던 당시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사장 취임 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듬해 5월 후원회원은 1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1993년 드디어 불교계 최초의 무료양로원이 완공됐다. 용인양로원이다. 불자들의 순수한 성금으로만 지어진 양로원이었다.

보시는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님은 복지의 꽃은 자원봉사라고 생각했다. 보시는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고 나눔이라고 생각했다. 스님은 1999년부터 자원봉사를 모집하기 시작한다. 현재 연꽃마을이 확보한 자원봉사자는 2만에 달한다.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면 언제든지 달려온다.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했고, 봉사 시간에 따라 많은 혜택을 부여한 결과 연꽃마을의 자원봉사자는 이제 연꽃마을의 사업을 극대화 시키는 원동력이다. 스님은 불교의 '보시정신'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나눔의식'으로 확대되길 바랐다. 그리고 이런 나눔의식의 확산과 더불어 스님은 성수 스님의 원력이기도 했던 '효 사회화 운동'을 이어가고자 했다. 스님은 복지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이 없는 나눔과 복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생각했다. 효의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노인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정신적인 공허함을 채워주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연꽃마을

그렇게 '1000원'에서 시작한 스님은 연꽃마을을 현재 파라밀요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 5곳, 파라밀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재가노인복지시설 21곳,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관 8곳, 성동구립 금일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7곳, 연꽃경로식당을 비롯한 경로식당 11곳, 노인의 집 1곳, 파라밀양한방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 8곳, 중증장애인요양원을 비롯한 장애인시설 2곳, 송파푸드마케 등 기타사업 5곳 모두 68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최대의 사회복지재단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그곳에는 1천 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연꽃마을을 거쳐 간 이웃은 이제 헤아릴 수 없다.

"무척이나 지루한 세월이었습니다. 앙상한 회색빛 골조만 쳐다보고 지난 세월이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올려다 볼 때마다 자괴심으로 제 자신을 많이도 탓했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줄 주도 모르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더욱 할 줄 모르는 못난 사람이, 의욕만 앞세운 결과가 한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2008년 파라밀병원을 개원하며 밝혔던 스님의 소회다. 20년을 지나오는 동안 힘든 순간이 파라밀병원뿐이었을까. 쉽지 않은 재원마련, 커져가는 법인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들, 사회전반에 부족한 복지 마인드 등으로 그야말로 '복지'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지금의 스님과 '연꽃마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손길, 연꽃마을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했던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닐 움막집에서 중풍과 싸워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할머니, 명절만 돌아오면 외손자가 보고 싶다며 성치 않는 다리로 문 밖만 서성이던 할아버지, 말 할 수 없는 아이, 듣지 못하는 아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 씻겨드려야 하는 어르신, 먹여드려야 하는 어르신.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 연꽃마을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커져야 했다. 움막집에 사시다 양로원으로 옮긴 중풍 할머니는 양로원에 오신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직원도 울고, 자원봉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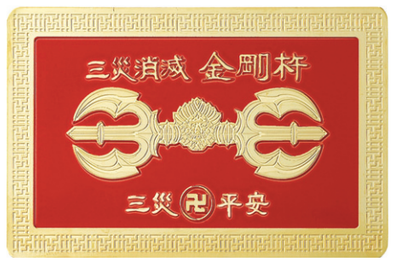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영혼의 안정이 진정한 복지”



1993년 설립된 용인 양로원이 2010년 용인노인전문요양원으로 다시 개원했다.



각현 스님은 2008년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2008년 개원한 파라밀요양병원


12월 12일 기공식을 갖는 베트남 ‘세종학당’ 조감도

사자도 울고, 지린내 난다고 그렇게 싫어하던 할머니들도 울었다. 스님의 책 서문 뒤에 이어지는 사연들 속엔 스님과 연꽃마을이 받아낸 아픔과 함께 나눈 눈물이 끝없이 이어졌다. 멀리 2008년에 힘겹게 완공되었던 파라밀병원이 보였다. 책을 덮고 스님을 만난다.

해외로 영역을 넓히다

경기도 안성 파라밀병원. 투명한 출입문 안으로 스님이 보였다. 앉자마자 스님은 두툼한 자료가 든 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베트남에 한국형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하자” 대 봉투 속에서 꺼낸 8쪽짜리 안내 책자 표지다. 그리고 그 제목 밑엔 ‘베트남 쾅남성 세종학당 조감도’가 그려져 있다. 작성자는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다. 각현 스님은 베트남 쾅남성 팀키시로부터 2만평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한국형 종합복지타운 ‘베트남 연꽃마을’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각현 스님은 2005년부터 베트남 쾅남성 교육위원회에 매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2011년 쾅남성장이 고마움의 표시로 스님에게 감사장과 함께 부지를 기증하면서, 복지시설이 열악한 베트남에 한국형 사회복지 시설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사업을 위해 (사)국제연꽃마을을 설립했다. 베트남 사업만을 전제로 한 법인이다. 스님의 복지사업은 이제 해외로 영역을 넓혔다.

탐키시에서 기증한 2만평의 부지에는 교육시설인 세종학당을 시작으로 직업훈련원, 연수원, 보육시설, 노인요양원, 병원, 재활시설 등이 세워질 예정이며, 그 중 1차 사업으로 올 12월 12일 세종학당 기공식을 갖는다. 대지 1100평에 6동으로 세워지는 세종학당은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지는 ‘한국어 전문 학당’이다. 교육 후에는 현지 한국기업 취업 및 한국 방문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양국 문화교류와 쾅남성 지역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님은 이번 사업에도 정부 보조금 없이 후원 회원, 베트남 현지기업 협찬, 월남 참전 전우회, 국제연꽃마을 회비, 국내기업 협찬 등 순수한 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현 스님은 “월남전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빈선현 빈호아사에 세워진 ‘한국군 증오비’를 보고 파병국의 국민으로서, 불제자로서 아픈 역사의 인연을 모른 채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업은 양국 친선도모, 한국문화 전파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와 해원(解寃)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제연꽃마을은 전쟁의 피해로 장애를 입은 쾅남성 시민을 대상으로 의수족보장구 지원사업과 안면기형자 수술 지원, 고엽제 피해자 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스님의 복지관(福祉觀)

“지난 시절의 사회복지는 ‘구휼’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영혼의 안정’입니다.” 20년 넘게 복지 현장에서 얻은 스님의 복지관이다. 스님은 그것을 ‘종교적 사회복지’라고 말했다. 당장 입에 넣을 밥 한 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시대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치유가 모두 필요해진 것이다. 아울러 종교가, 불교가 하는 복지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제 100세를 사는 세상이다. 고(苦)의 시간도 그만큼 많아졌다. 영혼을 돌봐야 한다는 스님의 복지관은 10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라는 생각이다. 그 옛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극락정토가 있다고 했다. 스님은 그 10만억 국토를 열심히 지나고 있었다.

스님의 서원은?

“스님 저서의 서문에서 사문으로서의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서문에서 말씀하신, 하고 싶은 일, ‘원력’은 언제 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원력(하고 싶은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지요?”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사문으로서 그리움이고 아쉬움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산 속에서 수행하는 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수행자와 실천자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서원을 했다면 원력이든 업력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스님의 서원은 원력인 동시에 업력이었다.

스님을 뵙고 나오는 길에 다시 스님의 책에 눈이 갔다. 서문 끝을 읽는다. “내가 베푼 작은 사랑 때문에, 내가 만든 작은 시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가슴에 안고 업파(業波)에 넘실대며 살겠습니다. 소승은 오늘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마음의 방랑자가 되어 노인복지 현장을 맴돕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스 팩 쌓 기



동국대 명예교수

제철에 나지 않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던가. 아마 제철이 아닐 경우 혹여 배탈이라도 날까 두려워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곡식이나 과일 따위가 제철보다 일찍 익을 경우 올되다고 한다. 올된 벼도 있고 올된 과일도 부지기로 생산되는 세상이다. 들판이 온통 생광목을 펼쳐 놓은 듯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를 지나노라면 계절도 바꾸어 놓은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 실감하게 된다. 초등학생에게 딸기가 언제 나오는지 물으면 지체 없이 ‘겨울에요’라고 대답한다고 하던가. 농촌에서는 농한기란 말도 옛말이 된 듯 하다. 농부의 일손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 소비자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그 자식들은 부모님이 마련해준 학비를 들고 도시로 몰려든다.

스팩쌓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스팩이란 general의 반대 개념으로 specification의 준말이다. 스팩쌓기는 세태를 반영한 말이다. 취업하기가 어렵다보니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학력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교를 4년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다. 5학년이란 말을 하기도 한다. 적지 아니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토익점수를 높이기도 하고 회화를 배워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취업면접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시대회에 나아가 상장을 받아 두기도 한다.

사회봉사 활동 경력 쌓기를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쌓기가 대세인 세상이다. 무엇을 쌓는다는 것은 임시변통이 아니라 항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허상일 수 있다.

산행 길에 눈여겨 두었던 소나무가 있다. 유독 소나무에 눈길이 가는 것은 왜일까. 선비의 곧은 뜻과 굳건한 마음의 상징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의 일생을 보면 소나무 집에서 낳고 소나무를 보고 자라 소나무 송판에 싸여 마지막 길을 간다. 그 나무는 무릎 높이 때부터 손질을 해 주었다. 이제 제법 어른 한 길 넘게 자랐다. 지난 태풍에 와선이라도 할 양으로 눕고 말았다. 일행과 나무를 세워 놓고 주변 흙을 모아 북돋우고 돌도 가져다 단두리를 하였다.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가 수직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식물의 한 살이에서도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다. 밑바탕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 삶은 단명할 뿐이다. 그러나 더딘 듯 해도 바탕이 견고하면 하늘로 솟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 하다. 옆에 나무가 쑥쑥 자란다고 샘이나 처지나 환경을 망각하고 경쟁 대열에 뛰어들면 십중팔구는 자신을 망치고 마는 것이다. 바위의 틈을 헤집고 성장하는 그 갸륵함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나무의 나뭇결은 나이테로 인하여 생긴 무늬다. 여름에 성장한 나이테의 경우 테의 폭이 여유가 있다. 반면에 가을이나 겨울을 지난 폭은 조밀하다. 나무의 슬기가 넘친다.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스스로 분배를 터득한다. 조밀한 폭은 뿌리나 가지에 양보하는 깊은 배려가 따른 것이다. 우리가 나이테의 무늬에서 넓은 폭 보다 좁은 폭에 눈길이 머무는 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인고의 침묵 때문이라고 본다. 목재 건축물의 견고성은 인고의 인자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계절의 순환법칙에 거역하지 않고 성장해 가는 나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한 해, 두 해의 투자로 뭐 하나 쉽게 이루어질게 없다는 것이다. 일생을 투자한다 해도 성취가 안 되는 일이 많기도 한데. 남이 하는 방식대로 하다보면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진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얼마나 더디고 어렵겠는가. 누구하나 걸어 간 자국이 없으니. 그래도 그 길 없는 길을 갈 때 드디어 길이 보이고 전망이 있는 것이다.

언론에 연일 보도 되고 있는 기사가 있다. 황금에 노예가 되어 버린 검사, 색욕에 이성을 잃은 검사, 제 살붙이에게 일거리를 넘겨주는 얌치없는 검사. 그들이 주장했던 정의의 척도는 실종되고 매몰된 지 오래된 듯 하다. 그들의 안

대학생들 어학점수 높이기만 매진
자신의 색깔 드러내는 청춘 되길

경도 무용지물이다. 안경은 사안이나 사물을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 기능은 사라지고 어찌 청맹과니가 되었는가.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그 미치는 파급은 훨씬 크다. 학문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출세의 수단 정도로 여긴데서 연유된 일들이다.

학문을 그렇게 연마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상실된 이성을 찾고 윤택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학문의 도구화 내지 세속화야말로 누구나 경계해야 할 일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한다. 어느 철학자에게, “당신은 철학을 해서 무엇을 터득했습니까?” 그러자 철학자는 대답했다. “그저 한 가지 … 어느 누구를 만나도 아무 두려움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묻고 싶다.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대학의 낭만보다 어학점수 높이기에 시간이 다 갔다고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취업이 현실이니까. 그러나 내가 듣고자 하는 낭랑한 음성이 있다. “신의와 정직 그리고 변질되지 않은 우정.” 신의를 저버리면 불신이 만연하기 마련이다. 정직이 매몰되면 위선이 활개를 친다. 우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될 터. 세존은 진어자 · 실어자 · 여어자 · 불광어자 · 불이어자라고 했다. 스팩쌓기의 젊은이들이여. 나는 누구라고 색깔을 드러내 보아라.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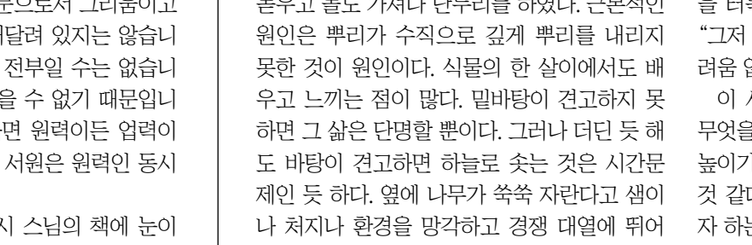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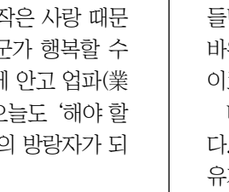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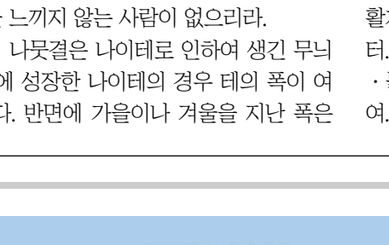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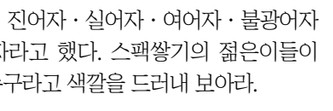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왕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日 스님들, 시애틀서 반핵 단식 법회 열어

센지 카네다 스님 등 …
산오노프레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



반핵 단식 법회를 하고 있는 일본 불교계 스님들(좌). 단식 법회에는 캘리포니아의 저명한 환경운동가와 개신교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불교계 스님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에서 반핵 단식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산클레멘테타임즈(SCTimes) 지는 6일 "시애틀 묘호지(Myohoji) 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 6명이 캘리포니아 연안 도시 산클레멘테(San Clemente)를 방문해 천막 법당을 세우고, '산오노프레(San Onofre) 핵발전소 재가동'에 항의하는 단식 법회를 6일째 봉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오노프레 핵발전소는 지난 1969년 해안가 근처에 세워진 것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가장 우려되는 핵발전소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쓰나미 피해는 물론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핵발전소의 운영 중단이나 즉각적인 폐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묘호지사 스님들을 반핵 현장으로 이끈 센지 카네다(Senji Kanaeda) 스님은 "우리의 서원은 간단명료"하다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연안에 세워진 핵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센지 카네다 스님은 "모든 생명은 그것의 가치나 평가를 떠나, 그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단식 법회는 핵에너지를 활용하다가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쓰러지는 아픔을 맛보게 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세대위해 의무 다해야"
개신교 주민들까지 운동 참여

산클레멘테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단식 법회에는 캘리포니아의 저명한 환경운동가 게리 헤드릭(Gary Headrick · San Clemente Green 대표)도 참여해, 지역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역 주민들 대부분 개신교도이지만, 종교를 떠나 스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리 헤드릭 대표는 "핵발전소를 없애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 안전한 녹색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이 깨어야 한다"며 "이번 단식 법회를 계기로 산클레멘테 녹색연합은 지역 주민의 힘을 모으는 한편 종교간 연대도 모색해, 이 지역에서 핵발전소를 없애는 데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센지 카네다 스님은 "모든 핵 시설은 정치계와 산업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불교계 스님들이 나서서 '일본 원전 사고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면,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스님의 일행은 산클레멘테 단식 법회에 이어 캘리포니아 카운티 중의 하나인 산루이스오비스포(San Luis Obispo)도 방문해 단식 법회를 봉행하고, 이 지역에 세워진 디아블로 케년(Diablo Canyon) 핵발전소의 위험도 경고할 예정이다.

한편 산클레멘테 시의회는 최근 산오노프레 핵발전소 운영사인 서던캘리포니아 에디슨(SEC) 사로부터 핵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는 진단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재가동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 측은 "산오노프레 핵발전소는 일본 지진과 같은 강력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반핵 여론은 만만치 않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노후 시설에서 방사성 증기 누출이 감지되는 등 위험요소가 잔존해 있는 만큼 재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22년까지 운영되기로 한 핵발전소이지만, 운영 중단이나 즉각적인 폐쇄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산오노프레 핵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2200MW에 달한다. 이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하루 전력 사용량의 20%인 1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오종욱 편집위원

시카고, 불상설치로 범죄율 낮춰

작가 인디라 존슨, "내년까지 100개 설치할 것"



시카고에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는 50개의 불상(佛像)이 설치됐으며 2013년 봄까지 50개가 더 설치된다(좌). 유리섬유와 합성수지로 불두(佛頭)를 제작해 지역 곳곳에 설치한 인디라 존슨(Indira Johnson) 작가.

부처님 조각을 공원과 번화가 거리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평화를 추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화제다.

바로 '만(萬)개의 메아리(Ten Thousand Ripples, 이하 TTR)' 프로젝트다.

TTR 프로젝트는 미국 시카고 10개 지역과 지역 내 수십 개의 사회단체와 협력해 평화적인 세계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유리섬유와 합성수지로 불두(佛頭)를 제작해 지역 곳곳에 설치한 인디라 존슨(Indira Johnson) 작가가 있다.

"만개의 메아리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이미지를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지역과 삶속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50개의 불두가 지난 가을 알바니 공원, 로저스 공원 등 5개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아티스트이자 비폭력 · 평화교육자인 인디라 존슨 씨는 시카고 예술대(SAIC)에서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주지사 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휩쓴 유명작가다.

인디라 존슨에 따르면 TTR 프로젝트는 현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비폭력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예술을 촉매제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TTR은 2013년 50개의 조각을 어번 그리샴(Auburn Gresham), 에반스톤(Evanston) 등 5개 지역에 설치하며, 오는 7월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 박물관에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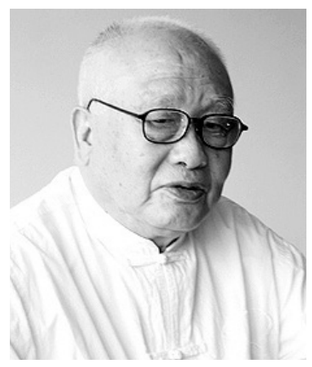
문맹 퇴치와 예술을 통해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단체인 체인징 월드(Changing World)의 마크 로드리게즈 이사는 "TTR은 도시에서 급증하는 폭력과 살인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 등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부처님 조각을 보고 일시적으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TTR프로젝트는 인디라 존슨 작가와 체인징 월드 및 지역 커뮤니티들과 연계해 시카고 지역에 교육 및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에반스톤 아트센터, 로욜라 메리대학,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등에서 미술 산책과 워크샵 및 파티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화를 이끌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선종사 정립한 대표 불교사학자

세계의 불교학자(43)

양증문 中 사회과학원 교수



양증문(楊曾文 · 73)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는 〈육조단경(六朝檀經)〉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연구 업적은 중국, 한국, 일본 뿐 아니라 서양의 선종 연구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양증문 교수는 1939년 산동성(山東省) 즉묵현(即墨縣)에서 태어나 북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후 북경대 역사학과에 입학해 중국고대사를 공부했다. 불교학의 대가로 알려진 양 교수지만 그가 처음부터 불교연구에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국고대의 진한사(秦漢史)에 심취해 전공을 살려 중국정치사상사(中國政治思想史)를 연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권고로 저명한 불교학자인 탕용동 선생의 연구생이 돼 불교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 교수는 문화대혁명의 시기에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종교연구소(宗教研究所)로 분배(分配, 국가에서 직장을 결정해 줌)가 됐다.

중국 북경에 위치한 중국사회과학원은 언어 · 종교 · 고고학 등 30여 개 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불교 연구실이 속한 세계종교연구소도 그 중의 하나로 1964년에 문을 열었다.

세계종교연구소는 현재 80여 명의 연구원이 각각 불교 · 기독교 · 이슬람교 · 도교 · 종교원리 등의 연구실에서 활동 중이며, '세계종교연구', '세계종교문화' 등의 편집부를 가지고 있다. 양증문 교수는 현재까지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열기가 주춤할 때 양증문 교수는 황심천(黃心川) 선생으로부터 무라카미 센쇼(村上專精) 선생의 〈일본불교사강(日本佛教史綱)〉을 중국어로 번역할 것을 제의받고 작업에 착수했다.

양 교수는 2년의 시간을 들여 번역하는 동안 수많은 불경과 중국 · 일본의 연구업적을 열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수확은 불교연구의 평생 양식이 됐다"고 할 정도로 번역과정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곱씹으며 긴 사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양 교수는 일본 불교에 관심을 가졌고 지속적으로 일본 불교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과 일본 학계에 중국인 일본불교 전문가라는 평을 들으며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들과 교류하며 불교방면의 중 · 일교류에 대한 정리를 했다.

그러다 양증문 교수는 점차 관심을 일본불교에서 중국선종으로 돌리기 시작해 중국 선종사를 주된 연구범위로 삼았다.

양증문 교수는 철학과 역사, 그리고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다각

중국뿐 아니라 외국학자들에게도 호평을 얻었다.

그의 다각적 연구방법은 1998년 〈나의 불교연구〉라는 글에 잘 나타나나 있다.

"개인적으로 선진제자백가(先秦諸子百家)의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다. 이는 후일에 불교 연구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는 항상 불교사 연구에 중점을 뒀는데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1차 자료 및 불교사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수집해 자세히 고증했다.

〈당오대선종사(唐五代禪宗史)〉를 쓰면서, 전통적인 선종 자료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정사(正史)를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돈황의 자료 비문 지방지(地方誌) 등을 적극 활용했다. 또 연구를 진행할때는 각각의 주제를 당시의 특정한 역사 환경에 놓고 당시 역사의 상황 사건 및 당시 문화

육조단경 · 중국 선종 연구 대가
〈불교사〉통해 한국불교 소개
중 · 일 불교 연구, 日불교 체계화

계 사상계의 흐름 등과 연결 지어 객관적인 고찰을 통해 가능한 한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양증문 교수는 임계유(任繼愈) 선생의 책임 하에 편찬된 〈불교사(佛教史)〉(중국사회과학출판사 刊) 중 일본에 관련된 부분과 한국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양증문 선생이 집필할 정도로 중국 · 일본 불교 뿐 아니라 한국불교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중국 사전에서 한국 불교에 관련된 서술 중 상당수가 양 선생의 작업에 의한 것이다. 그만큼 한국불교를 중국에 알리는데에도 적지 않은 공로가 있다.

양 교수는 국내에도 익히 소개된 〈교감돈황신본육조단경〉(1993)을 비롯해 〈중일문화교류사대계-종교권〉(1996), 〈당오대선종사〉(1999) 등 80여 편의 학술논문과 30여 편의 역서가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업적이 있으며, 현재 북경대 철학과 루우열 교수 등과 함께 중국 학계를 이끄는 대표적인 불교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극 락 사

템플스테이 안내

1. 초급 중급 고급 기도 법 배우기
2. 자비명상, 마음치유명상, 행복명상,성격개조 명상, 임종명상, 걷기명상
3. 위파사나 : 사념처 관법, 五정심 관법
4. 간화선 = 선정삼매와 간화선 수행
5. 단전호흡, 도인체조, 향공 , 오금희, 육단금 ..대안기공, 태극권 등...
6. 단기 출가(2박 3일 ~ 6박 7일까지)

수월스님의 BTN 불교 TV 강좌 안내

1. 월요일 17:00 2. 금요일 08:00 3. 일요일 23:00



02)434-1717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73-10번지 극락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선사(禪師)인가 율사(律師)인가

자장 율사 영정


자장 율사의 영정

속가 시절 서울서 통역일을 하면서 여가를 이용해서 부산구경을 하러 몇 번 다닌 적이 있었다. 경주를 지나 언양 쪽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데 양산 통도사가 있는 곳에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 까지 높이 걸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왜 그런 이상한 기운이 있는가를 궁금해 하면서 통도사에 가서 지금 성보박물관 있는 곳을 지나 반월교를 보면서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거쳐 걸었다. 낡고 오랜 웅장하고 아름다운 절을 이리 저리 보고 걸으며 금강계단을 참배한 적이 있다.

다른 절들은 모두 큰 법당에 부처님과 협시보살들을 모시는데,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단은 있으되 좌대도 없고, 불상도 없다. 그 이유는 뒤에 위치한 금강계단에 자장 율사(慈藏律師)께서 중국 유학중에 친견한 문수보살님이 주신 부처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영정은 참선 모습 인상적
出世해 중생제도해 주길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 자장 율사께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자신의 집과 논밭을 바쳐 원녕사란 절을 세웠으며, 홀로 깊은 산에 들어가 고골관(枯骨觀, 시체가 썩어서 백골이 되는 모습을 보며 무상과 공함을 깨쳐 탐욕을 제거하는 수행법)을 닦았다 한다.

그러다가 선덕여왕 5년(636년)에 왕명으로 10여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당나라 청량산에 가서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드리다 친견한 후 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여 과(果), 불두골(佛頭骨)과 손가락 뼈, 염주와 경전 등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중국 남산 율종의 종주인 도선(道宣)율사를 모시고 종남산 운제사에서 3년 동안 수행한 뒤, 선덕여왕 12년(643년)에 대장경 일부와 번당(깃발), 화개(꽃장식 가리개)등을 가지고 귀국하여 선덕여왕과 함께 통도사를 창건한다.

자장 율사의 스승 도선율사의 일화는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많은데, 출가한 후 한 번은 보함을 머리에 이고 탑을 돌면서 참선하였는데, 함속에 사리가 생기게 해 달라고 발원했더니 7일 만에 사리가 생겨났다. 이 때부터 더욱 뜻을 다지고 하루 한끼만 먹고 자지않고 선정에 들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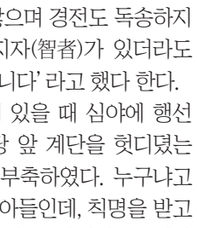
또 반주삼매(般舟三昧)를 닦는데, 천룡이 내려와 시봉하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자 흰 샘이 솟고, 지초(芝草)가 나기도 했다.

또 도선율사께서 과로로 병이 나시자 천왕이 보심약을 주면서 말하기를 '지금은 상법(像法)시대의 말기라 악성(惡性) 비구들이 절만 거창하게 짓고, 좌선의 지혜는 닦지 않으며 경전도 독송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자(智者)가 있더라도 천에 한둘 정도입니다' 라고 했다 한다.

그 후 서명사에 있을 때 심야에 행선(行禪)하다가 법당 앞 계단을 헛디뎠는데, 누군가 발을 부축하였다. 누구냐고 물으니 북천왕의 아들인데, 칙명을 받고 모시게 되었다 하니, 율사께서는 '태자께서는 제 수행 때문에 번거로이 따를 필요가 없다' 하였다.

그러자 북천태자는 길이 세 치, 넓이 한 치 되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주면서 잘 간직하라고 하며 사라졌다. 율사께서는 천신(天神)과 자주 만나 신령스러운 자취나 성스러운 일에 듣는 것을 즐기셨다고 하며 기록하여 〈감통전기〉라는 책을 쓰셨다 한다.

자장 율사의 이 영정은 특이하게도 좌정한 선방 수좌스님의 자세이다. 스승인 도선율사에게서 율장만 배운 것이 아니라 참선하는 것도 배우셨을 것이 분명한 분을 율사라는 이름으로 한정할 수 없다. 큰스님께 간곡하게 출세(出世)하여 중생을 제도해 주시기를 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명상 미술을 만나 힐링이 되다

'드로잉 힐링 서클'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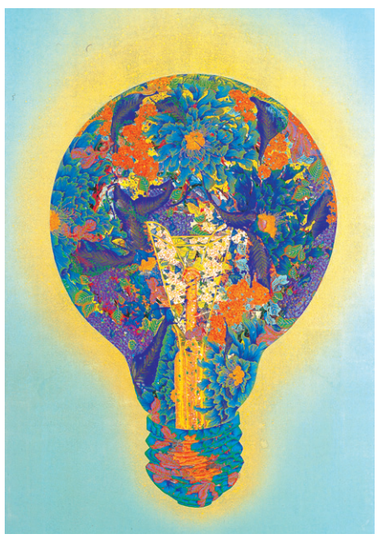
명상과 미술이 만나 힐링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동양화가 안진의 작가와 사회적 기업 대추씨가 함께 펼치는 '드로잉 힐링 서클' 은 관람객이 표현 예술가가 되어보는 새로운 차원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종로구 원서동 아트스페이스H에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안진의 작가의 '황홀한 장관(壯觀), 빛 나오르는 꽃의 몸짓' 개인전과 (주)대추씨의 명상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심신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다.

'드로잉힐링서클' 은 그림 관람-소감나누기 및 토론-스트레칭-춤명상-명상-자기만의 만다라 그리기 순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추씨 대표 권민희 씨는 드로잉힐링써클은 심신을 치유하는 공동체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공유와 소통을 테마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관람객이 단순히 관람의 객체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콜라보레이션(공동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을 생활문화로 접근하고자 했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공동체 프로그램이 드로잉힐링서클입니다"

안진의 작가 역시 갤러리 공간을 제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2008년도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특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과 가족들이 큰 위로를 얻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밝아지더군요. 이후 제 그림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는데 이렇게 대추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돼 너무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음 합니다"


안진의 작가의 'Code L1204'


동양화가 안진의 작가와 사회적 기업 대추씨가 함께 펼치는 '드로잉 힐링 서클' 은 관람객이 표현 예술가가 되어보는 새로운 차원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사진제공=(주)대추씨

사회적 기업 대추씨-안진의 작가
그림 전시와 명상 접목해
新개념 힐링 프로그램 개발
종로구 원서동 아트스페이스H서

작가의 '황홀한 장관(壯觀), 빛 나오르는 꽃의 몸짓' 은 꽃을 모티브로 시정 넘치는 작업을 보여준다. 안 씨는 전구를 꽃으로 가득 채우거나, 바닷가 고기잡이 배에서 볼 수 있는 집어등과 풍경을 꽃으로 풀어낸다. 특히 단청 고려불화 기법의 채색으로 화면의 생동감을 더했다. 그리하여 꽃은 나비가 되기도 하고 전구와 화병 속을 휘감아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안 작가는 색이 품고 있는 힘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다고 한다. "전구의 빛은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구는 소통의 상징이고 그 안에 가득한 꽃은 소통의 언어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빛을 발하는 꽃을 통해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궁극적 목적이 치유라고 한다면 이 밝은 색깔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월 12일, 14일, 19일 오후 2~4시 사이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안진의 작가의 전시는 12월 21일까지 아트스페이스H에서 계속된다.

한편,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대추씨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기반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소셜힐링프로그램 '어른이놀이터', '아트런치' 등의 문화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해온 소셜벤처다. 대추씨는 2012년 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진의 작가는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색채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26회의 개인전과 2012 코리안 아이(아랍에미리트), 키아프(KIAF), 터키 이스탄불 아트페어 등 국내외 180여 회의 전시를 통해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12 제10회 미술세계작가상-평면부문 선정되었으며 2011 제5회 미술인의 날 미술인상-청년작가상 (사.한국미술협회), 2005 제11회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 우수작가상, 1994 제1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1993 제1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1992 제15회 중앙미술대전 특선 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010-5391-1447, (02)766-50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유심〉 월간지로 새롭게 발간

문학 토크 열며 새출발 '다짐'
시와 예술기획시리즈 주목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시전문지 유심이 월간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유심은 지난 11월 28일 유심문학 토크를 열고 새로운 기획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3년 1월호부터 연재되는 시와 예술 기획시리즈다. 예술에 접목된 다양한 시를 살펴보는 코너로 시의 다양한 예술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코너다.

유심은 △그림을 그리게 한 시 △ 음악을 만들어준 시 △춤(현대무용 · 고전무용 · 탈춤) 추게 한 시 △연극 속의 시 △영화 속의 시 △소설을 쓰게 한 시 △오페라 속의 시 △건축과 조각에 영감을 준 시 △현대미술(비디오아트 행위예술 아방가르드 운동 등)에 나타난 시 △노래(창)으로 불려지는 시조(김영운) △대중음악(가요 · 팝)과 시 △시와 사진 등을 마련 매월 독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전망이다.

더불어 월간 〈유심〉은 격월로 유심 문학 토크도 마련한다. 이에 지난 11월28일 유심 세미나실에서 첫 '유심 문학토크' 를 열고 첫 번째 손님으로 미당문학상 수상자 권혁웅 한양여대 교수(시인)를 초대했다. 이날 행사는 권 교수가 직접 시 '봄밤' 을 낭독하고 참석자의 시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격월로 주제 좌담도 펼친다. 내년 2월에는 '등단 이대로 좋은가(가제)' 를 주제로 좌담을 연다. 정혜숙 기자



〈유심〉은 11월 28일 문학 토크를 열고 내년 월간지로 새 출발할 것을 다짐했다.

신현철의 '연파 미소'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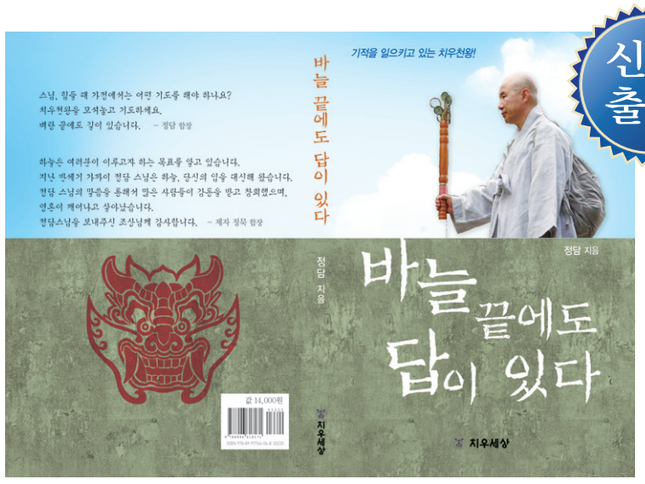
13일까지 예술의전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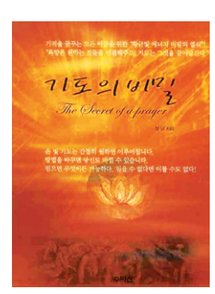
도예가 연파 신현철(신현철도예연구소 소장)작가의 '연파(蓮波)미소 2012' 가 12월 1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연꽃 다관, 달 항아리, 다완 등 도자기와 딸 신예담 씨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도자예술의 다양성을 꾀해온 도예가 신현철 씨는 이번 전시에서 다구와 찻그릇을 중심으로 백자 달항아리에 영상을 접목시켜 새로운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한편, 신현철 작가는 30여 년동안 연잎과 무궁화 다기, 비행접시형 찻주전자 등 모두 30종에 가까운 형상을 다기로 표현했다. (010)9471-1004

"눈"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1. 이것 저것, 어느 곳에 점을 봐도 신통치 않을 때
2. 이사, 매매, 부부, 자식문제 궁금한 분
3. 사업성공, 주식, 선물옵션 대박비법
4.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되는 사람은 되는길이 있습니다.



치우기도상 출시

스님!
가정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되나요?
이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약력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비밀, 불교척척박사

055)932-4103, 010-9537-0034
Daum 카 페 주소창에 합천용문사 검색 를 쳐보세요!

용문사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산18-1번지
(영상테마파크와 합천댐중간지점)

공기열 75% → 100%
전기 25% 에너지
공기 압축열 보일러


자연요양병원에서 10㎾ 80평난방

연료비 걱정으로부터 완전 해방!!
획기적인 절감!! 편리하고 화재에 안전합니다.
일반 전기보일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루 1만원으로 50평 난방실현!
하루 2만원으로 100평 난방실현!
심야대비 50% | 도시가스, 전기보일러 대비 70% | 기름대비 80% 절감

초 록	소비전력	난방열량	월간 예상연료비 (단위:원)
압축열 보일러	5kw/h	난방 120㎡(약 4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13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200,000
압축열 보일러	7.5kw/h	난방 180㎡(약 6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0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300,000
압축열 보일러	10kw/h	난방 240㎡(약 8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7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400,000

최고의 기술력, 고객 만족
품질경영의 원칙과 철저한 A/S로
고객님께 "신뢰와 정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주)초록에너텍
대표전화 1666-7634

“시린 겨울 음악이 있어 훈훈해요”

12월 송년음악회 한자리에

201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파가 몰아닥치는 요즘 몸은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한 해를 보내는 서운한 마음에 울적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시기에 음악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연에서부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까지 교계 다양한 송년음악회를 한 자리에 모아봤다.

니르바나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장애인을 찾아가는 음악회’는 12월 12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와 함께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장애시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래가 참여한다. 이들은 클래식과 시낭송, 독주와 민요메들리 등을 통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강형진 단장은 “이번 공연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비장애인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좋은벗풍경소리(회장 덕신 스님)도 송년 붓다콘서트를 마련한다.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용주사 합창단, 원적정사 합창단, 소프라노 석동령, 통기타 모임 칼립소, 가수 김민채, 2012전국가족찬불가경연대회 대상 수상팀 송패밀리 등이 출연한다.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올 7월부터 매달 진행해온 붓다콘서트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마련됐다. 예산 등의 문제로 붓다 콘서트는 연말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리려 했으나 조계종의 지원 등으로 내년에도 매월 붓다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번 송년 공연은 무엇보다 의미가 깊다”며 소감을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이사 방정숙)에서 개최하는 ‘2012 수화사랑음악회 및 후원의 밤’은 12월 16일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광림사 수화사랑합창단, 광림사 청각장애인 불자회, 능인 스님, 김흥국, 영화배우 김경애, 쇤리 등이 출연한다. 연화원 측은 “이 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의 작은 편견을 버리고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마련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 정사)은 2012년을 회향하는 만월(滿月) 콘서트를 개최한다. 12월 17일 진각문화전승관에서

니르바나 ‘장애인 음악회’
진각복지재단 만월 콘서트 개최
정각원 이웃사랑 음악회 ‘훈훈’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슈퍼스타K 출신 가수 이보경, 인디밴드 리메인즈, 팝핀현준-박애리 등이 공연을 펼친다. 또한 공연에 앞서 제6회 진각복지대상 시상식, 진각복지유공자 감사패 시상식도 열린다.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은 12월 20일 복지관 강당에서 성탄절 문화체험 ‘안녕? 산타’를 개최한다. 캐롤 공연은 물론 미디어봉사단이 한 해 동안 직접 복지관 소식을 촬영·제작한 ‘종로미디어뉴스’ 상영회도 이어진다. 또한 복지관 어르신들로 구성된 손뜨개봉사단 동아리가 1년 동안 만든 목도리와 학용품을 종로구 이화동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전달한다.



송년을 맞아 교계에서는 다양한 음악회가 열린다.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연에서부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까지 다양한 송년음악회를 한 자리에 모아봤다. 사진은 종로노인복지관의 2011년 공연 장면.

〈송년음악회 일정표〉 날짜순

주 최	일 자	행 사 명	장 소	전화번호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12월 12일	장애인을 찾아가는 음악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010)6209-3436
좋은벗풍경소리	12월 14일	송년 붓다콘서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02)723-9836
연화원	12월 16일	수화사랑음악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02)2202-5831
진각복지재단	12월 17일	만월(滿月) 콘서트	진각문화전승관	(02)942-0144
종로노인복지관	12월 20일	‘안녕? 산타’	복지관 강당	(02) 742-9500
동국대 정각원	12월 22일	이웃사랑 음악회	동국대 중강당	(02)2260-3018

중구청과 함께하는 **동국대정각원**(원장 법타 스님)의 이웃사랑 음악회도 눈에 띈다. 12월 2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강원래, 김준모(한국식오카리나 창시자), 정각원 합창단,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생 모임 연주회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탈북 학교 셋넷학교 학생들이 마임 시낭송 동요 공연 등을 펼친다. 이번 공연 수익금은 중구청을 통해 소외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각원 측은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음악회다. 특히 중구 지역 수급자들을 초청해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삶, 소멸 그리고 흔적’을 엿보다

국립대구박물관 사진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원장 이재웅)은 국립대구박물관과 공동주관으로 ‘삶, 소멸 그리고 흔적’ 사진전을 개최한다. 12월 23일까지 개최되는 이 전시는 대구·경북 9개 문화재조사연구기관에서 2011년~2012년도에 발굴조사 성과를 한 자리에 모았다.

사진은 정혜사지 13층석탑, 포항법광사지 유적, 군위이복골마을 사람들의 자취 등 18개의 유적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 전시는 주요유적을 시대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했으며, 아직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유적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재청 김수남 조사단장은 “9개 문화재 조사연구기관 법인이 참여해 각 두 개씩의 작품을 발표했다. 불교 유적은 물론 주거지 무덤 생활유적 관아 유적 저수지 등을 청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민들에게 유적지를 알려 매장 문화재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고자 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 중에서 정혜사지 13층석탑은 눈에 띈다. 조사를 맡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측은 “경주시에서 탑을 정비하기 전에 하부에 그와 관련된 매장 문화재가 있는 시굴 조사가 있었다. 이때 탑 주변에 건물 담장 등이 조사됐는데 이는 조선시대 걸로 밝혀졌다. 탑이 통일신라시대 후반 혹은 고려시대 초반 문화재로 추정 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조선시대 이후에 탑이 한 번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시대별 주요유적은 △청동기시대 집터인 포항 월포리 유적과 청도 신당리 유적을 시작으로 △초기철기시대 무덤인 경주 하구리 유적 △원삼국시대 집터인 청도 갈지리 유적 △삼국~통일신라시대 경주, 김천, 영주, 현풍의 무덤, 경주, 포항의 건물터, 고령의 산성, 상주의 저수지 △고려~조선시대 상주, 군위의 집터와 건물터, 경주의 읍성과 탑 등이다. 대구박물관 측은 “출토된 유물은 앞으로 진행될 학술 연구를 통해 중요한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053)768-6051 **정혜숙 기자**



정혜사지 13층석탑 유적지 사진

법화경 7만여 자 28곡 병풍에

박외수 작가 개인전

7만여 자로 구성된 법화경이 해서체 글씨로 감지금니 필사로 완성됐다. 지헌 박외수 작가의 사경 개인전이 12월 18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박 씨는 법화경 전문을 감지금니 해서체로 필사해 전시하는 동시에 36만여 자로 구성된 화엄경 중 일부도 함께 전시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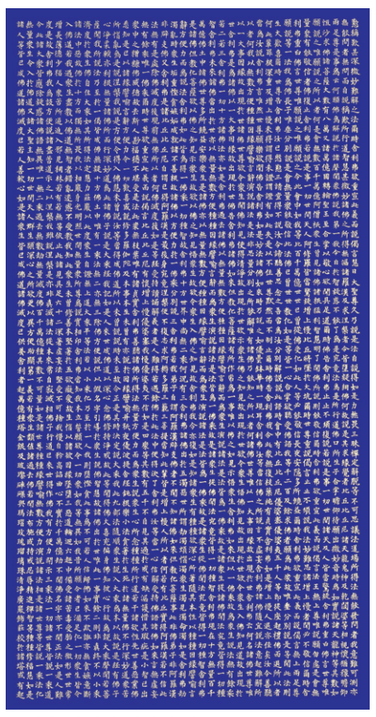
박 작가는 “부처님의 광대한 공덕을 기린 경전 화엄경은 불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전이다. 또한 법화경 사경을 성공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불경을 사경으로 펼쳐 보일 수 있

해서체 감지 금니필사로 완필
12월 18일까 노원예술회관서

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작업을 하면서 내내 스스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다. 묵념하며 내면으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전시를 여는 소감을 전했다.

박 외수 작가는 법화경 28곡 병풍, 화엄경 10곡 병풍으로 펼쳐 놓았다. 특히 화엄경 10곡 병풍은 매 폭마다 은니(은분) 해서체의 ‘佛’字를 넣어 눈길을 끈다.

박 씨는 “처음 사경을 시작할 때는 한 자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사경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150자까지 썼는데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정신을 집중해 노력해서 임하니 10폭 쓰는데 누락되는 글자가 없을 만큼 집중력이 높아졌다”며 경험담을 전했다.



박외수 작가의 법화경 작품

이외에도 박외수 씨가 직접 글씨를 쓰고 각을 새긴 서각 작품 18점도 함께 전시된다. 박 씨는 경천애인(敬天愛人),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등 명언이나 한자성어를 현대 서예로 구성하고 이를 작가가 직접 나무에 각을 해 채색 과정을 거쳤다. (02)734-446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예불문 참뜻 대중에게 알리고자”

우리말 예불 1집 발매
청주 정토사 선용 스님

청주 정토사 포교당 주지 선용 스님이 우리말 예불 1집을 발매했다. 스님은 이 CD에 새벽 예불-아침발원문-천수경-정토선염불-법성게 등 우리말로 된 예불문을 담았다.

선용 스님은 불교 포교를 위해 이번 음반을 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스님은 “천주교나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온 역사가 100여 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도 모두 우리말 작업을 마쳐 포교에 큰 힘을 펴고 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1700년 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말 예불이 보급되지 못한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음반을 내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이를 통해 불자들이 예불문의 참뜻을 알기를 바란다고 했다. 스님은 “우리 불자들이 예불문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따라 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한문 예불문을 우리말로 개사해 사용하는 사찰들을 보고 이번에 용기를 내어 정식으로 앨범을 내게 되었다. 이번 앨범은 한문 예불문의 운율을 그대로 살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예불 1집’ 음반 표지

염불은 선용 스님이 맡았으며 합창은 사라수, 진실행, 심진덕, 환희심, 무애심, 일광화, 극락월, 우상분 등이 맡았다. 한편, 선용 스님은 1993년 조계종 9교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출가해 제방선원에서 10년 동안 수행했다. 2006년부터 청주 정토사 포교원 주지를 역임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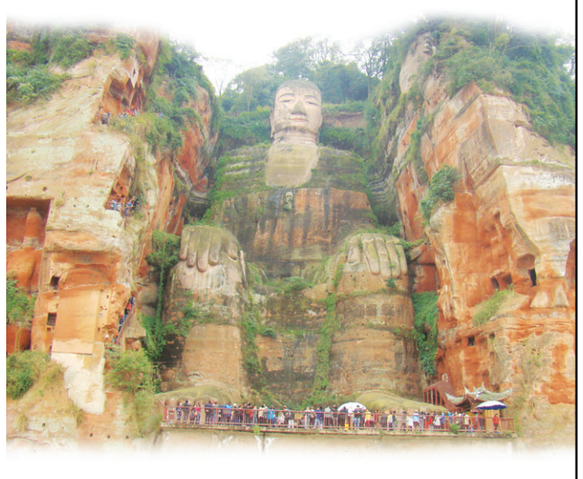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3/29, 금)	북경, 성도
2일(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4/ 3, 수)	북경, 부산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 여행경비 : 1,370,000원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법륜 스님의 언어로 다시 듣는 〈금강경〉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스님 지음
정토출판 펴냄
2만7천원

〈금강경〉본래 이름은〈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이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금강경〉이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불교가 유입되던 초기로 알려져 있다.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이 전해준 것 중 하나로 특히 선종에서는 육조혜능 대사 이후 소의경전으로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금강불법(佛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금강경〉을 읽게 한 연유로 널리 유통되었다고 한다.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더불어 대중에게 널리 독송되고 있다.

그러나 경전의 독특한 전개 방식과 사상적 깊이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니 부처님의 말씀을 그저 말씀으로만 넘길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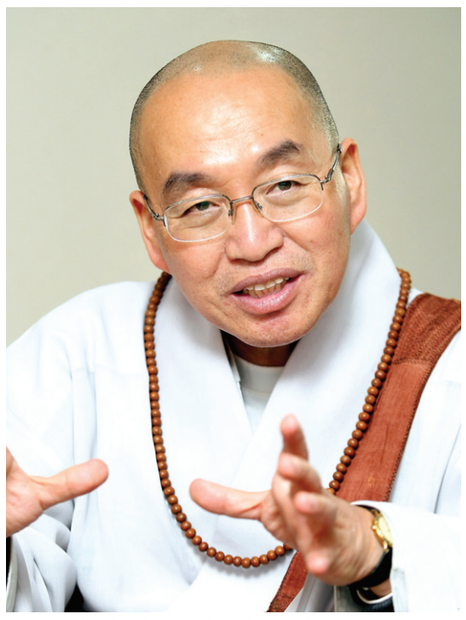
법륜 스님은 그동안 〈기도〉〈깨달음〉〈스님의 주례사〉〈엄마 수업〉 등의 베스트셀러와 즉문즉설 강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해졌다.

법륜 스님의 경전 법문도 단순한 자구 해석이나 문자 풀이가 아니라 실제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침이 된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침반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풍부한 일화와 예시를 들어 때로는 이야기하듯, 때로는 엄하게 꾸짖듯 경전의 뜻을 생생하게 전한다.

〈금강경〉은 대여섯 종의 한문 번역본이 전해져 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구마라습의 번역본이다. 이 책에서는 구마라습 대사가 번역한 한문본과 용성진종 조사가 번역한 한글본을 사용했다. 특히 용성진종 조사의 한글본을 사용한 데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용성진종 조사는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으로 참가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으로 한국 불교의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를 원으로 삼아 구한말 삼장역회를 설립해 〈화엄경〉〈금강경〉 등 30여 편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다.

〈금강경〉, 선종의 소의 경전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 대화로 구성
용성 스님, 〈금강경〉 한글로 최초 번역
금강경 인용, 삶의 고민 해결책 제시



'즉문즉설' 강의를 하고 있는 법륜 스님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15세기 세조 때 〈금강경〉 언해본이 있었다고는 하나 근대에 〈금강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용성진종 조사가 처음이다. 그 뜻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이 책에서는 용성진종 조사가 1923년 번역하고, 1926년 인쇄 발행한 〈상역과해금강경〉 3판(1937년) 영인본을 모본으로 했다. 〈상역과해금강경〉 영인본은 현재 용성조사 탄생 성지인 장수 죽림정사 용성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경전에 그려진 부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다 떨어진 옷에 발우 한 개를 들고 이 집 저 집 밥을 동냥하는 부처님, 제자들과 함께 얻어온 밥을 나눠 먹는 부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평범함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부처님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했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물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그 내용은 모두 경전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금강경〉 역시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한 질문과 부처님이 그에 답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전이다.

수보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모든 진리와 지혜를 깨쳐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부처님은 제자의 이와 같은 간곡한 질문에 답을 해주었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 깨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육조대사가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삶의 방향이 달라졌듯이 말이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내 인생의 자유를 활짝 열어주는 불법의 길, 누구에게나 평등한 불법의 길인 것이다.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로 구성된 〈금강경〉을 이해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삶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위의는 어떠했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게 된다면 〈금강경〉의 행간에 숨어 있는 참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적 시공간 탐색 시집

인연에 얽힌 풍경소리

허남준 지음 | 한누리미디어 펴냄 | 1만2천원



허남준의 다섯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에는 사찰 순례시, 그리고 불교사적 순례의 시들이 상당수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물론이고 인도성지와 스리랑카 성지 순례, 중국 관음성지 순례의 시들이 따로 묶어져 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은
보리수나무가 증명하는 듯하고
마야 부인이 목욕하셨다는
성스러운 연못은
억겁 속 흐르는 물이 꿈꾸듯
그리움만 더해가고
아쇼카 왕이 특별히 내린 면세령이 새겨진
아쇼카 기둥은
지난 세기의 흐르는 역사 앞에
증명이라도 하듯
순례객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
하늘 높이 바라보며
따스한 햇살이 비추어지고
세존의 탄생하신 자리엔
수정 같은 밝은 빛이 어둠을 헤치고
영원한 빛으로 이어져 오는 듯
법의 향기가 솟아 흐른다"

-시 룸비니 전문-

유한근 평론가는 작품해설에서 허남준의 시세계를 불교적이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이 스며있는 시라고 평했다.

그리고 시인의 시 세계에 녹아있는 불교는 현실 초극의 종교이며, 초역사, 초시대성을 지닌 영원의 종교이며, 인간주의적인 종교이며, 신과 인간을 경계로 나누지 않은 종교, 인간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삶의 본체 해명에 적절한 종교라고 보면서, 시인의 시는 이를 전제로 한 시공간의 탐색이라고 평했다.

시집은 1부 목련꽃을 바라보며, 2부 무상을 넘어서, 3부 인도 성지 순례, 4부 스리랑카 성지 순례, 5부 중국 관음 성지 순례, 6부 인연에 얽힌 풍경소리 총 6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에는 '목련꽃을 바라보며' 등 여행을 통해 체득한 시 23편이 실려 있다. 2부 '무상을 넘어서' 에는 '백운산 고심사' 등 국내 사찰과 관련된 12편의 시가 실려 있고, 3부 '인도 성지순례', 4부 '스리랑카 성지 순례', 5부 '중국관음 성지 순례' 에는 각각 인도, 스리랑카, 중국의 성지에 관련된 시 25편, 10편, 11편이 각각 실려 있다.

마지막 6부 '인연에 얽힌 풍경소리' 에는 권오현, 권재진 등 60여 년 삶의 여적에서 만난 25인의 인연 시 25편이 실려 있다. 시인 허남준은 이번 시를 통해 우리 불교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여러 방편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물이나 사상(事象)에 대한 불교적 인식과 상상력으로 불교적 상상력의 무한함을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8~12/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	덕일	작은숲
6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9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파담빠 상계	민족사
10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일상생활통해 달라이라마 지혜와 철학 전해줘

달라이라마, 물음에 답하다

최평규 지음 | 모시는사람들 펴냄 | 1만2천원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종교적·정치적 지도자다. 티베트인들의 정신적·신앙적 지주로, 평생을 중국으로부터 티베트의 독립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다. 그는 중국의 정치적 탄압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 곳곳에 종교의 의미, 행복의 기준, 자비심과 상호 이해, 의미 있는 삶과 평화롭게 죽는 지혜, 기독교와 종교적 화해 등 다양한 글과 강의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귀감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티베트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분신자살을 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티베트 독립과 티베트인들의 현실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대국이라는 중국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간절함은 일제치하 식민지를 거치고, 중국과 이웃한 우리에게 마냥 낯선 나라의 일로만 여겨지진 않는다. 1950년,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해방시킨다는 명목 아래 계속되어 온 티베트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티베트에 결코 희망적이지도 않다. 그들의 분쟁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이 책은 달라이라마가 정원손질이나 기계 수리를 즐긴다고 하는, 일반인들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의 하루 일상생활에서부터 그의 폭넓은 흥미의 대상,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생각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지혜와 철학을 전해준다.

달라이라마는 이 책 속에서 "뭔가를 수리하면 절말 기쁩니다. 어렸을 적부터 뭔가 흥미있는 물건을 보면 뜯어서 속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했던 거지요."

달라이라마의 인간적 풍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달라이라마는 세계의 종교화합에도 한마디 조언한다. "사랑은 모든 종교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종교의 공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나 사랑, 동정의 가르침은 모두 같습니다. 기본 목적은 인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각각의 시스템에 의해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독자적인 방법을 시행할 뿐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모두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목적은 같기 때문에 서로의 종교를 배우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라며 종교가 다르더라도 충돌할 것이 아니라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 책은 '알기 쉬운 달라이라마의 사상' (2007년)을 일부 수정 보완해 출간했다. 달라이라마 법왕 수상 현황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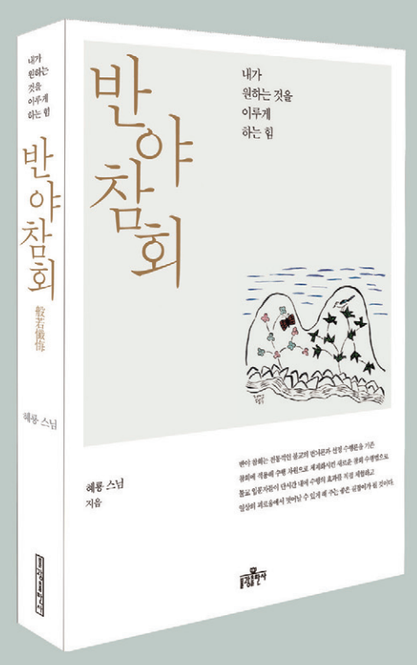
이 책에서 보여주는 달라이라마는 종교적 스승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기도 하고, 최고 수준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정치가이기도 하다. 합리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과 신앙(명상)적인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불교와 부처님에게조차 연연하지 않는 '불교' 와 '불승' 의 모습을 이 책 속의 달라이라마와 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은, 아침 햇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철학 아닌 철학을, 달라이라마의 유머 속에서 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최평규 박사는?

명예철학박사이며, 행정학박사이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지도자 네트워크 '불교포럼' 회원이며, 각심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고려대 개교 100주년기념사업후원회 상임이사 등으로 있다.


처음 만나는 심리학
사토 다쓰야 · 와타나베 요시유키 지음
김경원 옮김 | 김선주 감수 | 308쪽 | 15,000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루에 30분 열흘이면 마스터하는 '심리'


반야 참회 般若懺悔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해룡 스님 지음
288쪽 | 13,000원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참회 수행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생활 속 궁금증 심리학적 관점서 해설



처음 만나는 심리학

사토 다쓰야, 와타나베 요시유키 지음
불광 펴냄
1만5천원

살아가면서 대다수가 소문만 듣고 이유없이 남을 미워한 경험이 한 두 번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중국집에 가서 다른 사람이 짜장면을 시키면 다른 것을 먹고 싶다가도 "나도 짜장면!"하고 외치는 까닭은 뭘까? 정말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위의 사례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한 두 번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특정 혈액형은 성격이 어떻더라는 말을 얼핏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의 반응에 동조해 본인의 의견을 바꿨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지하철에서 동정심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경험에 대해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책은 그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안내서이다. 사례를 읽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면은 물론 심리학의 탄생부터 분야, 성격 그리고 앞으로 발달할 심리학의 미래까지 이론적인 면도 갖추었다.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한 책이지만 그 구성과 내용의 체계성은 전공서만큼 알차다. 심리학 입문자를 위해 최대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글을 썼다. 독자들의 이해와 흥미를 돋우기 위해 삽입한 35컷의 그림은 책 읽는 데 즐거움을 더해 준다.

특히 '들어가는 글'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심리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어디에서 찾아 읽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다. 덕분에 독자는 궁금증도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정보를 찾는 시간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 책을 통해 거둘 수 있다.

예를들어 이런거다. Q: 취직시험을 계속 치르는데 늘 떨어진다. 자신감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 되고 만다. 어떻게 해야 되나? A: 실패했다고 풀이 죽을 것이 아니라 불합격덕에 경험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해라. 또다른 질문이다. Q:성격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애 하는가?

A: 자기 의식이나 상대적 위치는 여간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이 보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격을 바꿔야 겠다고 생각지 말고 행동을 바꿔보자.

〈처음 만나는 심리학〉은 이처럼 당신이 겪는 심리 현상에 대해 알고 싶어도 어느 분야를 참고해야 좋을지 몰라서 차례대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나침반이 되어 준다.

'들어가는 글'은 당신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하며,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질문들이 떠오를 때 당신은 심리학 입문서의 어디를 펼쳐 보겠는가? "기억해야 할 전화번호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가끔 사람을 잘못 봐서 실수를 한다. 얼마 전에는 뒷모습이 꼭 친구 같아서 얼른 뛰어가 뒤통수를 냅다 쳤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왜 나는 이런 착각을 했을까?" "같은 태양인데, 왜 하늘 한가운데 있는 것과 지평선 가까이 있는 것은 색깔도 크기도 달라 보일까?" 등등. 이럴 때 목차를 펼쳐 보았다면 당신은 낯선 개념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들어가는 글'을 펼쳐 보았다면 첫 번째와 두번째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지심리학을 보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각심리학을 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질문들이 심리학의 어느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책의 앞부분에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다. 덕분에 알고 싶은 심리학을 찾고자 그 방대한 양의 심리학 책을 처음부터 읽어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이 책만 있으면 당신의 호기심을 풀어줄 심리학 지식을 쉽고 빠르게 찾아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심리학 입문서가 간과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심리학의 맥락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심리학의 맥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생활 속에서의 맥락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의 맥락이다. 생활 속에서의 맥락이야 우리의 호기심과 직접 연결되니 그렇다 쳐도, 심리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의 맥락은 왜 중요한 걸까?

그건 바로 그 과정이 심리학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함께한다는 건 질문을 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심리학 지식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단편적인 심리학 지식을 암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독서 경험을 〈처음 만나는 심리학〉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 두 맥락에서 심리학을 설명한 덕분에 우리는 심리학을 일상생활과 심리학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그 결과 책을 읽고 나면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심리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지금까지의 심리학을 소개할 뿐 아니라, 앞으로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며 어떤 심리학이 우리에게 필요할지까지 정리했다. 따라서 마지막 장을 읽은 독자는 심리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큰 시야를 얻게 될 것이다.

짧은 분량에 심리학의 핵심을 얼마나 잘 뽑아서 정리했는가 역시 좋은 심리학 입문서를 고르는 기준이 된다. 쉽게 쓰기 위해 중요한 내용을 생략하고서 지나치게 단순하게 쓰거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통계 자료와 낯선 심리학 용어 및 심리학자 이름으로 책을 가득 채웠다면 좋은 심리학 입문서라고 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이미 몇 권의 책을 같이 써 오며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게 된 두 명의 저자가 모은 글을 같이 써서 완성했다. '지식의 흐름'으로서 심리학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 심리학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본문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은 도표로 정리하여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내용 이해를 돕는 그래프와 일러스트를 삽입해 시각적으로도 흥미롭게 디자인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행복한 병영 생활 위한 마음수련 지침서

청춘동행

고명석 지음 | 민족사 펴냄 | 9천원



Q.:군 생활이 갑갑하고 불편합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구속된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A:가만히 따져 보세요. 누가 우리를 구속 할까요? 외부의 조건이 우리를 구속해서 갑갑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구속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이 바로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속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커다란 구속입니다.

Q: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슬픕니다. 가족도 보고 싶고 여자친구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나요?

A: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베풀고 난 후 아무런 기대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그 자체에만 머물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머물다 홀연히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원인과 조건에 따라 그 허전한 빈자리의 마음도 그때그때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곳이 군대이다. 하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이 책은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병영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군 장병들이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는 병영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저자의 다정다감한 문장들은 지치고 힘겨운 젊은이들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다.

또한 저자는 책을 통해 문제 해결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입대를 앞둔 청춘,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 장병들의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저자는 스물여덟이란 늦은 나이에 신병으로 입대했다. 한참 동생뻘인 동료들과 군 생활을 하면서 심한 마음고생도 했다고 한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군 생활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심했고, 당시의 힘겨웠던 생활을 떠올리며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책은 듣기 좋은 이론으로 무장한 책이 아닌, 실천만 하면 바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실천법을 직접 행동에 옮겨보자. 분명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Buddhism and Culture' 겨울호 발간

불교심리치료, 생태 등 내용 다뤄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문 계간지 〈Buddhism and Culture〉가 발간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최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영문 잡지 〈Buddhism and Culture〉겨울호(통권 1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Buddhism and Culture〉겨울호는 △불교와 심리치료 △불교 생태, 수행 그리고 마음 △한국불교 수행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저명학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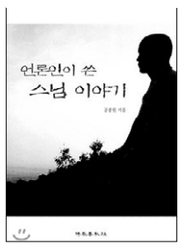
〈Buddhism and Culture〉는 해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지역도서관, 불교 관련 학자를 비롯해 해외 사찰, 불교 수행센터에 배포한다.

신중일 기자

韓中 근현대 선지식 핵심사상 소개

언론인이 쓴 스님 이야기

공종원 지음 | 불교춘추사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저자가 문화부 기자와 문화담당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혹은 그 후 언론인으로 접했던 스님들과 불교계 주변문제를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저자가 이 책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언론인으로서 비판적인 필봉으로 우리 종교계 현실, 특히 불교의 부정적이고 불쾌한 측면을 들추고 꼬집고 때리는 데에 주력한 것과 달리 불교와 스님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쓴 글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스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우선 전문적 불교학자나 공부하는 스님이 아니라 언론인이 쓴 스님 이야기라는 점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스님 이야기이기는 해도 스님들의 재밌는 생활사나 기행을 소개하는 소설같은 이야기를 모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방에 전해오는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적 스님들과 그들의 사상을 짧게 소개하면서 마침내는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뛰어난 스님들의 생각과 공헌을 요약적으로 나마 접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남종 율종의 초조 도선, 중국적 불교 천태종을 연 지의, 대표적 입축 구법승 현장 등을 소개한 동방불교의 선구자들을 첫 장에 소개했다. 이어 2장에서는 초조 달마대사를 비롯해 2조 혜가로부터 6조 혜능까지 선종의 개척자들의 사상을 조명했다.

또한 저자는 한국불교의 선지식들도 이 책에 등장시켰다. 원효 대사를 비롯해 세속오계를 만든 원광법사, 보조국사 지눌, 임제종을 부흥시킨 서산 휴정 대사 등이 그 주인공이다.

현대의 고승들도 제 4장에서 조명했다. 반농반선을 주창한 만암 스님, 참사랑 운동을 펼치시다 입적하신 서옹 스님, 무소유의 저자인 법정 스님 등이 소개돼 있다.

저자는 기자출신답게 '스님과의 대화' 코너도 마련했다. 즉 인터뷰를 한 것이다. 여기에는 월주 스님과 성타 스님, 대은 스님 등이 등장한다.

저자는 또한 고승들의 수도처도 탐방했다. 특히 경허 선사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서산 천장암의 설명을 읽다보면 마치 직접 절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그런 뒤 사회에서 불교와 스님을 보는 눈을 가상해 '이제 달마가 서쪽으로 가는 뜻'을 곱씹으며, 청담·만해·성철 스님 등의 법어와 사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스님들과 만나 인터뷰한 내용들과 스님들의 수행 처를 답사해 탐방한 기사도 덧붙인다. 심지어 스님 관계 저서들의 서평과 스님들이 쓴 책의 발문까지 수록해 폭넓게 스님들의 정신세계를 탐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승들의 깨달음의 말, 구체적으로는 '평상심시도'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조주스님과 방장'이라든가 '할- 선에서 본 소리의 본질' 같이 선의 정신과 방편을 언론인의 알음알이로 이해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자는 이 책을 〈언론인이 쓴 스님 이야기〉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볍게 볼 수 만은 없는 책이다. 저자가 이미 〈전환기의 한국불교〉 〈돌아앉은 부처〉 〈이 땅의 쇠북소리〉 〈부처 예수 공자의 나라〉 〈종교가 뭐길래〉와 같은 저서를 통해 스님들의 언행과 사상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결코 아마추어적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공종원은?

서울대 철학과와 동 대학원 철학과를 거쳐 1964년 라디오서울 PD로 입사한 후 동양방송 기자, 중앙일보 기자, 논설위원, 동서문제연구소장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그동안 방송위원회 심의의원, MBC와 SBS 시청자위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시니어저널 주필, 불교방송 시청자위원장, 한국불교언론인 회장 등 언론, 문화예술 각 분야에도 관여했다.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여인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었던 욱면

원효의 대승사상·여성 즉신성불설 제시

1. 경설에 나타난 여성관

붓다는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평등하다고 설했다. 그들은 오직 그 행위에 의해 평가받을 뿐 그의 신분과 권위에 의해 평가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붓다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만 평등하다고 하였다. 당시 붓다가 외친 인간 평등사상은 카스트(四姓) 제도의 위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붓다는 우주에 편재하는 궁극적 원리로서의 브라흐만이나 그것이 내면화된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아트만에 의한 전변설, 그리고 어떠한 쌓임과 모임에 의해 이 세계가 형성되었다는 원자결합설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붓다는 카스트제도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였다. 이것은 그의 가계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그가 아리안족이 아니었기에 기마민족인 아리안족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카스트제를 강력히 부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아리안족임에도 불구하고 카스트제를 부정하였기에 그의 위대함이 더욱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붓다는 여타의 사상가들과 달리 인간의 평등성을 누구보다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붓다의 분명한 입장은 불교의 세계관이 되었다. 하지만 붓다의 입멸 뒤 네 차례에 걸쳐 인도에서 경전이 결집되면서 붓다의 본래 입장이 곡해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일부 경전에서는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女人不成佛說] 혹은 '여인은 남성을 빌려 성불할 수 있다는 설' [女人變姓成佛說]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경설은 대승불교 성립 이후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정설로서의 권위를 유지해 왔다. 현존하는 대승 이전의 경전은 대부분 2차 내지 3차 결집을 통해 처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초기 경전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시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불경의 결집기이자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했던 마우리야 왕조기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했던 마우리야 왕조가 소멸하고 슝가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 주변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바라문교에서 힌두교로 전환되는 슝가왕조기에는 바라문 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전반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또 불교부파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초기의 대승불교가 흥기하던 때였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성립되었던 불교 경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경론이 『불설초일명삼매경』, 『묘법연화경』, 『대지도론』 등이다. 이들 경론에서 여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평등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담론이 '여래삼십이상호설' [如來三十二相好說]과 '여인오장설' (女人五障說)로부터 비롯된 '여인불성불론' (女人不成佛論)이다. 여래삼십이상호설 가운데에서 특히 '음마장' (陰馬藏)상은 여인들에 대한 부정적이고도 불평등한 인식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여인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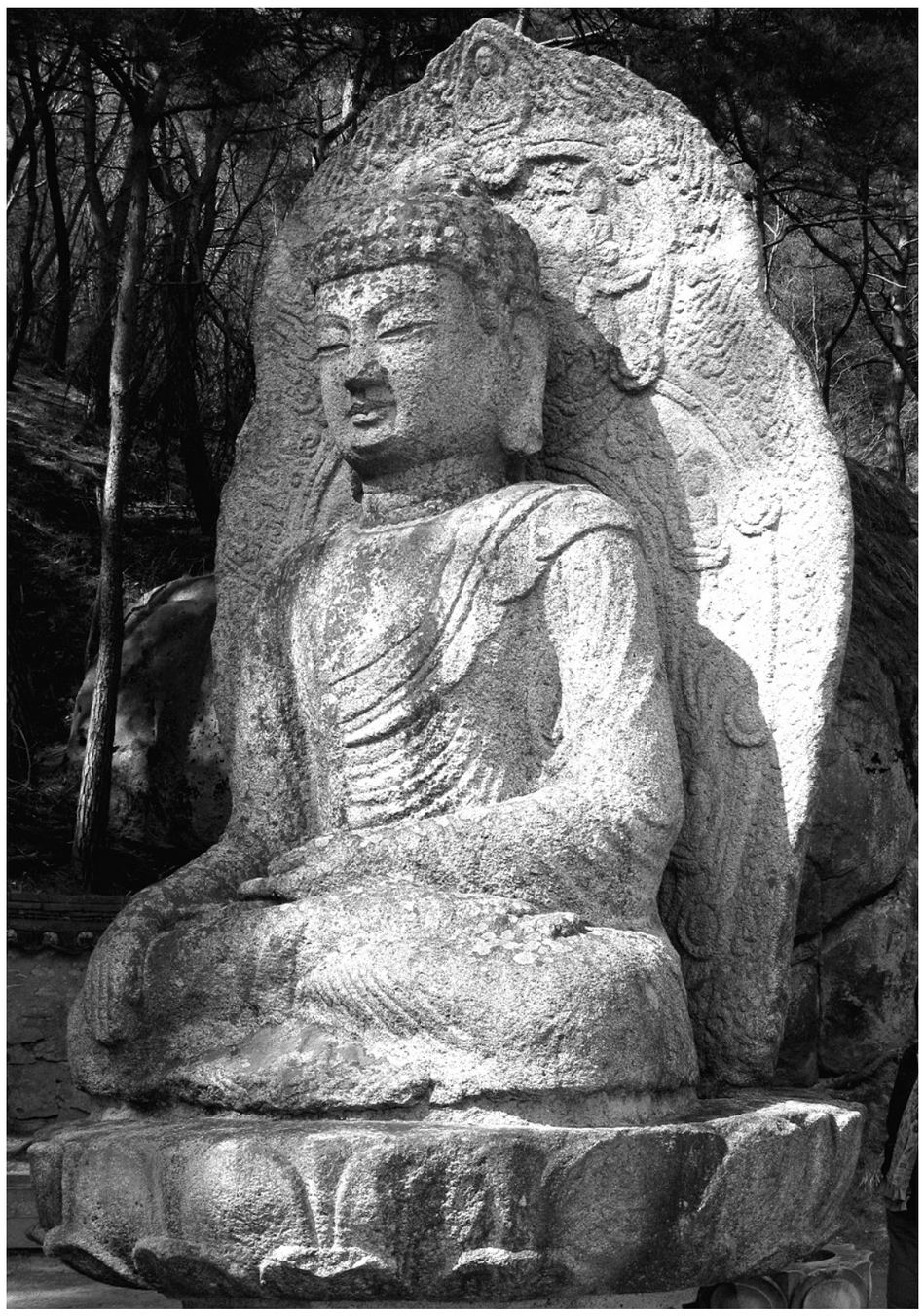
여인에게 부과된 다섯 가지 장애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전 성립사에서 보면 반야부와 법화부는 성립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반야부의 대표적 경전인 『대품반야바라밀경』의 부분 주석서인 『대지도론』에서 오장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 여인에게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 전륜성왕, 제석천왕, 마왕, 범천왕, 부처님이 될 수 없기에 말하지 않는다." 이어 『법화경』「제바달다품」 역시 오장설을 언급하고 있다. "여인의 몸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 첫째는 범천왕이 될 수 없고, 둘째는 제석, 셋째는 마왕, 넷째는 전륜성왕, 다섯째는 부처님이 될 수 없으니 어찌 여인으로서 성불을 빨리 이룰 수 있겠는가?" 여래삼십이상호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남성이 결핍된 여인들은 성불할 수 없다거나 왕들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부정적인 인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부정적인 인식은 대승불교 사상이 난숙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존재의 평등성을 선언했던 불교 본래 정신의 회복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활동의 확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중기 대승불교 이래 새롭게 성립되는 경전들에서는 '여인의 몸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는 종래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인이 남성의 몸을 빌려 성불할 수 있다' [女人變姓成佛論]는 과도기적인 경설로 변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성이 결핍된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경설은 여전히 여인들에 대한 당대의 굴절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여성성불 등 평등사상 전개
결집거치며 왜곡, 여인불성불설 대두

그러나 과도기적인 경설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다. 점차 여성들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이고 불평등적인 시선이 완화되거나 거두어지면서 평등적 시선과 긍정적 시각이 투영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경설은 여인불성불설에서 여인변성성불설로 옮겨가는 과정이 수용된 『법화경』의 용녀성불설(龍女成佛說)이다. 이 설은 『무량수경』과 『대아미타경』 등에서도 보이고 있다. 급기야는 일부에서나마 주장되어 왔던 여인즉신성불론이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인 『법화경』「법사품」에 등장하기에 이른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뒤에 몰래 한 사람을 위하여 『법화경』 (전체) 내지 한 구절이라도 설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여래의 사도요, 여래가 보내어 여래의 일을 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을 설하는 이는 설법사이며, 여래사이며, 여래가 보내어 여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경설은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여래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여래의 '분신' 내지 '화신' 이라는 의미로까지 이해된다. 나아가 이것은 여인의 몸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인의 몸으로 곧바로 성불한다는 설은 『유마경』과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으로 이어지면서 불교의 여성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여인의 몸으로 바로 성불하는 천녀와 승만부인의 이야기는 종래의 여인불성불론에서 과도기의 설인 여인변성성불론을 거쳐 여인성불론으로 꽃피우게 된다. 이렇게 경설이 변주되면서 성불론으로 정착된 것은 여인들 스스로의 사회적 활동과 역할을 통해 이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불교의 여성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변주되면서 붓다의 인간 평등의 사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경주 남산에 자리한 미륵곡 보리사터 석조여래좌상. 여종 욱면이 성불해 육신을 버린곳에 지어진 사찰이 보리사다.

3. 서방에 왕생한 욱면

『삼국유사』「감통」편 '욱면비 염불서승' 조에는 이같은 '여성즉신성불설' 이 제시되어 있다. "경덕왕대에 강주(진주)에 남자 신도 수십 명이 극락세계에 뜻을 두어 그 고을 경내에 미타사를 세우고 1만일을 기약하며 계를 모았다. 그때 아간 귀진(貴珍)의 집에 한 욱면(郁面)이라는 여종이 있었다. 그녀는 주인을 따라 절에 가 뜰에서 스님을 따라 염불을 하였다. 주인이 직분이 아닌 짓을 한다며 미워하여 매일 벼 두 섬씩을 내주며 하루 저녁에 다 찧으라 하였다. 욱면이 초저녁에 다 찧어 놓고 절에 가서 밤낮으로 염불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뜰의 좌우에 말뚝을 세우고 새끼줄로 두 손바닥을 뚫어 꿴 다음 말뚝에 잡아매고 합장한 손을 좌우로 놀리면서 스스로 격려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침 소리가 났다. '욱면랑은 불당에 들어가 염불하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권하여 법당에 들어와서 법례에 따라 정진하게 되었다. 얼마 뒤 서쪽 하늘에서 음악이 들려오자 욱면의 몸이 솟아올라 지붕을 뚫고 나갔다. 서쪽으로 가다가 교외에 이르러 육신을 버리고 진신(眞身)으로 변하더니, 연화대에 앉아 큰 빛을 발하며 천천히 가는데 공중에서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불당에는 지금도 욱면이 뚫고 나간 자리가 있다." 이 이야기는 경덕왕대 새로운 미타 염불결사의 본보기가 된 금강산 건봉사의 발징(發徵, 八珍)의 결사와 연결되고 있다.

『승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관음보살의 현신인 동량팔진(棟梁八珍)이 천 명의 무리를 모아 그들을 두 파로 갈랐다. 한 파는 '일을 하게 하고' [勞力] 한 파는 '정성껏 도를 닦게 했다' [精修]. 힘써 일하는 패의 우두머리가 계행을 얻지 못하고 축생도(畜生道)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가 되었다. 일찍이 그 소가 경을 싣고 갔기 때문에 불경의 법력을 입어서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여 아간 귀진의 집 여종으로 태어나니 이름이 욱면(郁面)이다. 욱면이 일이 있어 하가산(下柯山)에 갔다가 꿈을 꾸고 감응을 받아 불도를 닦을 마음이 생겼다. 아간의 집에서 혜숙법사가 창건한 미타사까지 거리는 멀지 않았다. 아간이 늘 그 절에 가서 염불하므로 욱면도 따라가 뜰에서 염불하였다.

이렇게 하기 9년 을미년(755) 정월 21일에 욱면이 예불하다가 지붕을 뚫고 나가 소백산에 이르러 신한 짝을 떨어뜨렸으므로 그곳에 보리사(菩提寺)를 지었다. 욱면이 산 아래 이르러서 육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두 번째 보리사를 짓고, 그 불당에 욱면등천지전(郁面登天之殿)이라는 방(榜)을 써 붙였다. 그 때 뚫린 지붕의 구멍이 열 아름이나 되는데 폭우나 폭설이 내려도 새지 않았다. 훗날 일을 좋아하는

욱면, 염불로 여인과 종의 신분 뛰어넘어
욱면설화는 여인왕생 사상의 보급 알려

이가 금탑 한 좌를 만들어 바로 그 구멍을 막고 그 위에 신이한 일을 기록하였다. 그 방과 탑은 아직도 있으며, 욱면이 간 뒤에 귀진은 그의 집을 이인(異人)이 난 집이라 희사하여 절을 짓고 법왕사(法王寺)라 하였으며 밭과 소작인을 바쳤다. 그러나 오랜 뒤에 폐허가 되어 대사 회경(懷鏡)이 승선 유석(劉碩), 소경 이원장(李元長)과 같이 발원하여 중건하였다. 이 기록은 발징(팔진)과 욱면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들 미타결사는 경덕왕대와 애장왕대의 설화이지만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 주제는 여인도 왕생할 수 있다는 원효류의 대중불교 사상이 알기 쉬운 설화 형태로 신라 대중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능력보다는 신분이 우선이었던 신라 중대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김영태, 『삼국유사 소전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5).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신종원, 『삼국유사 깊이 읽기(2)』(일지사, 2008).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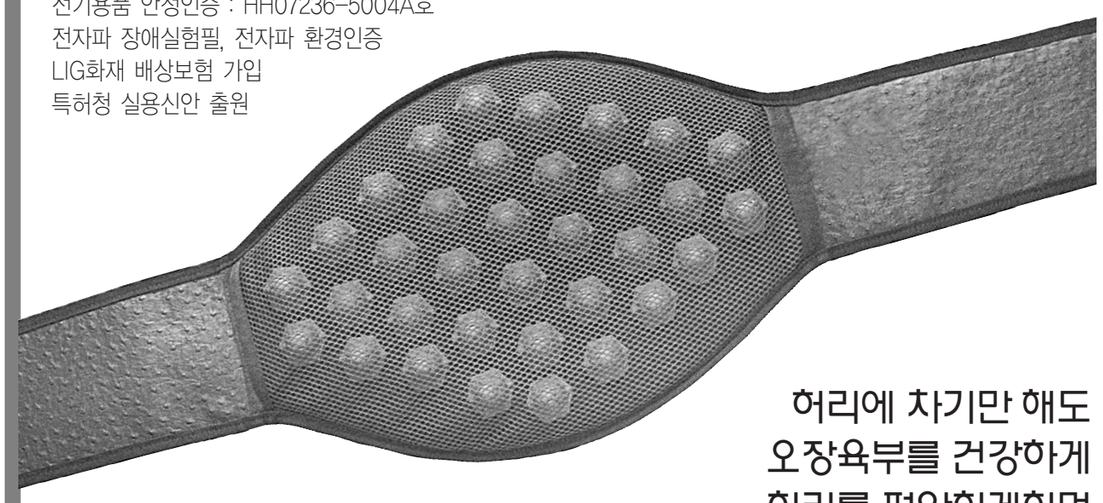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 보왕삼매론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사주명리학 수강생 모집
실전 강의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 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오랫동안 빙의로 고생
하시는 분. 천도재를 여러번
해도 효과가 없는 분.
각종 기도해도 안되는 분.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는 분.
상담 후 고쳐 드리겠습니다
(대원사)
010-4646-7633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화림 황토, 상황 氣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 뜸,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특허번호 제10-2011-0117220호
상표번호 제40-2011-0070302호
디자인번호 제30-2011-0053572호
웰강 www.wellgang.co.kr
가맹점 개설문의
011-573-4438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경기 이천 장호원)
011-729-6011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염불과 법문을
해 드립니다
(창녕읍 포교당 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연락주세요)
010-8396-4338
무유스님

빙의,영가,영적장애
몸, 마음, 영혼 치유
해 드립니다
용음사 주지 합장
051)724-6869
010-5538-5570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나이 40 ~ 60대)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예천)
010-4901-492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심 와 기 도
• 운을 바뀌게 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주지스님 및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원함
-약력 : 동국대대학원 법학과 졸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전직 교수 역임
- 각종 법률, 자녀교육, 행정, 인권 문제 외
사주, 관상 등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010-5012-52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대전)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010-5209-7420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포교당에서 종무소
보살님(총무)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3574-3303

스님이 없는 절을
구합니다
대작불사를 통하여
절을 발전 시킬 수 있는
60대 비구승입니다
010-8934-2848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좌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청정한 **남해바다** 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 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직거래로
소개하여 드립니다.
055)867-2259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가족처럼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 이상, 성남지역)
011-212-9110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 금 계 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당뇨
고혈압
당뇨 천연인슐린 개발
10여년간 당뇨로 고생한 김성용 대표가 직접 체험해 보고 모모르디카(여주)환 개발. 직접체험 보다 더 정직한 건 없어 곧바로 이름 걸고 개발 성공, 당뇨부터 고혈압까지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집중!
식물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문의 : 080-598-9832
희소식
기적의 나무 모링가
(MORINGA)
모링가는 적어도 49가지의 천연식물성 영양소 합성물 부작용이 없는 240가지의 노화방지체, 36가지의 항염증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자연 그대로의 것들이다. 모링가는 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분자 집합체인 피이토케미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출처 : Faizi et al 1992)
장(腸)은 인체의 거울이다.
쾌변(숙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쾌변(숙변)할 수 있지요!!!
맥스모링가로 대장(大腸),
소장(小腸), 쾌변(숙변)
체지방 감량(비움) 해독작용 영양 발란스!!!
변비와 설사의 교대증세 산성체질이나 질병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선 시킬 수 있다.
www.maxbio.co.kr
사무실 02)875-8858 / 공장 031)534-9835
맥 스 생 명 공 학

불 자 정 보 26 | 918호 | 전면광고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양평
- 법당자리 최고
- 요사 : 50평
- 부지 : 1400평
- 약수물, 명물
- 가액 : 7억 5천

- 위치 : 금산
- 법당 : 20평
- 요사 : 40층
- 총 : 560평
- 가액 : 1억8천
- 최고 보시면OK

- 위치 : 서울
- 인법당 : 25평
- 가액 : 1억 3천

- 전세. 월세 급구 연락 주세요.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포교당 안내 -
- 위치 : 경기 양평
- 법당 및 요사 : 60평
- 임대금 : 1000/60만원
- 시설비 3,500마원
- ※즉시법회가능

- 위치 : 경남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2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235평
- 법당(2층) 30평, 요사채(2층) 80평
-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 6억 3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관리지역)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대지 : 385평, 건평175평(2층건물 2동)
- 법당 52평, 종무소 52평, 요사채 71평
- 4차선 국도인접, 전망좋음
- 가액 : 6억 5천만원

016-874-8885 / 053)853-5539

종교관련시설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가액 : 15억
- 신축도 가능합니다

011-372-77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 120평, 법당 15평
- 요사채 35평 방 4개, 현대식 화장실 3개
- 가액: 7천 5백만원

010-3087-335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의 중심지인 수성구에 有
- 지하철 5분거리(도보)
- 평수 : 상가건물 4층(43평)
- 시설 : 일체 완벽(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 4000만원(월 30만)
- 시설비 : 답사 후 조정

010-2110-2555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황금동에서 차편 약 15분)
- 대지: 도지료 연 35만원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8백만원

054)435-1259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비구니 스님 환영(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2천만원 / 월 3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9647-0723

도심속의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 3억 3천만원 (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10-3732-5237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 6대 주차 충분
- 방10개, 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2억 9천 500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부지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내 천등산
- 지목 : 전 10년전 4단식 계단 토목공사완료
- 산세수려, 청정계곡, 토굴이 있음
- 평수 2400평
- 양도가 2억 5천만원

010-6317-5863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 북부동
- 가액 : 1억 500만원 (전세 5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합해서 5,500만원)
- 평수 90평, 3층 건물 중 3층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 용궁, 후불 등 부처님 모셔져 있음
- 법당 외 방 5개, 소불 200불

011-9556-8413
010-8384-7754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소재 금오산자락임
- 면적: 실면적:634평(2,095㎡)
- 가용면적:약 1000평(도로부지300평 포함)
- 특징: 현부지에서 지리산 천왕봉 자락이 맑은 날 육안으로 보임
- 광양만경제특구 진입도로 예정지로 유동인구 증가예상
- 가액: 6억 5천만원(가격절충가능) 원매자 직접 양도

010-7145-1083
010-6255-2431

포교원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 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3662-55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전철역에서 2분거리, 대로변
- 최고시설, 좋은 위치
- 5층 건물 중 3,4,5층 총 1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50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3198-89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밀양 암자 안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주위
- 자연경관 수려함 (폭포 , 계곡 등산로)
- 면적: 8000평 (종교용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7억 (협의)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거리 아름다운 사찰
- 평수 : 340평
- 집은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방,화장실, 거실,공양간(옥상사용가능)
- 삼존불,영단
- 탱화(산신, 신중, 용왕)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2542-22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전세가능)

010-2610-999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동래전철역 도보 5분거리 대로변 아파트 단지 및 금정시장
- 3층 건물 중 2층 40평
- 극락전, 지장전, 나한전, 시왕전, 산신용왕전. 시설완벽
- 큰절 소임관계로 (급)양도 또는 전월세 가능

010-2531-196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구청 건너편
- 4층 전용면적 45평
- 교통편리, 주차가능
- 올수리, 즉시 입주가능
- 보증금 : 5,000만원(조정가능)
- 관리비포함 월 150만원

010-3772-751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진구 범천동 중앙시장(조방앞) 지하철 1호선 범일역 12번출구(5분) 버스는 중앙시장 앞 하차 (1분)
- 4층건물 중 2층(25평)
- 전세 : 5백만원, 월30만원 시설비 : 1천만원(절충가능)
- 법당내부 : 삼존불과 신중탱화, 산신, 용왕탱화, 영단, 인등
- 기도, 법회, 상담의 최적지입니다
- 몸만 오시면 모든 물품 그대로 인수(시설비에 포함)

010-2848-363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 최요지 2층, 약 60평
- 방2, 공양간 큼,
- 삼존불, 신중단, 탱화 소불 약 200불
- 전세 2000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있음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6889-504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진평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 80평
- 방, 주방, 거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주차완비

010-6505-0385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사송리
- 대지 : 300평
- 법당 30평, 요사 40평
- 보증금 5천만원, 월 50만원
- 주차 30대가능

011-556-5830

하늘아래 집

- 경북 영양 지방도로따라 포장된 샛길로 1.5키로 올라가면 해발 500
- 온 주변은 국유림내. 한동의 집은 대지 124평, 건물21평, 전기유
- 생수와 실도랑이 흐르는 대자연 속에 그림같이 존재된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등기필 유하여 취득한 것을 급 양도하고저 함
- 번지 불공개 가액 7,500만원, 조정가능

010-8899-8899
054)682-8888

도심속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초읍동 성곡상가아파트 3층
- 평수 : 18평
- 가액 : 8천만원

010-3570-244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교원안내

- 위치 : 강북구 송천동 4거리 기업은행앞
- 2층 25평, 법당, 상담실, 방, 거실 겸 주방, 욕실, 에어컨 2대, 정수기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0만원(조정가능)

010-9469-368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천강리
- 천수천안후불, 신중영가단
- 65평, 2층
- 전세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9백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8948-261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시장통
- 4층건물 중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평수 : 35평 법당1, 방1, 주방
- 시설비 1천만원

010-4227-823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중심사찰
- 부지 : 3,000평
- 법당 : 50평
- 전각 : 6채
- 양도 : 33억5천

- 위치 : 충남
- 부지 : 24,000평
- 법당 : 45평
- 전각 : 4채
- 앵도 : 25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 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 500평
- 총 2억 7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평수 31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방2, 주방, 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 1천만원, 주방기구 일체

010-2208-7749

가까운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상역 시외터미널 건너편
- 건평 60평, 시설 멋짐
- 전세 1800만원, 월 45만원
- 비품대 1500만원 4층건물에 2층

010-3590-6329
010-8548-86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 경주. 포항 20분대 대구 15분시내 IC 3분거리
- 평수: 203평. 인법당. 삼성각. 용왕당. 기도방
- 요사채 방 4, 욕실1, 수세식화장실2, 현대식주방
- 300년 고목 약나무 지하온천수매장. 개발가능
- 비구니스님 거쳐로 용이함
- 양도가액은 만나서 협의를 원함

010-2835-6886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 평수 : 대지 60평, 대웅전 포함 건물 6동
- 낙동강 산자락이 보이며
- 아파트단지가 있는 전망 좋은 위치
- 가액: 2억

010-7749-7090
055)383-709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법당 20평, 요사채 22평)
- 아미타불 도량, 산신용왕
- 백년 된 대추나무, 은행나무 돌탑
- 비구니 스님, 안주하기 적합한 도량
- 가액: 1억 1천만원

010-8503-5769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제하여 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 있는 사람이다. - 법구경 -

자기치유

조순희 (약사 · 철학박사)

〈2〉 마음과 몸, 그리고 뇌

"자비명상은 행복감 조절… 뇌기능 변화"

스트레스에 대단 효과적 대응

스트레스가 너무 적은 단조로운 상태나 너무 극심한 상태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만 적절할 때는 신바람이 나고 건강하며 행복해진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만났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끊기 위해 일단 멈추어 서서, 심호흡을 하고, 생각들을 알아차려 보고,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네 단계를 따라해 보자.

제1단계로 일단 멈추어 선다.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지나친 생각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부정적 반응을 멈추게 해 자동적으로 스트레스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2단계로 심호흡을 한다. 일단 멈추어 선 다음에는 몇 번 심호흡을 해 신체적인 긴장을 내려놓는다. 심호흡은 부정적 스트레스 사이클을 한 번 더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횡경막 호흡과 같은 심호흡은 긴장을 없애는 데 매우 유용하며, 심호흡을 하면 심장박동률 · 호흡률 · 혈압 그리고 신진대사 등을 낮추어 이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또 심호흡에 마음을 모으면 순간적으로 주의가 스트레스 반응으로부터 이완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하더라도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준다.

제3단계에서는 부정적 사고의 주기가 멈추어 서고 심호흡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 먼저 스트레스 상황을 잘 살펴보아 스트레스를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자동적인 생각과 반응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해하고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불합리한 신념과 인지적 왜곡에 대해 알아차린다.

제4단계에서는 부정적 사고의 주기가 멈추어 서고 심호흡을 해 주의가 스트레스 반응으로부터 이완반응 쪽으로 바뀌게 된 다음, 이 스트레스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현상으로서 인간의 삶이 여기에 달려 있으며, 숨이 들어오는 순간이 삶이요, 숨이 나가는 순간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숨 쉴 때마다 산소가 혈류를 타고 인체 곳곳으로 보내져 에너지가 되고,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는 혈류를 따라 거꾸로 폐로 이동된 후 내쉬는 숨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우리는 생명을 지탱하는 이 중요한 호흡과정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물론 우리가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거나 집중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호흡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매우 유익한 생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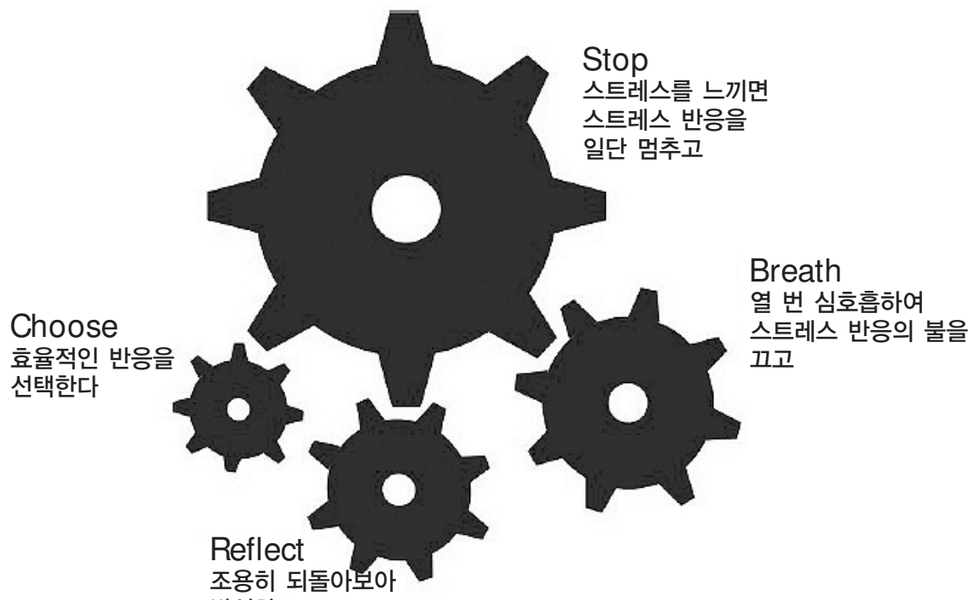
뇌와 신경전달물질의 작용

인간의 뇌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위스콘신 대학의 리차드 데이비슨 박사는 인간의 감정과 뇌의 관계, 티베트 불교의 명상법을 통한 뇌의 상태를 관찰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행복이란 상대적인 것으로, 감정의 통제를 통해 행복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행복의 정도는 감정조절 방법 가운데 하나인 자비 명상의 시간과 비례할 수 있고, 뇌의 변화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첫째,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그 차이점의 바탕은 생물학적 특징들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두 번째, 감정 조절은 행복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행복은 정신의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신 강화 훈련이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1972년 생리학 및 의학부분 노벨상을 수상한 제럴드 에델만은 마음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됨으로써 물질을 이루듯이, 마음은 그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배열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우리가 마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뇌에 관해 알게 된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감정의 변화가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긴장하면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혈관이 수축돼 혈액의 흐름을 막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어 혈소판이 쉽게 파괴되고, 파괴된 혈소판은 혈관수축을 가속화시킨다. 또 혈액의 흐름이 막힘으로써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돼 유전자를 손상시키거나 과산화지질을 생성시켜 만성질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자주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노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4단계

심호흡, 심장박동 혈압이완
화내면 만성질환 · 노화촉진
긍정적사고는 젊음 · 건강 비결
심상기법, 암치료에 도움

에피네프린의 독성으로 인해 병을 일으키거나 노화가 촉진돼 그만큼 빨리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할 때와 부정적 사고를 할 때의 단백질 분해방법은 서로 다르다. 아무리 불쾌한 일을 겪더라도 사태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받아들이면 단백질이 부신피질호르몬과 β-엔도르핀으로 분해되지만 화를 내거나 불쾌한 감정을 가지면 똑같은 단백질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으로 변한다. 따라서 모든 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항상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질병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용서가 지닌 치유의 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뇌하수체 분비선에서 성장호르몬을 충분히 생산해 내지 못한다.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줄 사람을 갖지 못한 이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경련환자시설에서 테레사 수녀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팔다리가 경련으로 뒤틀린 한 아이를 안았다. 테레사 수녀는 그냥 아이를 안고 어르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몇 분이 지나자 아이가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팔다리는 부드럽게 풀렸다. 테레사 수녀에게 왜 구태여 회복할 가망이 없는 병자나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지를 묻자, 자신의 소명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충분했다.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 줄 사람을 갖지 못한 아이들의 신체발육 일시정지 현상은 사랑을 받게 되면 신체발육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캐서린 로울러 교수에 따르면 용서를 했을 때는 우리 몸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 혈압 심장박동수가 줄어들며 용서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나고 긍정적이며 행복감을 더 느낀다. 근육긴장도에서도 용서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근육긴장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숙면과 질병에서도 용서한 사람이 숙면을 취하고, 두통 · 요통 · 감기 등의 증상이 적게 나타났다. 용서가 혈압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화가 났던 일을 말하게 하고 그 일을 용서했는지 안했는지 물었을 때 화가 났던 일을 회상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그러나 용서했던 것을 말하면 몸이 회복된다. 그래서 용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몸의 변화를 드러낸다.

불안증과 성장호르몬 그리고 웃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가슴아픈 결과는 정신사회적 난쟁이로 알려져 있는 왜소발육증이다. 이것은 심한 정서 결핍으로 어린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95년 미국 정신신체학회에서 발표된 예비보고서에 의하면, 어려서 성장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았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일부는 왜소한 사람들이 겪어야 할 부정적 사회경험과 관련이 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련돼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불안증은 성장호르몬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렇다면 성장을 주관하는 뇌하수체호르몬이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자 프라이(William Fry)는 근육계 · 호흡계 · 심혈관계 · 내분비계 · 면역계 · 신경계 등에 영향을 주는 웃음과 쾌락에 관련된 일련의 생리적 변화를 연구해왔다. 프라이의 설명에 의하면 웃음은 그 시작 단계에 일종의 자극효과를 지니며, 일단 그것이 가라앉고 나면 짧은 이완기간이 뒤따른다. 특히 통쾌한 웃음은 다수의 근육들을 활성화시켜, 일종의 인체 내부적 운동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런 현상은 특히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나 휠체어 환자들에게 이롭다. 이에 비해 웃음 뒤의 이완현상은 근육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신경통증이나 관절염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발작-통증 사이클에 제동을 걸어준다.

심상기법과 암 치료

심상기법이란 시각 · 청각 · 미각 · 촉각 · 후각 · 운동감각 등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심상치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개념은 마음이다.

심상이란 마음 또는 마음의 외형적 내용물로서 우리들의 무의식 세계의 내용물 및 유아기 시절부터 주관적으로 체험해 새겨진 마음의 내용물을 의미한다. 심상치료는 마음의 기능 · 내용 · 법칙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심상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방사선 종양학자인 사이먼턴(CarlSimonton)은 심상은 매우 사적인 상징적 언어이며 따라서 그것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효과적으로 암과 싸우는 심상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것들은 이른바 암 세포들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데 비해, 치료기법은 매우 힘이 세고 강력하다는 것이다. 건강한 세포들은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어떠한 피해도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백혈구는 쉽게 암 세포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들 백혈구들은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열심히 암 세포들을 찾아 궤멸시킨다. 패배한 암 세포들은 결국 인체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상이 끝날 무렵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달성하는 것뿐이다.

심상기법이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증 · 통증을 완화시켜줌은 물론, 기타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부터 편안하게 해준다.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암 치료에 있어 사랑 또는 사회적 지지라는 마음의 요인도 중요하다. 스탠포드 의과대 정신과 교수 데이비드 스피겔은 1976년 말기 유방암 환자들을 자신의 병과 삶에 대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모임을 갖게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실험했다. 그 결과 그룹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평균 18개월 정도 더 오래 살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회적 유대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자기치유〉(정우서적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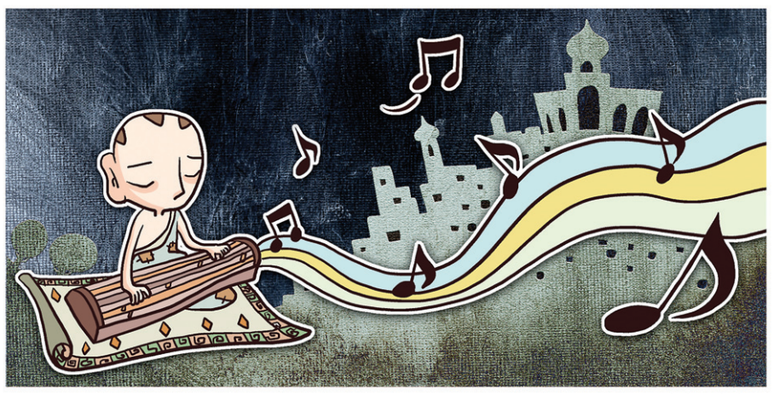
제2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승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범패단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으로 이름 짓고 창단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먼저 청강해 보시고 접수는 뒤에 하셔도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분은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 단원으로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향수해례, 사성례,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사물.
2. 중급 : 주 둘째시간 ~셋째시간 : 천도재의식,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 귀명정례긴소리, (짧은소리) 화청
3. 상급 : 매주 넷째시간 : 범패의식-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4. 고급 : 2년이상 된 자로서 시다림, 다비, 점안식, 방생, 생전예수재, 종사이운, 불상이운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 10만원 (1년 선불 10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원에 비치)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시 : 12월 16일 오전 11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1박 2일 실습위주 집중교육)
■ 모집인원 : 장소관계로 선착순 10명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현우경' 이야기 (50)

선사 태자와 악사 왕자 ③

눈먼 태자의 거문고 선율이…



삽화 · 강병호

악사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왕은 아들 둘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악사 혼자만 돌아 온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선사는 어찌 된 것이냐?"

"형님이… 형님이…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를 당했단 말이냐?"

"무리해서 바다 가까이 있는 보물을 가지러 갔다가 다가오는 파도에 휩쓸려서…"

"그래서 너 혼자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냐? 어찌 형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악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다.

"제가 위험하다고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만큼 일렀건만… 형님이 욕심을 내서 바위가 있는 쪽으로 올라갔고 눈 깜짝할 사이에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정녕 선사가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

"시체는…. 시체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 살아 있을 수도 있단 말 아니냐?"

"그.. 그것은 저도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신하를 불렀다.

"걔 아무도 없느냐?"

"네에 마마"

"선사를 찾아라. 선사가 갔던 보물섬과 그 근처에 사람이 살만한 땅을 모두 뒤져서라도 꼭 선사를 찾아야 한다.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 안 그러면 네 놈의 목을 벨 것이다"

악사는 덜컥 겁이 났다. 선사가 살아 있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난감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졌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위로했다.

한편, 선사는 혼자서 저작거리로 나섰다. 그가 아는 것은 이곳이 리사발타국의 성안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히기도 하고 따귀를 맞기도 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눈으로 즐기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의 눈은 오직 내면으로 향했다.

저작거리에 자리를 잡은 선사는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다. 그 깊은 심연의 아픔이 선사의 손가락을 타고 거문고 줄에 닿으면 슬픔도 원망도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흘러내렸다. 이제 다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문고를 타는 일 밖에 없었다.

그의 음악은 길 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쳤고, 다투던 부부들은 화해를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사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선사 역시 거문고에서 위안을 얻었다. 거문고를 타면서 그가 한 나라의 태자였던 사실도 그리고 동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모두 잊었다. 사람들은 선사 앞에 먹을 것을 두고 가고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다. 성안에 있던 오백 거지들은 선사가 동냥한 음식들을 나눠 먹었다. 선사는 그렇게 거리를 떠도는 방랑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리사발타국의 왕이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저작거리에는 선사의 거문고 선율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그 선율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해 발길을 멈추고야 말았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왕은 선사 가까이로 갔다.

"너는 누구냐?"

"저는 그저 거리를 떠도는 거지일뿐입니다"

"누구에게 거문고를 배운 것이냐?"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잊었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그저 제 손이 거문고를 기억할 뿐입니다"

"너의 소리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내 옆에서 거문고를 연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선사는 리사발타국 왕궁으로 들어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선사의 연주를 듣는 내내 왕의 마음은 충만했으며 기쁜 마음이 되었다. 선사는 왕이 부르지 않아도 매일 매일 자신의 처소에서 거문고를 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공주가 우연히 선사의 처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그렇게 내내 서서 공주는 선사의 거문고 소리를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옆의 시녀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이 소리는 아마도 눈먼 장님이 탄다는 거문고 소리인듯 하옵니다"

"눈먼 장님이 어찌 거문고를 탄단 말이냐?"

"그것이 신기하옵게도 눈을 감고도 눈을 뜬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거문고를 타 모두를 놀라키고 있다고 하옵니다"

"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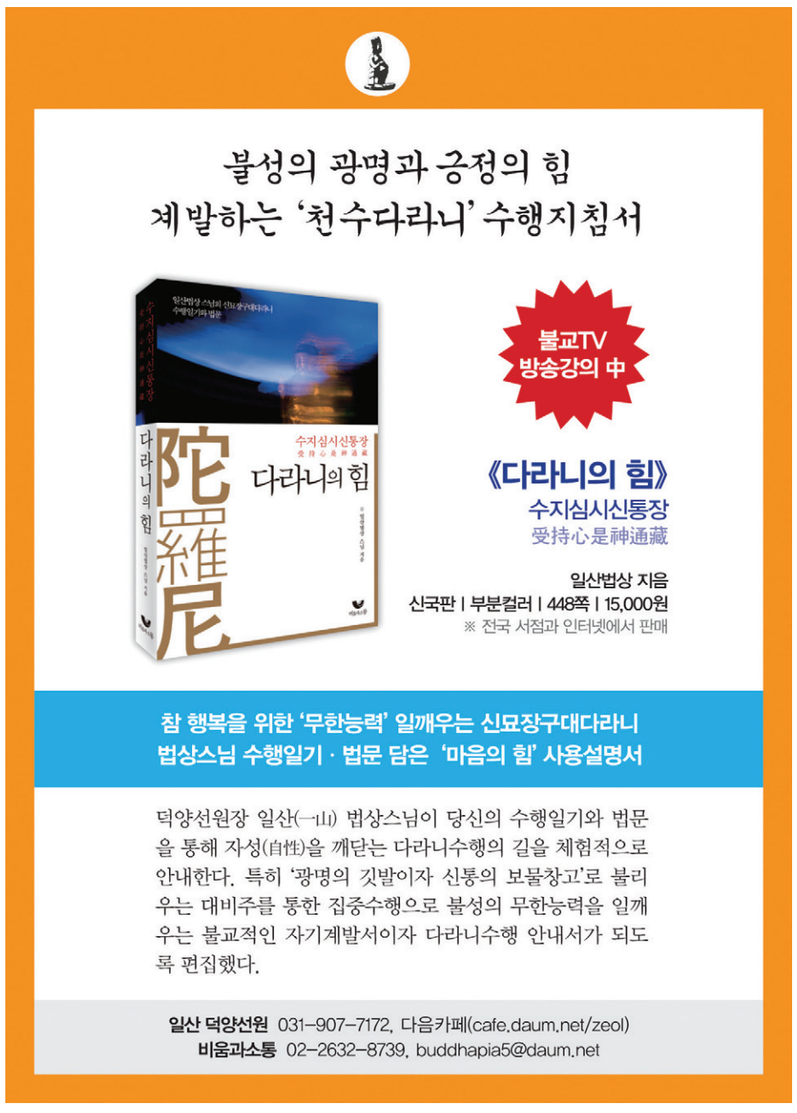
공주는 선사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 선사는 온몸이 빛나는 귀공자였다. 공주의 눈에는 선사의 상한 눈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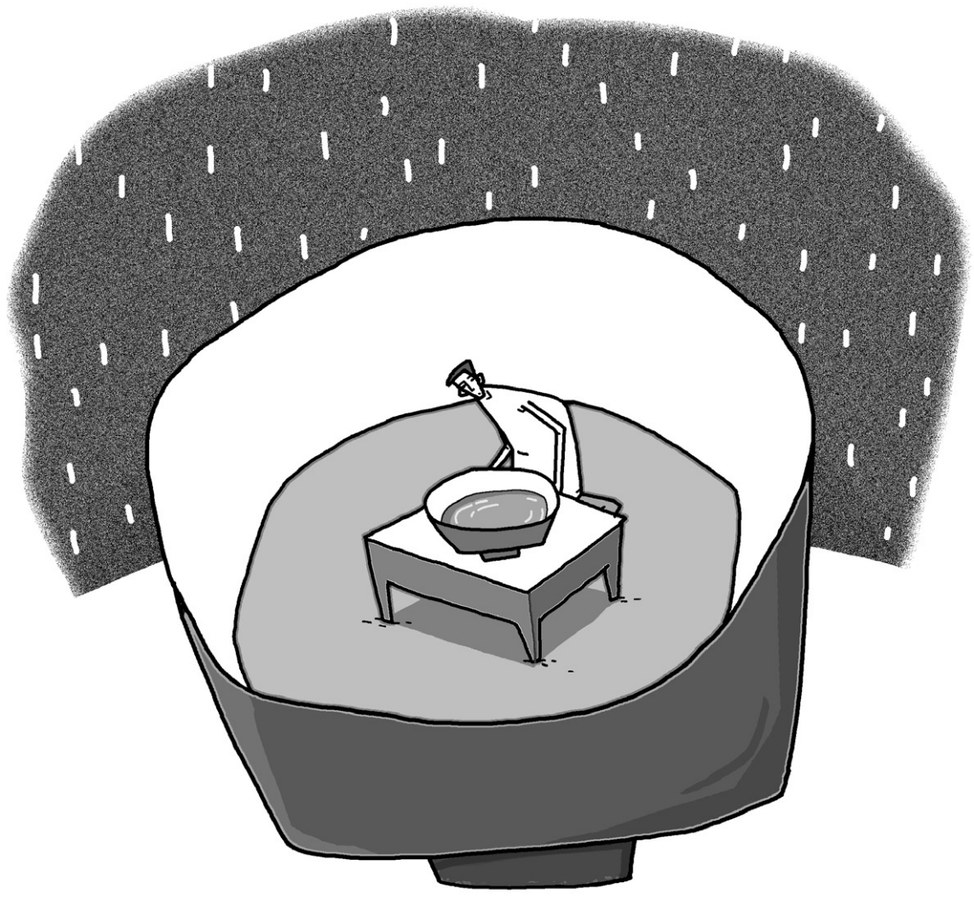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우주천하가 다 내것인데 뭣 때문에 짊어지고 다니십니까


그림 · 최주현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건지요

문)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 주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이것저것 다 해 보려고 하지만 워낙에 밑천이 없다 보니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모두들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은 지금 이 마음을 비우라 하기 이전에 아주 탕탕 비어 있습니다. 그런 걸 왜 모르십니까? 본래 비어져 있습니다. 돈을 억만 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가진 게 아닙니다. 비었습니다. 자기의 추에 의해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재산도 모두가. 여여하게 쓰십시오. 여여하게 사랑하고 여여하게 쓰시고 여여하게, 그냥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가 되어 봤어야, 그것도 이름해섭니다. 부처가 되어 봐야 보살이 될 줄 알고 보살이 될 줄 알아야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참사람이요, 이름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신도 자기요 보살도 자기요, 부처도 자기요 중생도 자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태초의 모습이, 자기 이 오장 육부의 세포를 타고 자기의 참 그 태초의 모습들이 지금 자기 속에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갖은 각색으로. 그런데 자기가 선장으로서 한생각을 내면서 드립다 지금 여여하게 뱃놀이를 하고 가는데 흥! 소리를 못 지르나마, 노래는 하지 못하나마 왜 여여하게 가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놔라 하기 이전에 놔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고 있다면 지금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잔뜩 끼고 있어서 그렇지, 그건 여러분의 탓이에요. 그냥 돼 있는 건, 여러분이 걸어다니실 때에도 그 발자취가 없는 겁니다. 그 발자취는 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지, 아마 발짝 하나 딛는 데 금은보화가 10억씩 붙어 있다고 그런다면은 '아휴! 한 걸음에 10억씩 붙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네? 이럴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하나도 돈 내는 것도 없고 돈 붙는 것도 없고 뭐 하나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태연하게 그냥 걸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태연하게 그렇게 가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 신발을 내가 벗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이 들어가십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생각이 없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똥 누러 갈 때 똥을 누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똥만 마려우면 그냥 뛰어들어갑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똥 버리는 건 아깝지 않고 금 버리는 건 아깝거든요. 네? 마음이 이렇게 괴상망측합니다.

나를 한번 봐도요, 돈이 백만 원이 들어왔든 천 원이 있든 그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한 개도 받은 예도 없고 준 예도 없습니다. 주고 받은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절이 있어도 이게 바로 내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동시에 나와 같이 여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욕심부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식과 아내와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것은 바로 동시에 식구들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만 할 수 없으니 그냥 놓으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아이 글쎄,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몸이 자기 몸입니까? 왜 자기 겁니까?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인의 바로 남편이고 그 자식들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의 거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여하게 그냥, 벌게 되면 벌고 못 벌게 되면 못 벌고 이러는 반면에 내가 그대로 버는 것도 못 버는 것도 그냥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쓸 때 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우주천하가 다 내 거라면은 무엇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다닙니까? 짊어지고 안 다녀도 그냥 허허지 늘어진 게 바로 나고 내 생명이고 내 것이고 나 아님이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리를 꼭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아내려면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자기를 낮게 생각을 합니까. 낮게 생각도 말고 높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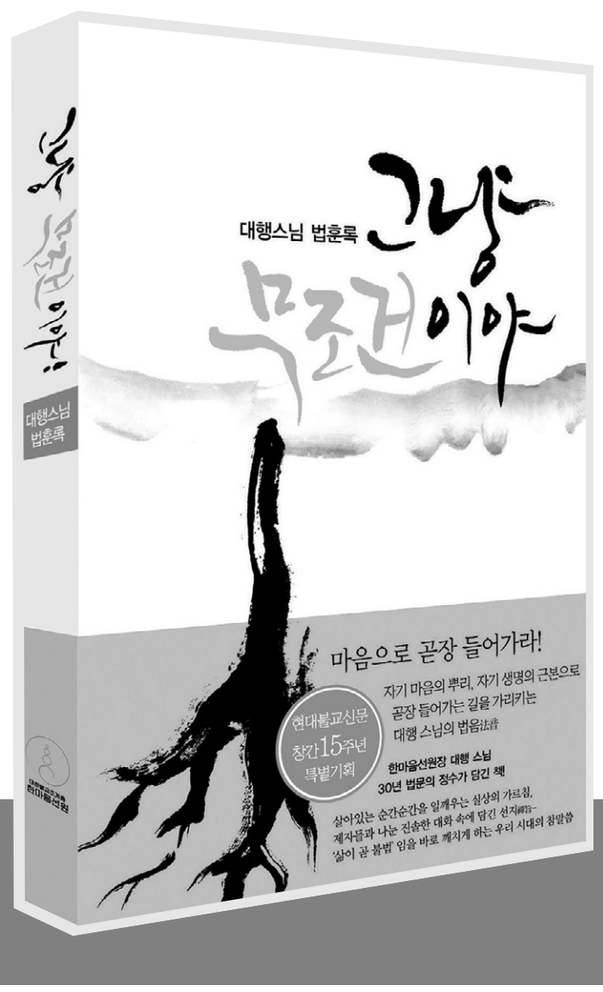
석존께서도 어느 신도가 아프다고 누웠는데 그 신도가 그 석존을 뵙고 싶어서 무척 아프면서도 앨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도가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의 제자들더러요. "야, 우리 고을에 아무데에 사는 아무개는 이렇게 죽을 날이 며칠 안 남게 아파서 누웠으면서도 한 번만 뵙고선 갔으면은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가야지." 하고서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 아픈 사람이 석존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누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드러누우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은 드러누웠으나 앉았으나 일어나나 그것은 상관이 없다. 단, 네 마음이 그토록 그렇다면 벌써 일어나서 그렇게 반겨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진실한 마음이 있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절을 삼 배 했느니라 하거든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네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네 마음이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론으로 정말이지 저보다도 이 세상에 모두들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 이론으로서 무불통지 하셔서 말을 참 잘하신다 하더라도 못하는 나만 못한 겁니다. 그 뜻을 아십시오. 열 번 백 번 만 번 말을 잘한다 해도, 또 이 물질적으로나 우리 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율법을 지킨다 해도, 이 무의 세계의 두루 법은 이건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 두루 법은, 두루 모습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한 번 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 번 행할 때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행할 때에 한 주장자를 탁, 주장자가 동그랗게 말려서 아주 가지고 다니는 사이 없이 가지고 다닐 때 주장자가 한 번 탁,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딱 들었다 하면 쭉 펴지면서 소리가 요란하게 날 때에는 우주간 법계에서 다 그 소리를 듣고 다 같이 호응을 해 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법이.

지금 우리 조그마한 반쪽 된 나라에서도 그렇게 무슨 가난하게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부자라면, 허허 웃으면서 나물 먹고도 그 요지로 이빨 쑤시듯 반쪽 나라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여여하고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고, 손 없는 손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참자기 안에 다 놓는 것이 바로 그릇을 탕탕 비우는 공부

☞ 29면에서 계속

두루 할 수 있고, 발 없는 발이 길 없는 길을 두루 할 수가 있는 이 묘법을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무슨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현재에 물질적인 생활로서, 물질적인 과학으로서, 물질적인 모든 공업으로서 이 세상 모두 살아나가는 문제, 경제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모두가 포함해서 한 추에 모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철두철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은 이렇게 자비하고 묘하고 이렇게 당당한 이 도리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이 세상을 다 바꾼대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도리가 바로 여기에 나한테 있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이론적인 아는 게 있다 하더라도 다 자기는 그 참자기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한 문으로 들었다가 한 문에서 나오는 거니 모든 것은 그 나오는 대로에 거기에 다시 놓으십시오. 그러면 빈 카세트가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비우는 공부며 아주 탕탕 그릇을 비우는 공부입니다. 비워야 바로 우리는 항상 집어먹을 수 있고 그저 닥치는 대로 놓을 수 있어요,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실 테지만 말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문) 스님, 저는 참 외롭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직위는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친구도 그렇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제 성격이 좀 직선적이라 돌려서 말하질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뜻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되더라고요. 공부한다 하는데도 이 습이 잘 안 녹아져서 부끄럽습니다.

답) 우리가 이 생각을 평탄하고 둥글고 겸손하게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겸손하게 하라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항상 뾰죽하게 폭 뚫는 것보다도 스르르 돌려서 남 맘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모두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자비요, 지혜죠. 남이 잘못한다고 해서 "넌 왜 그렇게 잘못하니?" 하고 하기보다 "얘, 이럭하면 이렇게 잘못되는구나."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앞의 거는 감정이 생기고 뒤의 거는 감정이 안 생기죠. "아휴, 그런가요? 그렇겠군요." 하고 외려 미안해합니다. 그럴 때 "미안할 거 없어.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 이거보다도 더 잘못하는 일도 있고, 이거보다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 사람이 죽고 살고 이거 뭐, 다 떨쳐버린 거를 뭐 이거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죽는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잘났다고 하려고 이 공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못났대도 좋고 잘났대도 좋고. 모든 게 나, 과거의 난데, 그것이 다 내 모습이요, 내 마음이요, 내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바로 나 아님이 없는 것이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겁니다. 어디 송장이 수북하게 쌓였다 하더라도 그것도 바로 내 친척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송장 아님이 없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내 이 근본이 아니라 분별심만 딱 떨어진다면 금방 송장이 돼 버리죠. 혼백이라고도 하고 모두 죽는다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뭐 별 소리 다 합니다마는. 우리가 성품으로 인해서 만법을 응용하고 지금 살아나가는 게 그대로가 여여하다 이러지마는 그 성품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똑바로 우리는 실감해야 됩니다. 실감치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없어지면 부딪침이 없어서 그 무진 그 업도, 습이라고 하죠. 그 인연의 습이, 인연줄이 끊어지질 않아요, 끊으려고 한다면.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망상을 끊어라 끊어라 하는데 끊는다면 끊어지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냥 생기는 대로 자연적으로 놓는 겁니다. 맡겨 놓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 다시, 아주 막말로 "네 자리에서 나온 거 네 자리에다 쑤셔넣어라." 이러죠. 우리가 이 습을 놓으려면, 그러지 않아도 습이 자꾸 생기는데, 나는 대로 습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대로, 이게 모두 누가 하는 겁니까? 원동력인 이 주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처에서 나오는 것 주처에다 다시 맡겨 놓고, '들이고 내는 것은 거기밖엔 없다.' 하고 진실히 믿어 보세요. 그 믿고 가는 길에서 모두 타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너무 물질에만 얽매여 살았어요

문)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니 사는 데만 급급하고 너무 물질에만 얽매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음의 능력을 키워서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불교라는 이 자체가 마음 깨닫는 불교입니다. 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불씨 하나가, 마음이 근본이라면 이 불씨 하나가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법을, 우리 자체가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활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개발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개발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들이고 내는 그 마음의 능력이 서질 않죠. 껍데기로만 그냥 빙빙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항상 물질에 매이고 사는 데 매이고 그 습을 놓지 못해서 항상 애착에 끄달리거든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 놈의 거, 그렇다면 깨달음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가정이나 그런 걸,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버리지 않으면서도 굳건히 생각하고 착을 두지 말고 모든 거를 근본자리에 맡겨 놓고 그대로 빈 배가 물 위에 떠서 그냥 둥실둥실 떠가듯이 이렇게 순리적으로 떠 가라는 얘기죠.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 한 번 칼을 뺐으면 끼지 말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어떠한 고비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여 않고 그냥 걷는다. 무찌르고 걷는다, 그냥. 흙 속에 빠지면 어떻고 물 속에 빠지면 어떻고 불 속에 빠지면 어떤가. 나 하나를 놓는다면 모든 것이 갖다 붙일 데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랑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바로 괄시도 자기가 있기 땜에 괄시를 받는 거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도 있고 또는 슬픔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지, 그걸 모른다면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이라면 좀 똑똑하고 톡톡하고 좀 지능있고 지혜 있고, 이런 길로 택해서 온 우주를 한 주먹 안에 넣고 용을 할 수 있는, 스스로서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어차피 한번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
> 한번 칼을 뺐으면 끼지 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 앞으로 어떠한 고비가 닥친다 하더라도
> 그거를 관여 않고 그냥 걷는다.
> 무찌르고 걷는다.
> 흙 속에 빠지면 어떻고 물 속에 빠지면 어떻고
> 불 속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 나 하나를 놓는다면
> 모든 것이 붙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문) 최근에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어 김정은의 대남공세 강화 등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으로 우리의 군부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내 국토에 어떠한 문제가 크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 배 안에 탔는데 그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랬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즉 말하자면 무람선을 타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가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비유하자면, 미국이다 할지라도 바로 앉은 자리고, 저 다른 달나라라고 할지라도 앉은 자리고, 멀고 가까운 게 없어요. 대천세계다 할지라도 앉은 자리예요 몇 억겁 광년이 된다 할지라도 앉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살피 말하자면 지금 국내의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이 발판이 제대로 완고히 틀이 잡혀서 서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되긴 됐으나 우리가 정돈이 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정돈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한데 뭉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정돈이 되지 않는 폭이죠. 물론 많이 마음들을 참 계발하고 뭉치려고 앨 쓰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생각이, 여러 명이 그렇게 몸들이 일어나서 한데 뭉친다고 앨 쓰기보다 한 사람이 한생각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얘깁니다. 몸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생각이, 한생각이, 석존이 꽃 한 송이 드는 데 우주 전체가 들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한생각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에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 덩어리를 몽땅 하나로 들 때에, 결국은 어떠한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어떠한 무기라는 문제 또는 거기서 활용하는 그러한 양면, 사면, 삼면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는 이 지금 우리의 조그마한 땅덩어리 반 덩어리가, 여러분이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한 것이고 시급하다 그러면 시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하는 것은 그래도 실낱 같은 고 한 티의 불씨라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불씨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정돈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에 나가 있고 보이는 데 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데에, 나는 이 육신을 보고 상대를 맞추어서 살아나가고, 연쇄적으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주고 저 사람이 또 나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체로서 살아나가지마는, 무루의 그 나 아닌 참나가, 그거는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수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움죽거릴 수 없는 돌덩어리다 할지라도 근본에서 바로 내가 그 돌덩어리를 보는 순간 벌써 이 돌은 살아 있는 겁니다. 저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가 바로 법신이 돼 버리고, 화신이 돼 버려요. 양식이 없을 땐 양식으로 돼 버리고 군사가 없을 땐 군사로 돼 버리고, 이 모두가. 무기가 없을 땐 수많은 갖은 각색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갖은 각색의 신장이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될 수도 있고, 군사가 될 수도 있고, 바람을 일으키려면 바람을 일으키고 자게 하려면 자게 하고, 급하면 급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 무기는 바로 여러분 가슴에 있어요. 그건 미사일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죽이지 않고 덜 죽이고 또는 사람 마음을 곱게 만들어서 잘 리드해 나가는 것도 역시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다루는 법이죠. 급하면 급한 대로 드르르 한번 치는 건 치는 거지, 어떡합니까?

우리의 이 보배 하나 가지고 우리 국내의 사람들만 그 정신력이 투철하게 한생각 넣어서 에너지가 돌아간다면, 그렇게 연구하는 데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잘 연구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이익이죠. 여하튼 이 도리를 알아야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눈 깜짝 안 하고선 턱턱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난 공부가 안됐으니깐 이거 안되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급하면 급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가 없는 사람 고기 못 먹는다 그러죠? 잇몸으로도 잘 먹습디다, 급하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사는 거고,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심이라는 그 불씨가 그렇게도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거를 스스로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도자기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①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② 소품 연화 다기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③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8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기 : 직경 10mm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계좌 : 053-01-269062 농협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상업광고 중단' 이효리에게 배우다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장하다, 이효리!" 이효리 씨가 상업광고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는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른 말이다. 인기 정상에 있는 스타가,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 결단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스타의 행보가 대중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잘 알기에, 그 결정이 끼칠 긍정정인 파문을 예상하곤 정말 다시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멋있다, 이효리!" 이효리 씨와 관계된 인터뷰와 기사를 꼼꼼히 훑어 보면서 터진 두 번째 찬탄이다. 결코 스타의 일시적인 기분에 벌인 해프닝이 아니었다. 동물보호에서부터 환경문제로,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자각의 과정이 역력히 보였다. 주체적인 결단의 과정과 그것을 통해 성숙해 가는 인간 이효리의 모습이 정말 너무도 멋있었다.

한갓 상품으로 대접받기를 거부하고 당당한 주체로 서려는 노력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스타이기에 더더욱 힘든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중압감을 이기면서 자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세워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에 어찌 박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힘내라, 이효리!" 세 번째는 찬탄이 아니라 격려의 말이 떠올랐다. 쉽게 하는 말로 "사서 고생을 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결단, 그것은 단지 결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증명해가는 삶의 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위치이기에 더더욱 힘들 수 있고, 지녔던 많은 것들을 놓아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평소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는 필자가 보내는 이 찬탄은 정말 진심어린 찬탄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 이효리 씨를 잘 모르던 내가 골수 팬이 될 생각이 들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응원자들이 생겼겠는가.

물론 이효리씨의 주체적 각성 과정을 본다면 팬들을 의식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다. 공자께서도 "먼 곳에서 찾아오는 벗이 있다면 또한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자, 나 자신!" 마지막은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순응하는 '나 자신' 반성 "어떤 삶 살까" 사색해야

나로 돌아오는가? 이효리 씨를 보면서 결국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만큼 이효리 씨의 선언에는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반성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밖에 없는 계기가 있다. 끝없이 욕망을 부추겨 상품을 팔아대야만 유지되는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을 지구의 암세포로 만들고 만다.

수 십년 입을 옷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량의 몇 십 배를 소모하는 인간의 삶을 돌아보라. 그 자원들은 결국 자연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다른 생명의 몫을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조직을 깨뜨려 결국 모체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세포와 같은 삶, 그러한 인간들의 삶에 종착역은 어디일까?

이효리 씨의 인터뷰 기사에는 그러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도, 어떤 이익을 위한 계산도 아니었다.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가"하는 물음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써 행동과 결단이 나왔다는 느낌이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겉으로 드러난 이효리 씨의 뒤를 따르기 보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으로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모처럼 이렇게 남을 찬탄하는 행복한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를 제공한 이효리 씨에게 다시 한번 찬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장하다, 이효리! 멋있다, 이효리! 힘내라, 이효리!"

대선 후보 불교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장 후보가 불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전통 사찰 정비와 보존에, 문 후보 측은 불교의 사회적 활동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불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규제법령 폐지가 1순위 돼야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공동대표

새누리당은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 등 9개 사업, 민주통합당은 '설악산·금강산·비무장지대와 전통사찰을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 추진' 등 5개 항의 불교계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우리 고유문화의 핵심인 불교의 전통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현 상황은 국가가 전통사찰 지원법 등으로 불교와 불교의 유무형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고등종교인 불교에 대한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양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패악의 국가제도를 고칠 의지와 노력은 물론 기본적인 문제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불교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국책사업과 개발(도시, 도로건설, 산지개발 등)로 인해 훼손당하며, 고립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불교 및 역사문화유적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은 이번에도 부재하다.

양당 모두 불교가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자유를 국가제도 자체로 인해 훼손당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는 양 후보 모두 '정부가 불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각종 불교악법 폐기 또는 대대적인 개정을 제1순위 공약으로 제시해야 했다.

새누리당의 '10. 27법난명예회복'이나 민주통합당의 '전통사찰의 지원이나 규제완화' 등은 당 차원에서 직간접으로 누차 제기한 것으로 재탕·삼탕의 공약일 뿐이다. 결국 선심성 공약으로 불교계를 무시하는 인상을 준다.

또한 양당 공약은 지엽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차기 정부는 동북아의 전통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내용들을 잘 활용함에 따라 많은 국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심층적이며 거시적인 불교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발전도 있으나 대체로 인식 부족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대표, 서강대 교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약들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양 후보가 불교계에 내놓은 공약들은 구체성이 부족한 '불교 달래기'가 대부분이다.

사실 정부 부처 공직자 종교편향의 경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종교편향의 90%이상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편향 근절은 요원한 일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 후보 측에서 수용한 '(가칭)증오범죄법', '(가칭)차별방지법' 제정은 진일보한 공약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이 같은 법률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도 다종교 다문화 사회의 정책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만 사찰을 중심으로 한 도농공동체 구성과 사찰·사하촌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탈원전으로의 전환 등은 매우 바람직하고 눈여겨 볼 공약들이다. 자칭 녹색성장정부를 지향하면서 원자력을 수출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위험천만하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발생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은 잘 사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삶을 요구한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양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다.

社說

불교정책 공약 실천이 필요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불교 정책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불교 정책 공약은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 등 9가지로 전통사찰 정비와 문화재 보존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는 조계종이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던 요구 정책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불교 교류협력 사업 시행, 전통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의 보존·관리 종합 정책 수립 총 5가지 주제로 된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불교의 공익적 사회 활동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공약이 대동소이하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관리 전담기구 신설을 비롯해 다종교 다문화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제정, 전통사찰 농지 취득 허용, 보전부담금 감면, 조계사 인근 전통문화관광지구 지정, 10.27법난 특별법 개정 등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사실 이 같은 공약들은 이미 불교계에서 요구했고, 정치권에서 늘 들어주겠다고 했던 재탕, 삼탕의 약속들이다. 불교 유?무형 문화유산은 국책사업과 개발로 인해 훼손당하며, 고립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근원적인 불교 및 역사문화유적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부재하다. 창의적이고 신선한 정책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공약의 이행이다. 사실 역대 정권 중 제대로 불교 공약을 이행한 경우는 많지 않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실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공약 이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나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

완연한 겨울이다. 살을 에는 추위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이 추위가 더욱 어렵게 다가오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이다. 이들을 돕기 위한 각계 행사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도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비나눔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했다. 2008년 아름다운동행 창립 이후 최초로 열린 후원의 밤 행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다.

이날 이사장 자승 스님은 "경제 불황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다. 불자들이 먼저 나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불연이 전해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최된 행사"라며 "이제 출범 4년째를 맞는 아름다운 동행은 무주상의 나눔을 생활화하며 십시일반 나누는 공동체를 실현해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나눔과 배려가 미덕이었다. 유교 경우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자손에게도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고 말하며 이웃에 대한 선행을 장려했다. 한국정신문화의 큰 맥을 이루어온 불교는 보시(布施)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

특히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를 의미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이 시대 불자와 국민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가르침이다.

이를 통해 가난한 이에게는 분수대로 나누어주고, 진리의 말로써 마음이 빈곤한 자에게 용기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며,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된 보시다.

연말연시에 맞춰 소외계층에 생색내기 보시보다는 평소에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자세일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 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 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사경지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설삼재풀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 가 1,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 가 25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 가 6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예금주:강태규]



正法頌

修禪의正路는
正法眼藏이요
梵天王의懇請으로
佛法이始現했네
佛陀의法旨는
三處傳心인데
靈山會上의
拈花微笑요
多子塔前의
示分半坐요
紗羅雙樹下에서
나투신槨示雙趺라네
楞嚴에서說하신
雪山白牛는
眞性의出現消息이요
眞性의出入은
頭頂의泥丸宮이라네
業識의本鄕은
臍下의命門이요
脫業을爲한出發에는
楞嚴神呪를必誦해야하고
性과命의同行雙修라야
火宅을可히벗어날수있다네
尋牛牧童修禪學人아
佛陀의三處傳心하신
修行하는正路에들어와
勇猛精進하여서
彼岸으로건너가는
靈方을찾아라!

任辰年 臘月八日
智異山人 覺庵 性元 頌



佛陀釋迦世尊께서 傳法하신 修行法
西域에서 28代 海東에서 5代 33대 祖師가 설하신 修行正路

正法眼藏 三處傳心 하신
釋迦世尊의 修行法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해동의 6祖 慧能大師의 入滅(BC 713년)以後
般若에 묻혀버린 正法이 1,300餘年만에 햇빛을 보게된

佛陀의 修行路 "禪林의 바른길"이
여기에 고구정녕 說해져 있다.



- 저 자 : 각암 성원
- 상권 401쪽 / 하권 380쪽
- 가 격 : 각권 15,000원
- 발 행 : 동진기획

● 발행처 : **동진기획**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 판매처 : **불서총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1층 **TEL 02)3672-7181~5**